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카톨릭의 신앙과 소속의 정치

: 신앙실천을 통한 디아스포라 경계의 생산과 재구성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한은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카톨릭의 신앙과 소속의 정치

: 신앙실천을 통한 디아스포라 경계의 생산과 재구성

지도교수 권 숙 인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한은혜

한은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원장 강 윤 희 (인)

부위원장 강 정 원 (인)

위원 권 숙 인 (인)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아르헨티나의 한인 카톨릭 사례를 통해 초국적 이주맥락에서 ‘중간인(in-betweeners)’으로 구성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거주국 사회의 여타 성원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원권(membership)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의 양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중간인’의 위치를 긍정하는 대안적 성원권의 생산주체로서 한인 카톨릭과 이들의 종교 실천에 주목하고, 소속됨에 대한 기대로부터 수용과 배제의 전략이 주류 사회 원주민(유럽계 백인)과 ‘불법성’을 담지한 인근 국가 이주민 사이에서 여러 층위의 경계를 형성하며 이들의 신앙생활에 투영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본고는 먼저 라틴아메리카 및 아르헨티나의 이주 맥락과 경험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가 구성되는 양상과 이로부터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수렴된 사회적 기대들이 성원권의 경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아메리카 역내 이주와 북미 선진국행의 과정에서 이주의 중간 기착지로 역할해오면서 이 곳 한인사회 또한 높은 재이주율을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잦은 경기불안과 사회적 동요는 이들의 재이주를 추동하였고, ‘언젠간 떠날 곳’이라는 인식은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의지를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문명화된 백인국가’ 이데올로기를 고수해 온 아르헨티나에서 한인들은 의류업을 통해 중산층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계층적 차이로부터 원주민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 소수자(middlemen minority)’라는 입지는 저소득층 원주민 및 인근 국가 이주민들과도 불편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왔다. ‘이등시민(second-class citizen)’의 경험은 한인들이 모국으로 귀환하는 배경이 되지만 제3세계 국가 출신인 이들은 모국에서 또한 ‘이등교포’로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에 다시 머무르며 ‘중간인’,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의 현재를 긍정하게 된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공유되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경험과 감정은 상이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일련의 군집으로 귀속시킨다.

‘이주지속성’과 ‘이등시민’이라는 특징으로 대변되는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한인들

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서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되고, 많은 한인들이 신앙을 통해 ‘차별화된 중간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대가 수렴된 종교 성원권을 채택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국교가 카톨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카톨릭 신분이 현지 사회의 대안적 성원권으로 역할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로 소속 의지를 가진 이들은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유입된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거주국 사회로의 통합과 비통합에 대한 양가적 기대를 바탕으로 원주민 사회로 소속과 거리두기의 동시 전략을 기획하게 된다. 이같은 기획 하에 한인 카톨릭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성원권을 인정하는 카톨릭의 열린 세계 안에서 ‘문화적 차이’를 표방하며 한인만을 위한 ‘달린 교회’의 형태로 구성·실천되는 한인 카톨릭공동체 천주교재아한국순교성인성당(Iglesia Católica Santos Martires Coreanos, 이하 ISC)의 성원권을 생산한다. 기실 ISC를 다른 카톨릭공동체와 차별화하는 ‘한인’이라는 범주는 언어와 같은 문화적 자질 이외에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양가적 기대, ‘먹고 살만한’ 특정 계층, 친족·사업관계에 기반한 권력구조와 질서 등 여러 층위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경계를 가름하는 문화적 수사와도 같다.

한편, ‘달린 교회’의 이중적 소속전략은 신앙인과 세속인으로서 한인 카톨릭의 경계를 상이하게 구성하고, ‘한인’이라는 경계에 담긴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는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장과 맞물리는 맥락에서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신앙적 기대와 어긋나며 신앙공동체로서 ISC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종족종교공동체 ISC가 신앙으로 ‘사회로서의 교회’를 품기 위해 모색해 온 공존방식은 사회와 신앙의 영역이 무분별하게 혼재된 국면을 초래했고, 신앙주체로서 개별 성원들의 입지는 ‘한인 카톨릭’으로 통합된 경계 안에 압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공동체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신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자기와는 다른 세속적 기대와 성향을 가진 성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로서 교회와의 사이에서 여러 차원의 갈등을 겪게 된다. 신실함의 영역인 ‘봉사’ 활동을 둘러싼 평판게임과 각 단체 내·외부의 정치적 경합, 사회로서 교회의 질서에 신앙과 개인이 소외되는 상황, 신앙이자 권력으로서 언어가 내재한 모순이 세대 간 갈등으로 부각되는 국면들은 ISC가 사실 단일하지 않은 기대들로 끊임없이 경합하는 사회적 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ISC의 한인 카톨릭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성원권을 유지하면서 ‘달

한 교회'에서 해소될 수 없는 신앙적 기대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앙주체와 세속적 타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앙실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인 카톨릭의 성원권을 재구성한다. 이들은 ISC에 교적(敎籍)을 두고 성원으로 역할하면서 필요에 따라 원주민교회를 오가는 방식, 한인 선교사라는 매개자를 통해 외부 카톨릭 사회와 연대하고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며 범카톨릭 세계시민이자 아르헨티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가하면 외부 카톨릭사회의 권위자와 전언자를 '달린 교회'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ISC의 종교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본당의날 의례가 기획되는데, 여기에서 ISC 성원들은 성찰하는 신앙주체이자 연회의 주인으로 연행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서 부여된 타자성을 극복해간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한인 카톨릭이 위치한 신앙과 세속의 경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달린 교회' 내부에서도 한인 카톨릭 성원권은 지속적으로 재구축됨으로써 이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보다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간다

본고의 후반부는 이처럼 소속의 정치전략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한인 카톨릭의 성원권이 온전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앙과 세속적 경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한인 카톨릭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문화적으로 수식되는 성원권으로 해석되며, 특정 집단을 차별화하는 자질과 문화적 수사로서 종족과 종교의 경계는 사실 수용과 배제의 일상 정치를 통해 구성된 역학의 한 형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카톨릭의 경계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주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되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이 곳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탈영역화된 주체성의 생산 과정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생성과 존재양상을 규명하는 데 주효한 지점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어: 한인 디아스포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주지속성, 문화적 시민권, 소속의 정치, 종교, 한인 카톨릭

- 학번: 2011-23135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1) 왜 디아스포라인가?	4
2) 문화적 시민권 : 이주민 종교와 소속의 정치	7
3) 한인 디아스포라와 종족종교공동체	11
3. 연구 대상 및 방법	13
 II.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의 특징	18
1. 이주지속성의 담지자 : 아르헨티나의 지역적 특성	18
1) 이주의 중간기착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월경의 용이함과 불법성 인식	18
2) 신뢰를 잃은 땅 아르헨티나 :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들	20
2. 차별화된 이등시민 ‘꼬르헨띠노(corgentino)’	22
1)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간상인, 꼬레아노	22
2) 이등교포의 귀향 :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다시 아르헨티나로	28
3.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종교성	33
1)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형성 : 고향의 상실과 중간성의 인정	33
2)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종교 : 한인 종교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36
 III. ‘우리’라는 경계의 정치 : 한인 카톨릭의 위치와 의미	41
1. ISC의 역사성과 자기위치의 모색	41
2. 한인 카톨릭, 그 성원됨의 의미와 실제	51
1) 달한 교회의 생산: 차별화의 논리와 소속의 정치	51
2) 한인 카톨릭 : 종교를 통한 이중적 소속 전략의 구현	58

IV. 사회와 신앙의 불안정한 결합 : 종족종교공동체의 신앙인	64
1. 정치적 일상으로 소환된 신앙	65
1) '봉사'를 둘러싼 평판게임 : 정치적 경합과 신실함의 차별화 전략	65
2) 교회 담장을 벗어난 신앙과 정치: 범카톨릭 세계에 재현된 일상의 경계	71
2. 신앙 자원 VS. 문화 자원 : 언어와 세대 간 권력관계	78
1) 언어 환경과 신앙 : 한인 2-3세의 신앙언어와 한국어	78
2) 신앙과 권력으로서의 언어 : 공식언어로서 한국어와 1세대 권위의 강화	84
3. 사회로서의 교회와 어긋난 신앙주체로서의 개인	88
1)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의해 소외되는 신앙과 개인	88
2) 사회와 신앙 사이에서 : 교회를 전유하는 방식의 세대차이	93
V. 디아스포라적 신앙실천을 통한 성원권의 재구성	100
1. 두 교회 다니기 : 사회적 성원권의 유지와 신앙적 갈증의 해소	100
1) 닫힌 교회, 열린 실천 : ISC와 원주민 교회 사이의 '이중생활'	100
2) 이중생활의 주요 원인과 실천 방식	102
2 '우리'라는 서사 : 매개자를 통한 성원권의 확장 and 실천	115
1) 라틴아메리카 한인 카톨릭 선교사와의 연대	115
2) 후원자로서의 신앙실천 : 한인 카톨릭 선교의 지원기지, ISC	118
3) '한인'과 '카톨릭'으로서 성과와 평판의 공유	123
3. 주교님 오시는 날 : 의례를 통한 외부 권위의 차용과 정당성의 확인	127
1) 본당의날 특별미사 : 분리된 세계 ISC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시간	128
2) 세속적 타자에서 신앙주체로 거듭나는 이등시민	132
VI. 결 론	138
참고문헌	144
Abstract	153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4년 8월,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영적 위로와 치유, 그리고 성찰의 순간들로 충만하던 그 때, 지구 반대편에서 교황의 행보 하나하나에 예의주시하며 함께 큰 삶의 위안을 받은 이들이 있었다. 교황의 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가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사목활동을 해왔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재아한국순교성인성당(Iglesia Católica Santos Martires Coreanos, 이하 ISC) 한인 카톨릭공동체 성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 교황님'이 주교로 재임하던 시절 한인 카톨릭공동체와 가졌던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모국을 방문하고 교황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와 이야기가 한국사회에 공유된 것은 ISC 성원들이 카톨릭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교황 방한을 전후로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회 모두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카톨릭 공동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었다. '우리 교황님' 뿐만 아니라 방한 기간 중 교황의 일정에 동행한 한 명의 한인 사제 역시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ISC 성원들이 '우리 문주교님'이라 부르는 문한림 유배날 주교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이민 1.5세대로, 현지 신학교 졸업 후 사제서품을 받고 아르헨티나 원주민¹⁾ 대상 사목활동을 해오면서 ISC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지 카톨릭계와의 중개자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재직 시절부터 오랜 기간 교황과 친분을 맺어왔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외국인 사제로는 이례적으로 주교직에 올랐다는 점에서 교황의 한국 방문을 맞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교황님'과 '우리 주교님',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ISC 성원들에게 가지는 함의는 중의적이다. 전자의 그것이 카톨릭으로서 아르헨티나 현지 사회로의 소속과

1) 아르헨티나 한인들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신이민자들과 구별되는 유럽계(혹은 유럽계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인들을 보통 원주민(native)이라고 지칭하기에, 연구자 역시 같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원주민이라는 범주는 유럽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아르헨티나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또는 이주민 사회)를 대별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범주는 상황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 이주민들까지 포괄하며 아르헨티나의 한인과 비한인 성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성원권(membership)에의 동일시라면, 후자의 그것은 카톨릭이지만 한인됨(Koreanness)으로서 차별화된 형제애 또는 동지의식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중층적인 경계들은 ISC가 영적 세계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성원권을 가지면서, 세속의 영역에서는 디아스포라로서 거주국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가는 초국가적 현실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이에 끼인(in-between)’ 존재로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초국가적 일상과 신앙 사이의 상관관계, 즉, 소속됨(belonging)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부터 수용과 배제의 전략들이 이들의 신앙생활에 투영되는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구는 먼저 아르헨티나의 한인 카톨릭이라는 ISC의 지역적·종교적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한 한인들은 애초에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경우가 많고, 역내 국가들 간 경제적·제도적 차원의 입경(入境)장벽 차이로 인해 높은 재이주율을 보인다. 이같은 이주노선에서 중간 또는 최종 기착지로 역할해 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여전히 개별 한인들은 높은 인구유동성을 보이는 반면, 전체 한인 사회 차원에서는 의류업을 중심으로 지난 50여년의 이민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괄목할만한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어왔다. 이주지속성과 중산층으로의 성장과 같은 한인 사회의 특성들을 배경으로 이 곳 한인들은 아르헨티나 원주민 사회로 낮은 통합의지를 보이는 한편, 그 어느 교민사회보다도 강한 종교색을 보이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포함, 약 3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한인사회에서 100여개에 가까운 한인 종교공동체의 수치가 이같은 상황을 대변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기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특징과 종교성 사이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종교생활을 다룬 기존 인류학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입지와 문화적응 수준이 거주국 사회로의 통합 정도와 비례하지 않고, 이들이 여전히 차별화된 종족공동체에 머물며 문화적·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Gans 1994; Leman 1999; Ebaugh and Chafetz 2000; Guest 2003; Hirschman 2004; Ecklund 2005; Levitt 2007; Park 2013).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의 특성 또한 이같은 연구들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 거주국 사회를 이주의 종착지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삶의 배경으로서 거주국과 모국사회를 비교적 고정된 구도로 다룬다는 점에서 디아스

포라적 정체성과 삶의 유동성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이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이주지속성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많은 아르헨티나 한인들에게 이주는 완료된 경험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며,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나은 생활 터전을 모색하려는 삶의 지향성이 원주민 사회로 통합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사회에 공유되는 이등시민과 이등교포로서의 경험은 이들 사이에서 '고향(home)의 상실과 부재'라는 공통의 정서를 낳는다. 여기에서 비롯된 대안적 소속집단과 성원권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한인 종교공동체로 수렴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한인이라는 종족 경계 이면의 이주지속성, 이등시민, 홈리스(homeless)와 같은 일련의 특질들이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개인들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 성원으로 포괄하고, 여기에서 강한 종교색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있어 유효하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종교가 어떻게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입지를 상쇄하며 대안적 성원권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성원권에 수렴된 사회적 기대와 경계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총인구의 약 76%가 로마카톨릭 신자인 아르헨티나에서 카톨릭은 특정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리듬²⁾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회시스템이자 문화적 토양으로서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인 카톨릭공동체가 여타의 종교공동체보다 현지에서 한인들의 사회적 위치나 문화적 특수성을 포착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ISC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카톨릭 조직과 운영체계 상, ISC가 원주민 교계와 직접 부딪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이들 스스로 지향하는 성원권의 속성과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연구 전반부가 한인 카톨릭의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논의라면, 후반부는 신앙공동체로서 ISC와 '신실함'으로 대변되는 성원들의 신앙적 기대에 주목하며 종족종교공동체의 성원권과 신앙실천 방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교회는 종족사회이자 신앙공동체로 역할하면서 성숙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 신앙적 기대들이 혼재된 종교적 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

2)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휴일은 상당 부분 카톨릭 전례력의 주요 축일과 맞물리며, 해당 기간에는 관공서와 학교, 일반 기업 및 상점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부활절 주간은 해당 주일 한 주 전체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중교통, 병원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적 기능이 중지된다.

연구는 한인 카톨릭공동체에서 사회와 신앙이 공존하며 종교의 틀을 빌어 공동체적 연행들로 통합되는 방식, 즉, 사회적 성원권과 신앙적 진정성을 모두 담보하는 한인 카톨릭 특유의 신앙실천 양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는 다음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에서 디아스포라의 위치는 어떤 특질들로 구성되는가? 여기에서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수렴된 사회적 기대들은 어떠한 형태의 성원권을 구성하는가? ISC에서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와 신앙적 이상은 어떤 방식의 신앙실천을 만들어내는가? 이 연구질문들을 토대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서 크게 '이주지속성'과 '이등시민'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한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위치를 가늠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 구성되는 성원권의 실체와 소속의 정치가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한인 카톨릭이라는 지점에서 ISC 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신앙적 기대들이 공존하거나 경합하는 양상들에 대해 살펴본다. 5장에서는 ISC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으로 온전한 성원권을 확보하면서 '달린 교회' 내에서 해소될 수 없는 신앙적 기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원들이 구사하는 신앙실천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왜 디아스포라인가?

온전한 성원권을 담보받지 못하는 이등시민의 위치, 그리고 이주지속성을 담지한 타자. 이 두 가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키워드이다. 연구자는 실제 이주 경험과는 별도로 고향의 상실 및 부재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자기인식과 감정 등 한인사회에서 공유되는 내적요인들에 주목하면서, 이를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접근한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고전적 해석은 통상 강제이주를 경험하고 모국에 대한 애착과 귀환욕구가 강하며 종족문화와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이주민 집단으로 이들을 대상화하였다(윤인진 2012; Safran 1991; Tölölyan 1991; Clifford 1994). 하지만 오늘날 과거와 달리 자발적·다차원적으로 국제이주가 진행되고 이주 이후의 삶 또한 동화 논리로 일반화할 수 없이 문화적·구조적으로 현지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고전 연구들의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기준보다는 의식 또는 심리상태, 실천양식 등에 기초하여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권숙인 2008; Grewell 1995; Vertovec 1997; Mudimbe and Engle 1999; Brubaker 2006; Ryang 2008). 랑(Ryang)은 디아스포라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며 전자의 고전적 연구에서 논의된 형태를 정치적고전모델(politico classical model)로, 후자를 사적현대모델(personal modern model)로 명명한다. 사적현대모델에서 디아스포라는 존재론적 불안정성(ontological insecurity)과 지속적인 정체성 위기에 기반하여 실제 또는 상상된 고향의 상실과의 연관 속에 설명되며, 이 같은 상실은 어떤 역사적 사건 또는 계속되는 동시대의 경험들로부터 인식된다(Ryang 2008:15). 여기에서 디아스포라적 자기인식은 '홈리스(homeless), 이탈된(displaced), 탈구된(dislocated) 주체'와 같은 존재론적 상태, 또는 개인의 심리상태 및 감정들로 상징된다(Ryang 2008).

그런가하면 디아스포라의 행위성에 주목한 논의들은 탈영역화된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과정적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생성과 존재양상을 조명한다. 버그(Berg)는 스페인에 정착한 쿠바인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동기가 상이한 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주 이후의 삶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고향과 소속됨에 대해 이해하고 서사하는 방식 또한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녀는 이로부터 디아스포라의 생성(generation)요인을 이탈(displacement)의 경험과 의식상태 자체에 고정시키기보다는 삶의 귀적과 이를 서사하는 지속적이며 변화하는 과정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삶의 터전을 이동해온 탈영역화된 주체들은 거주국이나 모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의 담론·제도들에 대해 상이한 반응들을 구성해내는데(Clifford 1994), 디아스포라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계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erg 2009: 285).

각각의 시공간에서 이등시민으로서 감내한 차별, 반복된 이주로 인한 생활환경과 관계의 지속적 변화로부터 고향의 상실과 부재라는 공통의 경험과 감정은 이주 세대와 배경이 각기 다양한 이들이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일련의 군집으로 귀속되는 강력한 매개기제로 작동한다. 한편, 디아스포라적 정체화는 이들이 한국 또는 타국의 한인들과의 연대를 상상하거나 반대로 차별화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이라는 집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서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하다. 그리고 그 집합은 종교공동체와 같은 물리적 시공간과 활동들을 통해 보다 실재적인 경계를 구성하며 성원권과 소속의 방식³⁾들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에서 모국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거주국 사회에서 차별화된 성원권을 구성하기 위해 다시 소환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디아스포라의 고전적 정의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기 고전적 정의와의 차이는 이주지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주민 사회에서 모국요인은 소속과 배제의 경계를 가름하기 위해 실제 귀환의지와는 상관없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아스포라 성원들은 사회적 타자로서 자신의 삶이 위치한 현장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기 존재와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속지점으로서 '고향'을 재현하기 위해 모국으로부터 주요한 자질과 상징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한다.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로, 다시 미국으로 재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Park 1999)와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역이주한 닛케진(권숙인 2004; Tsuda 2003)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실제 모국과 '고향'이 어긋난 지점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이 유효하게 적용됨을 잘 보여준다. 재이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유년기를 보낸 지점에서 경험한 모국은 실제 현재의 한국 및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재현된 것이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고향'은 모국과 거주국의 다양한 자질들이 혼합된 교민(이민)사회 내부에만 존재하는 세계이자, 디아스포라의 위치⁴⁾ 자체이기도 하다.

3) 레빗과 쉐일러(Levitt and Schiller)는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행동양식이 구축되고 재현되는 과정이 초국적 장 속에서 각 개인의 '존재의 방식(way of being)'과 '소속의 방식(way of belonging)'을 통해 차별적으로 구성·실천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존재의 방식'이란 각 개인이 연계된 실제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을 말하며, '소속의 방식'은 의식적으로 특정 집단과의 연결됨을 나타내려는 정체성의 표현과 연행으로 풀이된다. 개개인의 존재 자체에는 문화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체화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나 소속됨의 실천에 있어서는 행위주체 스스로가 지향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이 수반된다(Levitt and Schiller 2004).

4) 디아스포라의 위치(place of diaspora)는 문화적 가변성, 역사성, 다양한 이질적 전통들로 표상되는 장소들의 복합적 연망으로,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변화하는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사회적 공간이자 정체성이기도 하다(Werbner 2002; 강희영 2012). 사회적 공간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위치는 정체화(identification)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 간의 교섭을 통해 일련의 사회적 기대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벗어나는 순간, 디아스포라 성원들이 온전한 성원됨을 느끼는 ‘고향’은 한국에도, 다른 교민사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주경로와 일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질들의 집합으로서 이 상향의 ‘고향’은 지속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민사회에 재현된다.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종교기제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카톨릭공동체라는 실제의 소속과 연대로 현재의 삶 위에 구현된다.

2) 문화적 시민권: 이주민 종교와 소속의 정치

종교는 이주민들이 삶의 변화과정 속에서 자기 연속성과 자존감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배치하고 범주화하는 도구인 동시에, 이들이 경험하는 상실의 감정을 극복하는 내적 지침과 위안을 제공한다(Leman 1998; Guest 2003; Dumont 2003). 또한 이주민 종교공동체는 성원들이 대안적인 협력 네트워크와 정체성 및 그들의 신념과 윤리에 가치를 둔 의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역할하는데, 이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여러 층위의 일상적 기대나 목표와의 교섭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이나 문화, 이데올로기와 같은 요소들이 통합된 양상으로 구성된다(Stewart and Shaw 1994; Guest 2003).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디아스포라적 삶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종교적 보편성뿐만 아니라 실천의 공동체로서 종교가 담지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이다. 종교는 세속적 영역의 경계들과 갈등없이 온전한 소속됨을 구할 수 있는 문화적 논리이자 실천의 장이면서, 종교적 기치 하에 여타의 문화적·정치경제적 이해들로 얽혀진 집단과 개인의 차별화 전략들이 은신할 수 있는 신비화의 가면이기도 하다.

먼저 아르헨티나 한인 카톨릭과 같은 특정 디아스포라 종교공동체에서 신앙 이외에 소속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풀어보면, (실제 또는 상상의)성원권과 사회적 위

초국가적 특질들이 수렴되거나 재조정되는 공동체적 장으로 역할한다. 정체성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위치 또한 단순히 개별 디아스포라 주체들의 분절되고 혼종적인 인식의 반영만이 아닌,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적 형태들(form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Werbner 2002: 121)

치, 편안함 내지 동질감과 같은 감정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삶의 궤적과 연망, 현재 위치한 민족국가의 경계와 제도, 일상생활의 관계망과 상호작용이 집중된 종족집단 등의 영역에 관계된다. 후자의 경우 문화적 자질, 생물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입지 등 수용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이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들과 관계된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종교공동체는 제도적·정치적 경계와 문화적·관념적 경계들이 복합된 형태로 소속의 경계를 구성하고, 공동체의 세속적 경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영성과 신앙실천 양식에 투영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카톨릭으로 통합된 실제의 성원권으로 구현된다.

연구대상으로서 한인 카톨릭의 존재양상을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이 신앙을 통해 구현하는 소속의 정치⁵⁾로서 실천양상은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화적 시민권은 민족국가(nation-state) 성원의 법적 지위 및 이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의무를 지칭해온 제한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초국가적 삶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현지의 사회 맥락과 더불어 자신들의 경험과 의미체계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며 실천하는 성원권을 의미한다(로살도 2000; Rosaldo 1997). 시민권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불균등한 권리와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는 구조적 불평등과 권력관계가 배치된 여러 층위의 사회영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성원권을 의미하기도 한다(Siu 2001: 9). 따라서 문화적 시민권의 개념에서 ‘문화적’이란 수식어는 사실 시민권 개념에 해당하는 법·제도적 장치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문화적·관념적·감정적 경계와 실천을 포괄하는 수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인류학적 논의들은 레나토 로잘도(Renato Rosaldo)를 위시한 라티노문화연구그룹(Latino Cultural Studies Working Group)과 아이화 옹(Aihwa Ong)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구성원 각자의 사회적 입지에 따라 인식하고 경험하는 시민권의 속성이 균질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소수종족과 이주민 등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타자화된 이들이 수용과 배제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어떠한 방식

5) 소속의 정치(the politics of belonging)는 특정 집단이 특정한 소속됨의 방식들을 구성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적 기획들로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이들은 이같은 기획들 자체로부터 구성되기도 한다(Nira 2006: 197).

으로 소속됨을 구성하고 연행하는지에 주목해왔다.

먼저, 로잘도가 제안하는 문화적 시민권은 주류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또는 사회에 소속될 권리와 함께, 문화적 차이로부터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Rosaldo 1994). 로잘도 등은 인종, 종족 등의 기준으로부터 이등시민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온 라티노들의 온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⁶⁾에 대한 주장과 소속의 감각에 대하여 다루어 왔다. 로잘도와 라티노문화연구그룹의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류 사회에 대항하는 기제로서 일종의 투쟁과 같은 성격으로 이 개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 사회에 소속될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이중의 과정은 이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전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다(Rosaldo 1994; Flores and Benmayor 1997).

이에 반해 옹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유리한 사회경제적 입지를 점하려는 이주민들의 교섭과정에 좀 더 주목하며, '바람직한 시민'이라는 주체 만들기의 동학을 두고 나타나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국가(제도권) 간의 쌍방향적 관계와 실천을 다루고 있다. 옹이 제시하는 문화적 시민권은 권력주체와 시민 사이의 상보적인 동시에 경합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의 범주와 영역을 가름하는 지배적인 방식과의 교섭을 통해 생산되는 문화적 실천과 신념들을 지칭한다(Ong 1996: 738). 제도권은 출신 국가, 인종, 계급, 젠더별로 이주민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으로서 이들의 가치를 가늠하고, 미국사회의 오랜 인종 이데올로기를 차용하여 자본가와 엘리트 등 소위 '모범 소수자(model minority)'라고 불리는 이들은 '백인화(whitening)'하고, 정치적·경제적 '난민'들은 '흑인화(blackening)'하는 식으로 종족화(ethnicization)된 틀을 씌운다. 종족 범주에 따라 이주민에게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기회는 차등화되고 이들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담론 역시 차별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이주민은 로잘도 등의 연구에서처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국가와 제도권의 견고한 질서체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종족·인종의 특질을 더 강조하

6) 문화적시민권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존엄, 번영, 안녕(well-being)에 대한 개념들을 결정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Rosaldo 1994). 온전한 시민권(full citizenship)으로서 일등시민권(first-class citizenship)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등 또는 이등(second-class) 시민권은 관계된 집단에서 평등과 안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방식이며,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 들여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에서 그 간극을 경험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ibid:410).

거나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시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간다. 따라서 옹의 문화적 시민권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제도권에 예속되기도 하는 이중의 주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ibid: 738),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아르헨티나 이주를 시작으로 빈민촌 거주민에서 '중간상인 소수자(middlemen minority)'⁷⁾로, 다시 '모범 소수자'로의 성장과정을 거치오면서 수용과 배제의 역학에 기반한 문화적 시민권의 제 양상을 다각적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ISC의 경우는 카톨릭이라는 공고한 시스템 내에서 성원들이 어떻게 문화적 차이에 기반하여 종족종교공동체를 구성해왔고, 변화하는 한인사회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종교적·사회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실천 전략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 의의를 더한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유럽계 백인이 주류를 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원주민 사회 또한 미국과 유사한 인종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문화적 시민권 개념과 논의는 본 연구에 유용한 해석틀을 제시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문명화된 백인국가'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어가는 와중에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어 가면서 다문화 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Baustia and Vom Hau 2014; Ko 2014). 토착민(indigenous people),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 및 아시아계 이주민 등 백인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제도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인종·국가·문화·계층 등 사회 구성원의 범주와 층위가 다양해지자, 최근에는 서로의 차이와 소속될 권리에 대한 주장과 전략 또한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류업과 소매업(슈퍼마켓) 사업자로서 중산층이 많은 한국과 중국계 이주민들은 '한국의날(el día de Corea)'이나 차이나타운(barrio chino)처럼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차이'를 강조하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며 피고용인 저소득층이 많은 인근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경우 노동자의 권리, 생존권, 인권 등의 이슈를 통해 계급 문제와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의 인정과 성원권의 확보라는 이중의 목표는 같지만, 이처럼 집단별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전략과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

7) 중개인 또는 중간상인 소수자(Middlemen minorities)는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소유주와 임대자, 엘리트와 대중의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이주민들로, 처음에는 국가 엘리트들로부터 경제적 기회에 대한 약속을 통해 외부의 정착민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양산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초기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 등으로 환영받던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서 반감을 얻는 대상으로 비춰지며 갈등을 경험한다(Bonacich 1973)

난다.

위 상황을 보면, 각 집단이 실천하는 성원권의 방식에서 차이를 이야기하는 ‘문화적’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 또한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것 외에 다른 차이를 가시화시키지 않는 아시아계 이주민, 인권과 같이 특정 국가나 종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통해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여타의 이주민들. 이들이 보이는 상이한 양상은 어떤 집단이 표명하는 문화적 차이 이면에는 내집단과 외부사회, 집단과 개인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교섭과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실 로잘도와 옹의 개념 모두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면서 해당 사회에 소속됨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중의 모순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내집단과 외부사회 사이에서 소속 범주와 성원권의 경계를 가름하기 위해 나타나는 수용과 배제의 역학변화를 이야기한다. 흔히 특정 집단의 문화적 수사로 차용되는 종족(ethnicity)의 실체 또한 수용과 배제의 일상 정치를 통해 구성된 역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Ong 1996: 741). 결국 문화적 차이를 가름하는 기준과 이에 의해 수립된 성원권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이를 둘러싼 질서와 자질들 또한 공동체 내·외부 사회의 관계와 환경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타협·조정되는 것이다. 한인 카톨릭이라는 특정 집단에서 ‘한인’이란 수식어 역시 출신지역·문화·이데올로기·젠더·계층·세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를 품고 있으며, 최근 그 기대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인’의 의미와 역할 또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며 재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성원들의 다양한 기대는 카톨릭이라는 영적 세계 및 종교적 신분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모와 갈등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한인 카톨릭’만의 방식으로 타협된 소속의 경계와 성원권의 실천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3) 한인 디아스포라와 종족종교공동체

이주민 종교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종족공동체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현지 적응과 종족문화의 전수 및 재생산이라는 기능적 측면이나, 권력과 결부된 내부 집단 간의 갈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Park 1989; Min 1992; Bankston

and Zhou 1995; Yang 2000; Ebaugh and Chafetz 2000; Hirschman 2004; Foner and Alba 2008). 하지만 이들 연구는 해당 공동체를 차별화하는 종족 범주의 실체에 대한 탐색없이 이를 선형적이며 단일한 경계와 특질들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인’이라는 종족범주를 일련의 ‘문화적’ 수사로 보고,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카톨릭으로 성원권을 획득하고 그 경계를 가름해 온 역사적·정치적 과정과 실천을 따라가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한인’의 수식어에 내재된 사회적 기대와 경험, 인식이 무엇인지 밝혀냄으로써 성원권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종족종교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국 내 한인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인 개신교회에서 ‘한인’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와 성원권의 실천양상을 분석한 몇몇 논문들에 주목해본다.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인종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입지나 문화적응과 관계없이 이민 2-3세대에서도 한인교회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Chai 1998; Chong 1998; Kim 2004; Park 2011; Park 2013; Ecklund 2005). 정(Chong)은 ‘한인’이라는 차별적 기준이 종족의 문화적 자질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계 엘리트들이 유사한 사회경제적 계층과의 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종족종교 성원권의 경계로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사회적 기대를 대변하는 수사임을 지적하고 있다(Chong 1998). 종교 안에서 ‘문화적’ 차이를 통해 구성된 단일종족 성원권은 신앙(믿음)과의 결합을 통해 정당화·구체화되는데, 근면성, 보수성과 같이 한인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대변되는 자질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윤리로 해석됨으로써 성원권의 배타적 경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채택된다(Park 1989; Chai 1998; Chong 1998; Ecklund 2005). 배타적으로 종족 경계를 설정하는 이들은 공동체 외부 사회에서 타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 차원의 신앙실천으로써 성원권의 경계를 가시화하기도 한다. 에클룬드(Ecklund 2005)의 연구에서 교회는 한인 2세들이 시민적 가치와 경계를 체화하는 장으로 역할하는데, 한인교회 성원들은 경제적 성취를 기독교적 가치의 핵심으로 해석하며 기독교적 수사를 통해 모범 소수자로서 한인의 이미지와 경계를 종교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방식으로 차별화시킨다. 여기에서 한인과 여타 소수종족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인종적 차이는 종교적·문화적 차이와 중첩되어 ‘우리’와 ‘그들’로 가늠되는 거리를 낳게 된다. 그리고 신앙을 실천하는 봉사현장에서도 계층적·인종적 타자와의 관계는 ‘신앙으로 맺어진 봉사의 공

여자와 수혜자 관계' 구도에서 '모범 소수자'로서 '모범적 기독교인'으로 전제된 한인 교회 성원권의 경계를 재생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인 카톨릭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문화적으로 수식되는 성원권으로 다루면서 상기 사례처럼 이것이 신앙의 논리로서 정당화되고 신앙실천의 형식으로 연행되는 현장들에 주목한다. ISC의 성원권 구성과 실천에 관여되는 사회적·신앙적 기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성원권의 층위를 다각화하여 ISC와 외부사회(아르헨티나 원주민 사회, 원주민 카톨릭 사회), 영적봉사단체와 물리적 봉사단체, 신심활동단체와 여타의 ISC 성원들 사이의 상호 관계들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로써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와 신앙실천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을 단편적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로 다루기보다는, 여러 층위에서 쌍방향적 이루어지는 상호 역학의 관계로 조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재아한국순교성인성당(Ia Iglesia Católica Santos Martires Coreanos, ISC)⁸⁾ 구성원과 관련 활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공동체는 1960년대 말 '백구(109)'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레스(Flores) 지구의 한인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1970년 정식 설립과 함께 2015년 현재까지 한인 디아스포라만을 위한 종교공동체이자 종족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재직인원은 2,700여명이나, 주일미사 및 공동체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8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주 한인의 약 80%는 아베샤네다(Avellaneda), 온세(Once)의 의류 도·소매업 상업지구와 백구 한인촌에서 의류 관련

8) 본 논문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역적 특수성이 한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ISC가 이곳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한인 카톨릭 공동체라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ISC를 비롯해 주요 지역명은 실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외에 ISC의 내부 단체명, 면담자 및 관찰대상자 등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한다.

업종에 종사하는 중산층들이며 이들의 거주지와 여타의 생활환경 또한 동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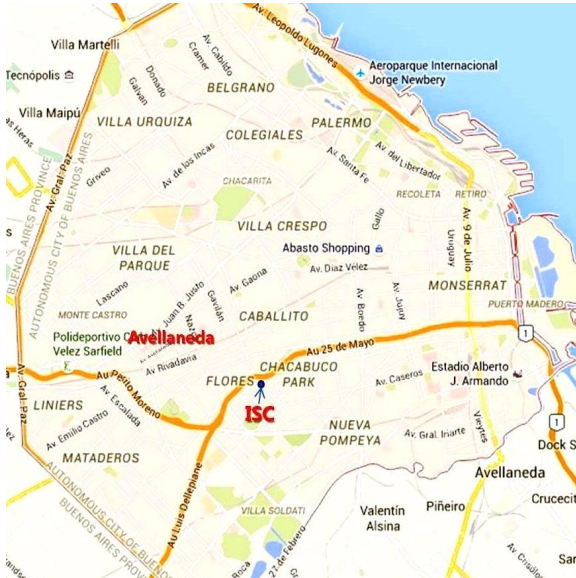


그림1)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지도: 플로레스(Flores) 구역에서 ISC가 위치한 곳을 주변으로 한인 집성촌(백구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베사네다(Avellaneda) 대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엔 한인 의류상가들이 밀집해있다.



그림 2) ISC 전경

아르헨티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은 1965년 정식으로 제1차 영농이민이 이루어지면서 지속된 50여년의 역사로 기록된다. 외교부의 통계⁹⁾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아르헨티나 전체 22,730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21,474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현지의 한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이들까지 더한다면 약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주 역사가 50여년에 지나지 않는 현재까지 한인 사회의 주축 성원들은 보통 이주 1세대와 1.5세대로 구성되며, 이는 종족 언어와 문화 보존성향이 강하게 유지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의류 샵일과 하청업 등을 통해 백구의 한인촌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해갔다, 1980년대 들어 동 사업군에서의 성장과 함께 1985년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투자협정 (Acta de procedimiento para el ingreso de inmigrantes coreanos a la

9)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2015),”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enu=m_10_40 (2016. 3. 15. 접속)

Argentina)이 체결되어 1989년까지 ‘2만불 투자이민’¹⁰⁾을 통해 이전보다 고학력의 중산층 배경과 자본력을 가진 투자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지 한인들은 중산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이교범 1992; Mera 2003). 현재도 아르헨티나 한인의 약 70-80%가 아베사네다, 온세 등 의류 도·소매 전문 상업지구와 백구 한인촌을 중심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아베사네다 총 3,643개 관련 업체 중 1,206개 업체를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 점유율 약 33%, 중심가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등 동종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주민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다¹¹⁾. 이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사회에서 코레아노(coreano, 한인)의 입지와 이미지는 보통 의류업에 종사하며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소수 종족으로 그려지고 있다.

ISC 성원들의 삶에서 한인이라는 종족적 공통분모는 모국의 언어와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위치들이 통합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이며, 이는 종교적 일상에서도 공유되는 공동체적 특질들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한인 이주 역사가 50여년에 지나지 않는 만큼 현재까지 이주 1-1.5세대들은 ISC 운영과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 등 일상영역에서 역시 한인 사회의 주축성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연구자는 종교적이며 종족적인 ISC의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들의 수립·유통에 이주 1-1.5세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세대변화에 따른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등에의 변화요구 맥락에 대해서는 현지 출생의 2, 3세대들에 대한 관찰과 면담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주 1-1.5세대들은 아르헨티나에 머물기까지 여러 차례 이주를 경험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보통 50대 이상의 연령층임에도 스스로의 선택이나 자녀들의 거주상황에 따라 아르헨티나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의 재이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지 한인사회의 이주지속성을 이해하는 데 주

10) 1983년 아르헨티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한적으로 이민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외 투자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고,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을 정착지로 한 정착계획 타당성 승인으로 이주가 허가가 떨어지면 이주 희망자가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미화 2만달러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투자이민 받아들였다. 따라서 투자이민자들은 초창기 이민과 달리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로, 한국에서 사업 또는 취업에 실패했거나 자녀의 특례입학을 위한 조기유학, 미국이주를 위한 임시 체류 등의 이유로 이주한 이들이 다수를 이뤘다(손정수·장영철 2005: 73). 동 협정의 발효를 전후로 1984년과 1986년 사이 약 2만명의 한국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다(Park 2014: 23)

11) CAEMCA(재아르헨티나한인상인연합회) 2011년 비공식 통계자료 참조

요한 정보원으로 역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아르헨티나 현지조사는 2013년 8월 카톨릭 예비자 교리과정 참석을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는 ISC 주일미사 및 주요행사, 봉사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참여관찰과 ISC 성원들의 집과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단체 수준의 참여관찰은 주로 물리적(노동) 봉사단체인 BB회(전 연령대 남녀, 물품 모집전달 등 공개 활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영적 봉사단체인 AA회(전 연령대 남녀, 공개비공개 영성 강화 활동), DD회(20-30대 여성, 공개비공개 신앙봉사 활동), EE회(30-40대 남녀, 비공개 기도봉사 활동)의 활동에서도 비정기적으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ISC 사제 2명 외에 총 22명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연령대는 60-70대 4명, 50대 7명, 40대 4명, 30대 4명, 20대 3명으로, 이 중 3명(20대 2명, 4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민1-1.5세대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별도로 재이주경험자를 선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 총 22명 중 17명은 한국, 미국, 브라질 등지로의 재이주 경험이 있고 3명은 재이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주민이 종교에의 입문부터 내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사회적·종교적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간접 체험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현지에 체류하였다. 입문과정에서부터 신참자가 위치하고 경험하는 물리적·심리적 경계들과 개인의 내적(심리적·감정적) 요인들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내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직접 종교적 '거듭남(born-again)'의 당사자로서 예비자 교리과정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아 카톨릭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2-4시간씩 교리수업과 주일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비조사 기간을 가졌다. 당시 연구자 스스로가 기존 신자들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예비자라는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반면, 예비자라는 신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내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에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였다. 11월부터는 세례성사를 통해 카톨릭공동체 성원이 되는 과정의 '문턱(limen)'을 넘었기에, 연구자로서는 내부자적 시선을 확보하고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진정한 내부자로 인정받기 위해 ISC 내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예비자과정을 마친 신참자들에

게 담당 수녀가 권유한대로 물리적(노동) 봉사단체인 BB회에 들어가 2014년 7월까지 월말 김치봉사, 주일식사 봉사, 구호품 포장 및 전달, 주일 성물판매 등의 공식 활동과 함께 회원들 간의 친목활동 및 경조사 품앗이 같은 사적 활동들에도 참석하였다. 카톨릭공동체에서 봉사(종교적 실천)의 두 축이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AA회, DD회, EE회 등 영적봉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심단체의 활동들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며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ISC 홍보부의 준회원 자격으로 사진촬영을 지원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활동에 참여하였고, 한글학교에서는 2개월 간 수업이 있는 토요일마다 교사휴게실에 머물면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일일교사 및 수업보조로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외부활동으로는 약 5주 가량 HH 시립병원 사목 수녀들을 도와 환자들의 점심배식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현지조사가 종료된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한국에서 머물면서 ISC의 온라인 카페와 한국을 방문한 성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II.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의 특징

1. 이주지속성의 담지자: 아르헨티나의 지역적 특성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는 한인들은 현지 사회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키우고 강한 귀속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및 주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한인들의 재이주 또는 역이주가 빈번했고, 아르헨티나의 제반 여건들이 지속적 이동을 비교적 쉽게 만들었으며, 현재까지도 재이주의 가능성이 일상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해 온 한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두 북미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이주노선이 형성된다(Mera 2003). 초국가적 이주를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단선적 이주회로의 관점에서 본다면(Levitt and Schiller 2004),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이동하는 한인들의 이주양상도 기존 전제들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한인 중 다수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미국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에서도 빈번하게 재이주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이주회로 또한 여러 방향으로 다선화되어 나타난다. 미국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 내 국가들 간 제도적·경제적 차원의 입경(入境)장벽 차이는 이같이 재이주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동하는데, 여기에서 아르헨티나, 특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주의 중간 또는 최종 기착지로 역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이주경로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이주에 대한 그들 나름의 특별한 인식과 감각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이주의 중간기착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월경의 용이함과 불법성 인식

역사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이주가 지속된 맥락을 살펴보면, 1962년 한국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이주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면서 1960년대 초반부터 라틴아메리카로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아르헨티나에 앞서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 먼저

초청장 이민이 진행되었다. 1965년 아르헨티나 정식 이민사의 시작 이전부터 파라과이와 볼리비아행 이주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를 거쳐야 했기에 중도하차하여 이곳에 정착하거나, 이후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 월경하여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경우 또한 많았다(전경수 1994). 파라과이나 볼리비아 초기 이주자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현지 사회에 실망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재이주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민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아르헨티나와 일찍이 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되어온 브라질로 초기 파라과이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다(이교범 1992). 또한 버스로 국가 간 육로이동이 가능하며,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언어적으로 소통에 장벽이 없다는 점 또한 이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경을 넘는 것이 한국에서 인근 국가나 미국 등지로의 입경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는 입국비자 면제나 한쪽의 영주권이 다른 나라의 입국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전통적인 외교적 관행이 있어 왔다(전경수 1994). 따라서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의 최초 입경과 달리 현지에서 국가 간 재이주는 불법일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들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불법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면령이 발효되고 있다. 불법적 월경에 대한 유연한 인식과 관행은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도 일반화되어있다. ISC 내에서도 많은 경우 파라과이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한 후 보다 나은 거주 및 사업 환경을 위해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아르헨티나로 재이주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사회·경제 위기에 브라질, 멕시코, 미국 등지로 넘어가 단기간 체류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재정착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최영훈 루피노, 40대, 의류업, 2010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4년 카톨릭입문]

- **최영훈:** 전 원래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그렇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업할만한 지 여기저기 가보면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멕시코나 미국으로 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영주권)사면령 내렸잖아요. 우리 집도 그 절차 중이 예요. 여기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많지. 이번에 사면령도 한 2천명 허가했는데, 신청한 게 한 천 명? 그게 한국에서 무범죄증명 못해서 그렇다는데... 근데 여기서 사는 데 별 문제 없으니까, 한국이나 어디 외국 나갈 것만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해도 한국 갈 때 물타(multa, 벌금) 몇 백(페소) 물어봐야 얼마 안하니, 복불복이라고는 해도 들어올 때도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최영훈의 설명과 같이 근래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다수의 한인들이 이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생활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응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자격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상생활에서 이같은 불법성이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주민 사회에서의 불법성을 법적 자격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조건이나 주관적·감각적으로 체험되는 총체적 경험으로 해석할 때(강윤희 2012; De Genova 2002; Willen 2007), 불법성에 대해 유연한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은 법적 자격의 구성차원보다도 문제 발생 시 해결의 용이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체류 적발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는 타 국가를 항공편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데, 경험자들은 몇 백 페소(한화로 몇 만원 가량)면 영주권 절차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노력보다도 간편하게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며, 아르헨티나로 재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영주권 사면령에 대한 기대 역시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들이 불법성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장기 거주 시, 자녀 교육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불법체류 지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나, 불법성에 대해 공유되는 유연한 법적·사회적 인식과 경험은 이들이 아르헨티나로 처음 진입하거나 재진입을 염두에 두고 미국, 브라질 등으로 이탈하는 데 있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유리한 활동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일조해오고 있다. 제도적 신분으로서의 영주권은 이들에게 거주국 사회로의 소속감을 부여하기보다는, '있으면 편리한', '사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차원의 보증서이다.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가진 현지 태생의 한인 2-3세의 경우에도 성인이 되어 국적을 선택할 시점에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한국 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이들의 결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이주나 출장, 여행과 같은 지속적 이동성에 대한 고려이다.

2) 신뢰를 잃은 땅 아르헨티나: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회를 특징지우는 이주지속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아르헨티나 내부의 불안정한 경제정세에서도 기인한다. 1970-80년대 아르헨티나는 군사

독재, 과도한 외채와 높은 인플레이션, 노동자 파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1990년대 채택한 신자유주의 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2001년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과 함께 국가적 파산상태에 접어들었다(서성철 2005). 한인들 역시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피해를 면하지 못하면서, 2000년을 전후로 미국 및 역내국가로의 대규모 재이주, 또는 한국으로의 역이주 현상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2001년 아르헨티나 부도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을 고민했지, 사실 아르헨티나 이민자체가 미국으로 가려던 건데, 해외에 많이 다녀보면 아무래도 여기 생활과 비교가 되니까 다시 (이민을)고민하게 돼. 그때 (한인들이)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만 명 이상이 나간... 미국 취업이민 비용이 1만 5천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 먹고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 이민비자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영주권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모든 돈이 여기 은행에 묶이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몇 년 재판해서 결국 그 돈을 회수는 했지만, 원금보전은 못했어. 교민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했지. 은행 문 닫아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소송하면서 몇 년씩 고생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 금융권이나 정부를 못 믿고 달러를 집 금고에 보관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금전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나 상실감? 이런 게 교민사회에 컸어. 국가부도도 그렇고, 한인들 안에서도 이런 경험이 이민 와 살면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

2004년 무렵부터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오거나 새로이 이주해오는 한인들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1년 당시 국가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탈한 한국인과 기업들에 대한 원주민 사회와 현지 언론의 냉랭한 시선은 아르헨티나 사회 성원됨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한국인들은 기회주의자이며, 돈만 아는 민족'이라는 오명과 원주민 사회의 배타적 태도는 한인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손정수·장영철 2005). 그런데 한인사회에 대한 현지의 타자화 양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인들 스스로 가지는 소속감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영도의 증언처럼 한인사회의 내부 분위기 또한 이미 전과 같지 않았다. 2001년 당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계좌 동결, 한국 xx은행 지부 부도, 대규모 교민 이탈 등의 사건은 한인들에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이로 인해 한인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재이주 가능성을 염두

에 두며 유동적 삶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ISC 성원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의 사건들을 전후로 하여 미국, 한국, 브라질 등지로 재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다. 또한 박영도처럼 타 국가로의 재이주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르헨티나를 더 이상 정주지로 여기지 않고 여행이나 사업 관련 방문 기회를 통해 다른 국가로의 이주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왔던 경험들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파산의 후유증은 이후에도 잦은 경기불안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2014년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국 13년 만에 다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다. 최근까지 이어진 경기불안과 이에 따른 고용, 노사갈등, 치안 등의 사회문제들은 이민 1-1.5세대뿐만 아니라 친아르헨티나 정서가 강한 현지 출생의 이후 세대들도 한국, 미국, 인근 국가 등지로 재이주를 감행하거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끔 하고 있다. 본 이민 세대인 부모는 아르헨티나에, 현지 태생의 자녀들은 한국, 미국 등지에 이주하여 분산 거주하는 양상도 확산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에게서 공유되는 유동적 삶의 양상은 이민 5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상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이주지속성에 대한 요인을 외부 환경과 제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면, 다음 단락에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들의 내적 동기와 차별화된 정체성의 차원에서 접근해보기로 한다.

2. 차별화된 이등시민 ‘꼬르헨띠노(corgentino)’

1)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간상인, 꼬레아노

‘성당 사람들 중 열의 아홉은 의류업계 종사자’라는 주임사제의 말처럼, 해당 업계

를 중심으로 축적된 한인사회의 역사와 사건들, 그리고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ISC의 역사적 부침은 이들의 정체성과 삶의 전략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인들이 의류업으로 성공하게 된 데는 한국식의 장시간 노동, 근면성, 전 가족 노동참여와 같은 요인 외에도, 수입이 제한적인 아르헨티나에서 기계, 원단, 완제품 등을 한국 또는 중국 등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탓도 있었다. 그렇다보니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는 습관이나 사업패턴이 비슷한 한인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한인사회 내에서 고품질 제품을 저가로 대량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점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판매 체계가 형성되면서 교민 간 상생구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한인회 이외에 재아한인상공인회(1984년), 아베샤네다 상조회(1992년) 등이 조직되면서 한인들 간 공조·협력체제는 보다 공고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사회는 생업과 일상생활의 관계망들이 총망라된 공동 운명체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나갔다.

근래에는 현지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개선됨과 동시에 한국의 경제력과 대외 인지도가 제고됨에 따라 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르헨티나 이민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은 2013년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특별사면령¹²⁾을 발효하였다. 최근에는 양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 교류협력 사업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제나 K-POP 콘서트 개최와 같은 문화교류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 상황은 당당한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이자 존중받는 소수 종족(이주민 집단)으로서 한인 사회의 자신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인들의 성공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유럽계 백인들이 사회 주류를 점해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계급화된 종족’과 같은 복합된

12) 2014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은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인사회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영주권 미취득 한인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조처는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령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24일 이민청 내부규정을 수정하여 고용증명서 없이 입국증명서와 무범죄증명서 제출만으로 영주권 미취득 한인들에게 1년 단기 영주권을 3회 부여한 후 영주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4월 29일 해당 조치를 시행하였다.

- 재아르헨티나한인회,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www.korar.org/index.php?mid=notice&page=3&document_srl=48080 (2015. 2. 13 접속)

형태로 집단적 차별이 존재해 왔고, 한인들 역시 이같은 차별적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인들은 '성공한 중간상인'이라는 중개자의 위치로 인해 국가의 위기마다 기득권과 저소득 계층 모두에게서 적대시되며 종종 여론몰이를 위한 희생양으로 노출되어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종·종족적 질서는 아프리카계나 라티노라는 집합적 기준보다 차별화된 국민국가의 경계를 따라 구조화되어 왔다. 14세기부터 유럽계 백인 이주민들이 토착민의 자리를 대신해 온 아르헨티나는 20세기를 전후로 유럽뿐만 아니라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산업구조의 하층 노동수요를 충당하였다(Benencia 2012). 하지만 인접국 이민자들은 페루아노(peruano, 페루인), 볼리비아노(boliviano, 볼리비아인), 파라과아쇼(paraguayo, 파라과이인) 등 출신국가로부터 신분과 성격이나 성향과 같은 특질들이 상징적으로 규정되어 범주화되었으며, 경기불안 등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사회 안정에 위협적인 존재로 주목되었다(Sabarots 2002; Matsumoto 2007). 각종 언론매체들은 공공질서, 고용, 공중위생, 치안 등 사회문제 제반과 연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담론들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하였다. 일상으로 연장되는 차별과 배제의 수사에서는 국민국가와 인종 또는 종족의 경계가 교차되며 이주민들의 범주를 보다 세밀히 구별한다.

[강혜숙 테레사, 60대, 의류업, 1989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85년 카톨릭입문]

- 강혜숙: 우리집도 아직 두 명 (소송에)걸려있어. 둘 다 페루아노인데 하나는 옷 빼들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잘랐는데도, 뭘 잘했다고... 이 나라는 하여튼 없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데라니까. 볼리비아 애들은 그래도 좀 나운데...
- 연구자: 일하는 사람들 성격같은 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 강혜숙: 그럼. 원주민들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 사장 밑에서 일 안하려고 하고, 일하기는 볼리비아 애들이... 착해. 약삭빠른 것도 있지만 성실하고 머리도 좋아서 제일 낫지. 그런데 페루 애들은 게으르고 농땡이 잘치고, 손버릇 안좋은 애들 많아. 소매 치기도 많고, 여기서는 원주민들도 페루아노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 연구자: 그런데 저는 봐도 누가 어디 사람인지 구분이 안가던데...
- 강혜숙: 아무래도 페루애들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다르게 생겼지. 원주민들은 거의 백인이잖아. 볼리비아나 파라과아쇼는 그 중간 정도?

이처럼 현재 의류업에 종사중인 ISC의 성원들 또한 '태만하고 도벽이 있는 페루아

노', '약삭빠르지만 성실하고 머리 좋은 볼리비아노'라는 식으로 자신의 일상경험을 통해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이 이민자들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공유한다. 호칭은 나라별로 구분되며 일련의 국가적 차이를 전제하는 듯하지만, 그 차이가 사회경제적 성취와 연결된다거나 피부색으로 출신국가를 판별하는 가시적 기준이 존재하는 현실은 인종, 종족, 계급 차원의 영역들이 국민국가의 경계와 수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 아르헨티나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관계구도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로 대별되면서 원주민 일방의 차별로 서사된다. 하지만 한국 사장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아르헨티나 원주민의 경우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즉 사회경제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전복된 상황에서 한인에 대한 차별은 인접국 이주민들에 대한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간다. 꼬레아노, 한인들 또한 종족, 계급, 국가의 경계가 교차된 복합적 수사들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만, 아르헨티나 원주민과 인접국 이주민 사이에서 중개인 또는 중간상인 소수자(middlemen minority)라는 양가적 위치는 강혜숙의 사례처럼 이들의 특수한 현실을 구성한다.

이주 초기 한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하층 원주민과 인접국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비샤(villa, 빈민촌)에 자리를 잡고 이들과 이웃하여 의류샅일을 분담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한인들이 동 업종에서 고용주 및 중개인 계층으로 성장하면서 노동력으로 흡수된 이웃들과의 마찰은 문화적 차이, 노사갈등과 같은 여러 형태로 가시화되었고, 법적으로 금지된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또한 관계당국과 현지 언론에게 의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인들의 경제활동은 점차 양성화되었지만 노동집약형 의류생산업의 특성 상 노사·고용문제가 계속되면서 피고용인들과의 대립구도가 장기화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저임금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온 한인들은 당국의 주요 표적이 되며 불법적인 착취계층으로 담론화되었다(이교범 1992; 손정수·장영철 2005; Bialogorsky 2010). 1990년대부터 한인들에 대한 현지 사회의 적대감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인 업주들에 대한 보도는 2000년대까지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 이미지들로 그려갔다(Park 2014). 이는 한인들의 입지가 더 이상 사회계급 차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일련의 종족성에 대한 해석과 평가로까지 확장되어 재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80년대 말 경제악화, 2001년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사태, 그밖에 외환파동이 일었던 시기마다 한인들 사이에서 미국, 한국 등지로 재이주 붐이 일면서, 아르헨티나 현지사회에서 이들의 성원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한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은 교민들 사이에 전과 다른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중간 상인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한인들 또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현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워갔다.

[강우석 제리노, 70대, 의류업 외, 1971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1년 카톨릭입문]

- 강우석: 페론(Juan Doming Perón) 정권에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어. 산업화도 안되고. 그때 육류나 곡물 수출 엄청났는데, 그 정권에서 해외로 엄청 빼돌렸지. 크리스티나(정권), 지금도 똑같아. 권력자나 이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외화 빼돌리고 여차하면 나갈 준비하는 게 이 나라야. 한국 교민들도 마찬가지인거야. 이민 와서 돈은 여기서 벌고 번 돈은 안정적인 한국이나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주민들도 외국으로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지. 부동산은 다 외국에 사두고 돈 벌면 이 땅 떠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사람들 탓할 수도 없어. 사실 이 나라 구조자체가 국내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긴 해.

강우석은 현지 사회 한인들이 자주 이탈하는 원인을 아르헨티나 자체의 불안정한 사회·경제구조에서 찾으며, 이러한 양상은 원주민과 여타의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크리스티나(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 정권¹³⁾의 부정부패, 횡령, 탈세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연구자가 만난 한인들은 강우석과 같이 자신 또는 한인들을 ‘안정적인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분리된 지점에 위치지우며, 타자화된 아르헨티나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근래에는 한인과 관련한 언론의 편향적 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도 한인

13) 2015년 12월 10일, 공화주의제안(Propuesta Republicana, PRO)당 출신의 마우리시오 마그리(Mauricio Macri)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좌파에서 우파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좌파 성향의 정권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내부 부정부패와 더불어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치안악화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되자, 아르헨티나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국가위기로까지 밀려가선 안된다는 민심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한다.

회와 교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언론사 및 관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민사회 차원의 집단 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위치 지워진 주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자구적 인식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인들이 아르헨티나 사회 및 여타의 구성원들로부터 타자화된 위치에 머무르려했던 것만은 아니다. 현지에서 태어나고 수학한 한인 1.5-2세의 경우 대학에서 전문직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주류사회 진출을 모색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사회 진입은 시도에 그치고, 이들은 다시 한인사회로, 아베샤네다의 옷가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원주민사회로 들어가기도 해요. 아직 조금이긴 해도 2세대 중에는 성공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따로 할 수 있는 의사, 약사, 변호사 같은 거예요. 아직 여기 주류사회는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아요. 여기가 상당히 배타적이거든. 유럽의 자부심 같은 게, 전에 잘 살았던 거나. 지금 이야 발전없이 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지만. 특하면 정전에 물 안나오는, 알죠?

(중략)

해도 안되니까 결국 한인끼리 더 뭉치게 되고, 그냥 원주민사회랑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차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르헨티나 무시하고 원주민은 한인을. 사실 아르헨티나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인데 한국도 만만치 않지. 한국인들 민족성? 차별하는 게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민자 차별 심한 것처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젠 다들 먹고살만해졌는데 원주민들은 사는 거나 나라 돌아가는 것도 한국에 비하면... 그런데 뭐 잘난 것도 없는 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한인들이)이렇게 있어도 살면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도성란이 이야기하는 2세대, 즉 현지 언어와 문화가 자연스러운, 자신을 아르헨티노(argentino, 아르헨티나인)라 생각하며 자라온 세대들 역시 주류사회 진입과정에서 견고한 유리벽에 부딪쳐 한인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한인들은 흔히 "그래봐야 우리는 치노(chino, 중국인)야."라고 푸념한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차별의 기준은 부모세대가 언어와 현지 정서에 익숙치 않았기에 빚어온 문화적 이해와 계급 갈등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닌, 결국은 보다 근원적인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상승된 한인들의 지위와 자신감은 이같은 차별적 경험을 피해자 인식보다는 쌍방향적 차별인식을 키워내는 계

기로 전환시킨다. 과거 영광에의 향수와 인종차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회분위기는 아르헨티나의 오랜 저발전, 수시로 발생하는 급수난과 전력난 등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한국이 이루어낸 성장과 대비되어 '뒤떨어진', '낙후된' 아르헨티나와 원주민이라는 인식의 경계로 연장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면서 '아쉬울 게 없는' 한인들에게 주류사회로의 동화나 소속에 대한 의지는 현지 사회로부터 받은 차별의 기억과 경험을 감내할만큼 강렬한 것은 아니었다.

2) 이등교포의 귀향 :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다시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함께 한인들 역시 원주민에 대해 가지는 차별 인식은 한인 디아스포라 내집단으로 성원들의 귀속력을 강화시킨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50년이라는 길지 않은 이민역사로 한국어와 문화 보존도가 높은 편인 데다, 한인 내집단으로 국한된 활동영역은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대 간 언어와 문화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였다. 1-1.5세대의 경우 상상된 것으로만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한 모국의식과 애착이 여전히 생생한 반면,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서도 최근 한국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모국의 발명' 바람이 새롭게 일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민사회에서는 현지에서 태어난 2-3세의 경우에도 ICA(Instituto Coreano Argentino,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의 정규초등교육과정, 그리고 ISC 및 여타 개신교회의 한글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며 높은 교육열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전의 교육이 가족 내 세대 간 소통이나 현지 교민사회에서 필요한 한인됨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면, 작금의 교육열은 현실적인 모국요인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 신장은 이들에게 상징적인 문화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 실제로도 사회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부모의 문화적 유산이 자녀세대들의 정체화 과정에 적극 채택되면서, 단순히 언어와 같은 도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이라는 모국의식을 체화해가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엄고는 꼴라라, 30대, 의류업, 1984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90년 카톨릭입문]

- **엄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나갔다가 P대에 입학했어요. 특례입학제도가 생기면서 2세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서반아어과에 들어갔는데 사실 마음에는 안들었어요. 원래 경영학 전공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되니까. 그래서 여기 살다 스페인어 전공으로 (한국 대학에)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잘 지냈어요. 마인드가 오픈된 것처럼 한국생활한 거랑 다른 전공 한 것도 다 뭐 좋은 점들이... 졸업하고 한국에서 회사생활 좀 하다가 미국에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정식서류 없으면 사는 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결국 답답해서 싫다고 하면서도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는데 너무 정신도 없기도 하고, 내가 할 만한 일이... 오빠는 아르헨티나 싫다고 한국서 살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지금 있을 데, 가장 편한 건 여기(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1996년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규정'이 개정되면서 해외 영주권자 자녀들의 한국 대학 입학이 용이해지자, 최근 각 대학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전공학과로 이민 1.5-2세대 라틴아메리카 출신 학생들의 귀환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과 관련하여 현지 채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지역전문가 수요가 상승하면서 모국으로의 상징적·의식적 귀환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도권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이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주세대 간 경험과 인식을 역전시킨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전후의 어렵פות한 기억 또는 그러한 기억마저 부재한 자녀세대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가 아닌 한국에서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모국의 현재를 경험한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정체된 아르헨티나와 교민사회를 벗어나, 옷장사와 생업전선 밖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한국은 1970-80년대 부모세대의 모국과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었다. 그 경험은 부모세대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와 '아베샤네다 옷가게 주인'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녀세대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진학과 취업에 있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으로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전방위적 경쟁구조와 빠른 일상의 리듬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한인과 차별화하여 원주민들을 형용하던 '게으름, 불성실함'과 같은 부정적 수식어를 자신에게 부여하며, 영어권,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이등교포'

라는 차별적 경계로 경험된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온전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이등교포로 차별받는 상황들은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사회에서 느끼는 편안함으로부터 자신의 고향, 현재 자신의 자리가 바로 이 곳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고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어찌될 지 모르는' 훗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며 생긴 자신감은 이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온 이후에도 초국적 삶의 선택 폭을 확장시킨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반면, 자녀들이 경험한 한국의 현재는 이주 시기를 전후로 한국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멀어져가는 부모세대들이 온전한 한국인으로서 상실한 시간이며 자부심이다. 한국이 자녀세대에 모국 또는 새로운 삶의 선택지로서 제공하는 기회들이 확대된 것과 달리, 교민사회의 1-1.5세대에게 공유되는 한국과 한국인됨의 정서는 1970-80년대 이민 당시에 정체된 채 현재 한국의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어 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모국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상승한 것과 반대로 모국인 한국에서 거주국과 거주국 교민에 대한 인식은 이와 반작용하며, 아르헨티나라는 선택과 현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평가절하로 나타난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여기는 뭐 80년대 한국에 멈춰있는 거지. 와서 몇 십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나간 사람도... 한국 한 번 가려면 지금이야 30시간 안팎이지만 그 전엔 두세 번씩 비행기 갈아타고 하면... 비행기값만 해도 너댓 식구 한 번 움직이려면 천 몇 백(만원)이 훌쩍 넘으니까. 가서 먹고 쓰는 거 따지면 몇 천(만원)은 똑박이야. 아무리 여기서 먹고 살만큼 벌어도 그렇게 갔다오면 힘들지. 그리고 너무 멀어. 며칠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 가게 단아놓을 수도 없고.

(중략)

나름 신경써서 입고 가도 식구들이 안쓰럽게 보면서 고생 많냐고... 여기서 자기들보다 훨씬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데도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식구랑 친척들한테 먹는 거, 뭐 사는 거에 돈 많이 써도... 한국에서 어쩌다 나오는 뉴스들이 경제위기, 범죄, 시위 이런 안좋은 것만 나오니. 나는 여기(아르헨티나) 살고 있으니 그런 게 마음이 안좋지. 그런데 이젠 한국 가면 나부터도 편하지가 않아. 워낙 빨리 변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면 뭘 할지도 모르겠고...

박영도의 증언은 다수의 ISC 성원들이 한국행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겪어야했던 물리적·심리적 피로감과 함께, 그로 인해 한국과의 접촉면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모국과의 거리감을 가늠케한다. 또한, 모국에 대한 향수와 성공한 아르헨티나 교포로서 금의환향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대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친지들과의 대면에서부터 어긋나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공간과 생활양식에서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갔기에, 모국과 고향은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한국 지인이나 매체들의 부정적 시선과 함께, 일상생활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르헨티나 교포들이 한국으로부터 가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증폭시키며 친아르헨티나 정서와 한국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두드러지게 한다.

[동세훈 비오, 40대, 의류업,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입문]

- **동세훈:** 어려서 이민 갔으니까 처음엔 나가서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거기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하면 "뭘, 어디?"라고, 영어야 어디서든 쳐주는데 까스페샤노¹⁴⁾ 하면 좀 없이 보고. 그리고 한국은 너무 좁고 답답해. 사람들은 여유가 없이 빨리빨리 돌아가기만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밟고 올라서려고, 치열하게... 교포들이 와서 사업하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다 단혀있어. 배타적인 데다가 자기들끼리만 먹고살려고 하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적당히 좀 봐줄줄도 아는, 그런 게 없어.

동세훈은 9세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결혼 후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재이주한 경우이다. 어린 시절 모국에서의 기억과 아르헨티나에서 축적한 자본력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한국에 돌아온 그였지만,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곳에서 더 이상 온전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은 사업의 성패와는 별도로 그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보통 이주민들은 전지구적 국가 간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세에 있는 국가로부터 보다 강한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써 이들은 이주를 통해 인적 가치, 자산, 지역성 등의 차원에서 모국에서보다 우월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한다 (Levitt and Schiller 2004). 하지만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국가와 개인 두 차원의 스펙트럼으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주 이전 한국에서 가졌

14)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로, 스페인 중부 까스티야(Castilla)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

던 경제력 및 사회적 지위 차이를 불문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류산업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개인적으로나, 종족 집단으로서 한인사회에서나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성취를 경험한다. 하지만 한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부실한 산업 및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지하경제를 통해 유입된 한인들의 노동과 기술, 자본력은 경제위기마다 초국적 산업망 및 달러자금력과 연결되어 부의 단위를 상승시켜 왔다. 한인들의 개인적 성취는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저발전을 지속시켜온 국가적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현지 당국의 행정적·법적 관리와 조처는 유동적이며 투명하지 않았기에 한인들은 상황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당국의 움직임에 대처하였고, 자신들 또한 장기간 이러한 방식들에 익숙해져 왔다. 이같은 일련의 맥락 속에서 동세훈과 같은 재이주자들에게 출신 지역과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거주국의 생활습관과 사업방식은 온전한 한국인이 아닌 이등교포에 대한 모국의 부정적 평가와 차별적 경계로 경험되고, 재이주를 통해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 사회적 권력은 거주국의 위상과 함께 전복된다.

결국 동세훈은 일상생활에서나 사업적으로나 자신에게 보다 익숙하고 전망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온전한 한국인도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하고 두 번째 재이주를 감행하였다.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사회는 박영도, 동세훈과 같이 고향의 상실을 경험한 이민세대들이 2-3세대의 성장과 함께 모국과 거주국, 그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수립해가는 과정에 있다.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양쪽 세대 모두에게 경험된 모국과 거주국의 차별적 경계는 고향의 감각을 부모세대의 한국도, 자녀세대의 아르헨티나도 아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사회라는 지점에서 확신하게 하였다. 이같은 확신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주국 또는 모국과 통합시키는 방식 외에, 그 어느 편도 아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만의 그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3.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종교성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에게는 거주국과 모국에서의 불완전한 성원권과 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를 반복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 곳에 뿌리내리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이들의 삶이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등시민과 교포로서 감내한 차별, 반복된 이주를 통한 생활환경과 관계의 지속적 변화로부터 '고향의 상실과 부재'라는 공통의 경험과 감정은 이주 시기와 세대, 이주목적과 배경 등이 각기 다양한 이들이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일련의 군집으로 귀속되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 집합은 종교공동체와 같은 물리적 시공간과 활동들을 통해 실제 소속의 방식들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에서 고향으로서의 모국은 거주국 사회와 차별화된 성원권을 구성하기 위해 소환된다. 그리고 모국요인은 한인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자기 존재와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속지점으로서, 자신의 삶이 위치한 현장에 '고향'을 재현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자질과 상징들을 구성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회에 재현된 이상향의 '고향' 안에서 이들은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종교기제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종교공동체라는 실제의 소속과 연대로 구현된다.

1)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형성 : 고향의 상실과 중간성의 인정

[조우재 베드로, 50대, 의사,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조우재:** 여기에서(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는 결국 영원한 치노예요. 딱 보면 생긴 게 다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치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꼭 어떤 인종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원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슈퍼마켓을 많이 하니까, 별뜻없이 "야, 저기 치노에 가서 뭐 좀 사와!"라는 식으로...

제 3의 신분, 치노(chino). 중국 국적 또는 혈통의 이주민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슈퍼마켓 주인도 아닌 많은 한인들이 조우재의 '치노론'에 공감한다¹⁵⁾. 여기에서

15)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 체인점을 제외한 동네의 슈퍼마켓 상권은 대부분 중국계 이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기에, 한인뿐만 아니라 원주민에게서 또한 '치노=슈퍼마켓'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치노에의 수공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현재 삶의 공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전한 아르헨티노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없는 타자로서 한인들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외형적으로나 문화적인 차이로 위치 지워지는 타자화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계층 갈등과 같이 꼭 부정적인 차별의 경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심 또한 한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환기하게 한다.

꼬레아노와 치노, 그리고 아르헨티나 교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들에게 부여된 수식어들은 이들이 가진 여권의 색깔과 관계없이 온전한 아르헨티노와 한국인으로 인정받거나 소속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온전한 성원권을 거부당한 경험은 모국 또는 '발명된 모국'으로서 한국과의 연대 위에 자신을 여타 원주민 성원들과 차별화하는 계기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같은 일상의 차별화 전략이 모국과 고향으로서 한국에 대한 애착, 또는 한국인으로의 정체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삶이 '편하다'고 술회한 이민 초기 세대들은 생활습관의 차이나 한국에서 이등교포로 차별되었던 경험으로부터 모국과의 심적 거리감이 점차 크게 느껴지고, 이같은 감정적 혹은 감각적 변화로부터 자신이 경계 위의 '중간인(in-between)'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유혜선 요안나, 50대, 의류업, 1987년 이주, 모태신앙인]

- 유혜선: 혹시 '원주(원주민)'랑 '꼬리(꼬레아노)'라는 말 들어봤어? 같은 한국 애들 사이에서도 서로 구분하는 게 있어. '원주'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거나 다섯 살 이전에 이민 와서 원주민 수준으로 말하고 여기 문화에 더 익숙한 애들. 그리고 '꼬리'는 다섯 살 지나서 초등학교 된 후에 와서 말도 서툴고 한국문화가 더 친숙한 애들. 같은 한국 애들끼리 어울려도, '원주'는 '원주', '꼬리'는 '꼬리'끼리 어울리면서 결혼도 거의 그 안에서 만나 하게 되더라고.
- 연구자: 그럼 '원주'라고 하는 친구들은 원주민 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원주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겠네요. 말도 되고 문화적인 것도 여기가 더 편하면...
- 유혜선: 그게 또 아니거든.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도 결국 '원주'나 '꼬리'나 다 한국애들끼리 어울리는 거야. 사실 '원주'는 걸만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원주민들이랑 더 맞을 수 있거든. 그런데 얼굴부터가 동양적으로, 내가 원주민이랑은 다르다는 거. 어딜 가나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좋던 나쁘던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다 통하는 한국 애들이랑 편한 거고.

유혜선의 설명처럼 한인 내에서 거주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보다 친숙한 '원주'와 한국의 그것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꼬리'의 분화는 ISC에서도 확인된다. 이같은 구분은 사실 유년기의 또래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주 시기별, 세대별 한인 간 문화양상 전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주 세대별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느끼는 친밀도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이주세대 안에서도 1970-80년대의 한국을 경험한 이들과 1990년대, 2000-2010년대를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주하는 성원들과 이주노선에서 이곳을 단지 경유하거나 머무르는 지점으로 삼는 이들 사이의 간극 또한 '원주'와 '꼬리' 사이의 그것과 닮아있다. 경유자들에게서는 원주민 사회로의 진입과 교류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집단 간에는 한인됨을 공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이들 모두는 자신이 한인임을 긍정하고 원주민 교회와는 다른 한인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 상징과 의미들을 수용하며 성원됨을 자처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민사회와 지속된 이주의 맥락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의 국가와 결속되어 뿌리내리는 국민으로서보다,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나 불변하는 자질들로서 한인이라는 종족적 범주에 더 큰 의미와 무게를 두게 된다. '동양적인' 외모, 출신 지역과 문화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외부사회의 기대로부터 '한인'의 경계는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환기되고 범주화되며, 종건 싫건 그 분류체계에서 부여받는 이들의 위치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의 간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디아스포라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공통의 지점으로 수렴되어 간다.

그렇다면 이들이 되찾은 고향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 지점에선 이주 지속성과 관련한 아르헨티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서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사 시 재이주를 염두에 두며 살아온 한인들은 지금껏 거주국 사회에 대하여 관망적이며 주변인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왔다.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로 정착이주를 시도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 및 인접국으로 높은 재이주율이 나타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의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부의 축적과 기회를 도모하는 경유지로서 가지는 한시성을 대변한다.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재이주와 역이주가 반복되

면서 ISC 성원들 중에도 현재 자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들은 미국, 캐나다, 한국 등지에 분산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의 삶의 지형도는 현재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점하는 자신의 디아스포라적 위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들까지로 연장되며 보다 복합적인 위치와 관계망들을 그려낸다. 연구자가 만난 ISC 성원들 대부분이 "이 곳(아르헨티나)에 뿌를 묻을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일선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이들의 바램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그 지형도는 더욱 복잡하게 그려진다. 다선적 이주회로 위의 삶에 있어 고향은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실제의 물리적 공간보다는, 점점 특정한 실체로 설명할 수 없는 인식과 심상들로 묘연하게 존재한다.

한편, 소수자나 이민자라고 해서 현지사회의 차별에 기죽기보다 한인들 스스로 '아쉬울 것 없이' 원주민사회에 섞이지 않으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로는 이민의식의 부재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사회의 후진성 또한 지목된다. 한국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의 경제적 성취와 비교해 아르헨티나의 더딘 성장과 사회 병폐에 대한 인식은 사업장에서 접촉하는 제한적 관계와 경험들을 통해 전체 원주민 사회로 확장되며 한 인과의 경계를 가름한다. 여기에서 이민의식의 부재는 더 나은 삶의 대안과 지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새로운 고향에 대한 갈망과 지향이며, 아르헨티나 사회와 더불어 원주민들에게까지 연장된 후진성에 대한 인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또한 궁극적으로 이들이 있을 온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차별화된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과 인식 하에 이들은 모국도 거주국도 아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사회 안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온전한 성원됨을 담보할 소속의 지점을 모색해가고 있다.

2)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종교 : 한인 종교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유동적 삶의 중간 기착지라는 인식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차원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는 지난 50여년 역사의 축적을 통해 현재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지나, 현지사회에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민 50주년을 맞아 한인회 등 주요단체들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한인이민사 편찬, 한인타운 개발과 같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긍정과 대·내외적 인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착취계층이란 오명과 함께 머물렀던 중간상인 소수자(middlemen minority)의 위치에서 모범 소수자(model minority)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사회문제에의 참여와 지원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 곳에 단지 머무르거나 지나쳐가는 이들이라도 이제는 정주자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역사와 경제적 입지로부터 성취·부여된 성원됨의 무게에 대하여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공감대는 ISC 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반 세기, 한인 내집단의 보호와 결속에 급급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대내외적 인정과 함께 원주민 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한인사회 내·외부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과도기를 맞이한 셈이다.

하지만 이민 초기부터 최근까지 상호 차별인식을 통해 원주민 사회와 거리두기를 유지해 온 한인사회가 시도하는 작금의 위치 재설정을 아르헨티나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의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기실 최근 한인사회에 공유되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참여는 원주민 사회와 기존의 거리는 유지하되, 상호 차별을 상호 인정으로 전환하여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성원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치전략에 가까워 보인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일련의 소속됨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집합점과 성원권의 경계에 대한 탐색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함께 이들이 그려내는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보다 세밀히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의 경우 종교적·종족적 박해나 정치적 망명과 같이 동일한 이산의 원인과 동기가 부재하였고 애초에 목표한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면 원하는 곳으로 떠나겠다는 잠재적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교민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잦은 구성원 변화로부터 지속적인 관계구축과 상호 신뢰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한인회와 같은 주요단체들 역시 와해와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며 주축으로서 원활히 역할하지 못하면서 교민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힘을 집결시킬 수 없었다(손정수·장영

철 2005). 한인에 대한 원주민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여론공세, 타 이주민 집단과의 갈등이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집단적으로 경험되며 한인사회 내부의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역시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움직임에 그치며 연속성을 갖지 못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의 이같은 특수성은 외부로부터 종족과 계급의 차원에서 집합적 총체로 표상되는 한인 사회가 실상 내부적으로는 분절적이며 개별화된 집단들로 이루어진 군집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국가적 세계의 일상 속에서 한인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 기획하는 소속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 내 인접한 집단들이 각각의 경계를 구성하는 차별화된 과정들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차별화된 과정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강한 종교적 아우라가 감지된다.

[조우재 베드로, 50대, 의료업,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조우재:** 이민사회에서는 어떤 소속감이 필요해요. 심적으로나 생활면으로, 언어랑 문화차원에서도. 여기는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국 교민이 2만 명 내외인데, 우리 성당 교적인원이 3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개신교회에 다니는 인원은 그것보다 몇 배 이상 되는데, 불교까지 합하면 기형적으로 많기는 하죠. 그리고 이민사회는 좀다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종교별로 그룹이 이루어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인끼리 안에서 모여 살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민사회에서는 믿을 사람 없다고 하는데, 교회나 어떤 종교 안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2014년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35개 개신교회와 1개 카톨릭교회, 3개 불교사찰, 1개 천리교회 등 공식적으로 총 40개 한인 종교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¹⁶⁾. 하지만 대형 개신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소규모 공동체들의 경우 통계에 잡기 어려워 상기 수치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인 개신교회 수는 약 100여개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종교공동체 관계자들은 규모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형 개신교회의 경우 많게는 몇 천에서 몇 백 여명까지의 신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교회와 사찰의 수만 보더라도 2-3만여 명의 전체 한인이 각각 하나 이상의 종교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한다. 연구자와 접촉한 교회 안팎의

16) 아르헨티나 한인상인연합회 및 한인회 내부 비공개자료 참조

한인들 또한 자신과 가족, 주위의 지인들 대부분이 종교 공동체의 성원으로 활동한다. 이처럼 한인사회는 종족과 종교의 지형도가 겹쳐질만큼 매우 종교 지향적인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구성하고 있다.

종족공동체로서 종교는 문화적 연속성과 함께 이주경험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불안정성에 대해 심리적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성원들이 거주국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유연성과 사회적 인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에서 직면하는 적대감이나 차별의 경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완충지대로서 기여한다(Hirschman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에서 역시 종교는 이주 초기부터 이같이 심리적이며 물리적 중간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종교 이외에 지속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종족공동체가 부재해왔다는 현지의 특수성 또한 많은 한인들이 종교공동체로 편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일견에서는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의 한인 종교공동체는 이 곳 한인사회의 폐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주 초기 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성원들 간 갈등이 고조되자, 원주민 공동체로는 진입하지 못한 채 한인교회의 여러 분파가 형성되면서 한인사회 내부의 종교세(勢)만 부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인 1.5-2세의 경우에도 언어나 문화적응의 수준에서 충분히 원주민 교회로 편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교민사회 내부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현상에 일조하는 바가 크다.

디아스포라에게 있어 종교공동체는 이처럼 공동체 내외부의 질서와 가치, 성원들의 기대와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산물로서의 총체적 사회, 그 자체이다. 구심점 없이 개별적이며 유동적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교공동체는 보다 집약적인 공간과 활동 내에서 축약된 총체로서의 한인사회를 펼쳐내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종교공동체들에게서 나타나는 폐쇄성 또한 이들이 원주민 사회와의 거리두기로부터 설정된 위치에서 확인되는 특징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 혹은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치적 표식이자 생산적 실천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다양한 영적·세속적 질서와 가치들이 공존하며 경합하는 장에서 종교는 일련의 대표적이며 합의된 자질들을 수렴하고 공동체적 윤리로 구현하는 생산자이자 권위체로서 역할한다. 하지만 이들의 폐쇄적

공간과 질서 또한 내·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하며 재구성되고, 각 공동체 또는 개별 성원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실천방식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현재 존재양식에만 매몰되어 교회의 닫힌 문 안팎을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기보다는 교회의 담장을 둘러싼 경계들과 그 문이 여닫히는 방식, 그리고 그간의 변화를 포착할 때 최근 전환기적 시점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인 디아스포라 위치의 변화를 옳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도저도 아니기에’ 온전한 그 무엇일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성원권과 소속의 정치는 종교적 일상의 실천 속에서 분석됨으로써 미학적 수사로서가 아닌 가시화된 실체로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여러 한인 종교공동체 가운데에서 1960년대 말 태동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신교회들의 분파와 교세확장 여파 속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단일 한인 카톨릭 공동체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ISC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카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ISC는 카톨릭이라는 사회적이고도 종교적인 성원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보다 더 종족 내부로 닫혀있는 공간과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신앙, 종족, 국가 등 ISC 내외부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차원의 질서와 가치, 의미와 상징들이 종교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경합하며 성원권의 경계와 실천들을 생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카톨릭의 디아스포라 위치를 구현해가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Ⅲ. ‘우리’라는 경계의 정치: 한인 카톨릭의 위치와 의미

본 장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인 카톨릭이자, 차별화된 한인 카톨릭이라는 이중적 소속의 위치가 만들어지기까지 ISC 성원들이 지나왔던 역사적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들이 모국과 거주국에서 자리한 중간인, 그리고 이등시민이라는 불완전한 위치는 이들의 종교생활 내에도 지속적으로 재현되어 왔다. 법적 지위와는 별도로, 일상에서 문화적·사회적 차이가 정당한 방식으로 인정되는 소속 지점을 구축하기 위한 ISC의 노력이 이 과정에서 조명된다.

1. ISC의 역사성과 자기위치의 모색

아르헨티나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2조에서 '연방정부는 로마카톨릭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한다(el Gobierno federal sostiene el culto católico apostólico romano)¹⁷⁾'고 명시한 카톨릭 국가로, 총 인구의 약 76%가 로마카톨릭 신자로 추산된다¹⁸⁾. ISC는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에 등록된 로마카톨릭 교회 총 249개 중 유일한 단일 종족공동체(colectividad coreana, 한인 공동체)로¹⁹⁾, 이들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종교적·사회적 구조와 관계들로 설명된다.

ISC는 카톨릭 내 별도의 종족공동체로서 요구되는 제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인구 면에서 현재 2만 천여 명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인구 중 약 13%에 해당하는 2천 7백여 명의 재적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2인의 사제가 파견되고 있으며, 한국의 여타 천주교 교구 및 인사들과의 교류를

17) 아르헨티나 상원, “아르헨티나 국가헌법(Constitución de La Nación Argentina),” <http://www.senado.gov.ar/Constitucion/capitulo1> (2015. 3. 15 접속)

18) 2014년 현재 아르헨티나 총 인구(2014년 추정 약 4천3백만 명)의 72-90%가 로마카톨릭 신자로 추산된다. 카톨릭 교회는 국가로부터 세금 감면, 학교 지원 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여타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청(Secretaría de Culto)에 종교가 아닌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의 지위 유지(보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는 등 로마카톨릭은 사실상 아르헨티나에서 국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2014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아르헨티나,”

<http://www.state.gov/j/drl/rls/irf/religiousfreedom/index.htm#wrapper> (2016. 3. 19 접속)

19)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종교시설 주소(Dirección General de Cultos),”

http://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catolicos_apostolicos_romanos_1.pdf (2015. 2. 27 접속)

통해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까스떼샤노에 능숙한 한인 2-3세들과 달리, ISC의 주축성원들인 이주 1-1.5세의 경우 현지어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식 카톨릭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인들만의 카톨릭공동체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 종교적 이유들이 설명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이민 붐이 일어나기 이전 1960년대 말에 태동한 ISC의 역사와 그간의 부침을 고려할 때, 한인 카톨릭의 존립은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변화해 온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따라 과정적 차원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ISC가 설립되고 지금의 안정적 지위를 점하기까지 거쳐 온 지난한 시간들은 단순히 종교적 요소들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그들이 흔히 민족성이라고 통쳐서 이야기 하는 자질과 역량으로부터 ‘문화적 차이’를 성원권의 경계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내·외부의 인정과 관계된 정치적 과정에 다름없었다.

[남동민 토마스, 60대, 주임사제, 2012년 부임, 미국·페루 사목 경력, 1975년 사제서품]

- 남동민: 여기도 그렇지만 어디서나 우리 한인성당(ISC)처럼 자기 나라 사람이나 같은 민족끼리 교회 세우고 하는 건 한국인들이 제일 특출나. 유대인들이야 유대교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나 중국 성당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남미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말이 같고 문화가 비슷하니 따로 공동체나 성당을 만들 필요가 없지. 미국에서도 그래. 남미 출신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는 인해전술 같이 원체 많은 수가 현지 성당에 짝 몰려오면 미국 신자들이 싫어서 성당을 떠나고, 그러다보면 결국 남미 사람들 성당이 되는 거야.

(중략)

한인들은 어딜 가나 우리끼리 모이고 같이 김치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대부분 따로 뭔가를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지. 남미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우리처럼 아예 성당과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성당에서 자기 언어로 끼리끼리 특별미사를 진행하는 정도지, 따로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단일 종족공동체로서 ISC의 특수성은 종교적 요인 외에 한인들의 강한 종족성과 응집력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곳에서 현재 한인들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낸 원동력으로 회자되는 종족적 특성은 ISC의 인정 과정에서도 핵심동력으로 거론된다. 여기에서 한인들의 종족성은 사회경제적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세속적 힘(power)이지만, 또한 카톨릭공동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힘으로도 전환된다. 종족성과 같이 신앙 이외의 자질이 종교적 장 내에 차별과 배제의 경계를 구성할 때, 소외된 집단의 대응은 차별받지 않을 동등한 성원권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적 시민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차이에 기반한 공동체와 공간을 확보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차이에 기반한 연대와 실천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종교적 대의로써 해석된다. 이는 ISC가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자리잡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와 한국의 교계 사이에서 전개해온 인정투쟁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ISC가 전개해 온 그간의 노력은 현지 사회에서 인종적·계층적으로 차별화된 한인들이 종교를 통해 온전한 성원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종교와 종족, 한인사회 및 원주민사회와 같이 ISC를 둘러싼 이중의 경계들이 생산되고 보다 선명하게 내면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68년 경, 백구촌 인근의 한인 10여 가구가 모여 미사를 보면서 이루어진 초기 공동체의 태동은 이민 이전부터 카톨릭이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다분히 종교적인 회합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후 한인 사제 파견요청과 이를 통한 신앙의 심화를 도모하면서부터 카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 오히려 한인들의 종족적 경계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우리, 한국인 사제 한 분 모십니다. 도무지 미사 때 말을 못 알아들으니 자꾸 분심(分心)이 생겨 이거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어디 쉬운 노릇입니까? 언감생심이지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지금 파라과이 케이스로 아르헨티나에 재입국하는 교민들이 많으니 앞으로 성당 교우들도 분명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신부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는 교무금을 거둬야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님 성무비(생활비)는 해결될 테고, 그러니 한 번 우리 밀어부쳐 봅시다.”

(중략)

고국방문을 하는 교우나 교민이 있으면(그 당시의 고국 방문은 대단히 어려운 여행이었다) 그런 인편을 통해 꼭꼭 탄원서를 보냈으나 한국주교협으로부터 아르헨티나 교우들에게 실망스런 소식이 전해왔다.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30년사, p.66]

한인 카톨릭 모임에서 별도 공동체 설립과 사제 파견을 요청하게 된 단초는 원주민

교회의 까스페샤노 미사에서 부딪치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분심(分心)’이 생겨 신앙의 심화에 장애가 된다는 종교적 사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사제 파견에 회의적이었던 한국 교계를 설득하는 절차부터 종교적 열망만으로 한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제 파견절차는 모국과의 직접 접촉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주교청을 통해 한국주교협의회에 애로사항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문화적 차이로부터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인정받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우선 현지 교계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주민 정착을 지원해 온 카톨릭이민문화연구센터²⁰⁾가 양국의 사제파견 절차 및 항공과 숙박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사제파견이 성사되었고 ISC의 모태가 형성된다.

당시 신자 규모나 재정적 자구책이 부재하였던 한인들이 현지 교계에 어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민자들의 나라이자 카톨릭 국가로서 아르헨티나의 특수성, 이를 배경으로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둘러싼 국가와 종교 사이의 긴밀한 정치적 공모관계가 작용하였다.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에는 유럽과 인근 국가로부터 국가체계와 법적 테두리에서 수용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왔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이들의 불법성을 용인하지 않지만,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종교교계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주민 지원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 내의 차별화된 집단으로서 ISC에 대한 성원권의 인정과 지원 또한 이같은 사회와 종교계의 상호 공조구도의 측면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교계가 한인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카톨릭’이면서 ‘한인’이라는 보편적이고도 차별화된 성원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한인 카톨릭은 원주민 성원들과 분리된 단일 종족종교공동체로 분화되어 갔다. 1970년 한국 천주교협의 회로부터 주임사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식 파견되자 한인들은 기존에 미사를 보아왔던 원주민 교회의 부속 경당을 빌려 별도의 미사와 공동체 활동을 운영해가게 된다. 같은 해에 사목위원회가 구성되면서 ISC의 태동은 본격화되는데, 이후 여러 원주민 교회에서 차별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한인 카톨릭공동체의 독립과 본당 설립이 구체화된다. 한인들이 그간 원주민들과의 사이에서 겪어온 갈등은

20) 카톨릭이민문화센터의 주임신부였던 리노(Lino) 신부는 한인성당 교우뿐만 아니라, 교민들이 정착하거나 영주허가를 받도록 지원해줌으로써, 1985년 재야 한인 2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동 연구센터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확보와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ISC 2001: 70).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재현과도 같았다.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여러 성당을 전전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 1) 미사 중에 아이들이 성당마당에서 너무 떠들고
- 2) 어른들은 말할 때 큰소리로 하고
- 3) 일에 쫓긴다는 핑계로 부스스한 머리에, 입던 차림 그대로 성당에 오고
- 4) 향수도 뿌리지않고(현지인들은 꼭꼭 향수를 뿌린다)
- 5) 김치냄새가 나고
- 6) 미사를 마친 현지인들이 퇴장도 하기전에 밀고 들어가고
- 7) 아이들이 성당마당에서 공을 차고
- 8) 화장실(수세식) 사용습관이 안돼 변기를 막히게 하고
- 9) 현지인 교우와 마주치면 목례도 없이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옮겨 다니게 된 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용료였다.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30년사, p.66]

초기 한인 카톨릭공동체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연유로 지적된 바처럼,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원주민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회 사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 또한 이민사회의 시대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된 부분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차별받던 1970년대 이민 초기부터 1980년대 이후 한인들의 경제력이 제고되면서 ISC가 한인 교회로 독립하고 원주민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위치로 성장하기까지, 돈이라는 세속적 요소는 이들의 종교생활 안팎에서 한인이면서 카톨릭이라는 성원권의 중층적 경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기제로 역할하였다. 원주민 신자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이같은 요인들은 카톨릭의 보편적 성원권 내에서 한인이라는 차별화된 집단적 객체로서 인정받기 위해 감내해야 할 종교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영적이면서도 세속적인 비용이었던 셈이다. 그런가하면 원주민들의 직접적 차별행위와는 별도로, 상기 회고에서처럼 1970년대 공동체 초기의 성원들은 상황적으로 판단하거나 '눈치껏' 처신하면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스스로의 규범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주민이 원주민의 종교적 믿음 및 실천의 장과 부딪치는 상황에서 해당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개인들은 집단의 규범과 틀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Tubergen and Sindradóttir 2011). 한인 카톨릭들은 이처럼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룰에 따랐지만, 언어, 생활습관, 경제력 같은 요인으로 인해 종종 암시적으로 교회에서 퇴거를 종용받았다. 비종교적 요인들이 종교적 차별에 개입되면서, 교회에서나마 원주민과 동등한 성원권을 갖기를 희망한 이들의 기대는 한동안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일상에서의 차별경험과 교차되면서 종교 내에서 또한 ISC 성원들의 종족 인식을 강화하였다.

세속의 잣대로부터 비롯된 차별의 경험이 집단화되면서 한인들은 이주민에서 종족성이 부각된 주체로 종족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다름 권리를 인식하게 된다. 종족화의 경험과 다름 권리에 대한 주장은 다시 이들의 종교 내부로 유입되는데, 디아스포라 성원들은 자신을 거주국 사회를 일시적으로 거쳐가거나 모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주자(resident)로 정체화하고, 종족종교공동체 내에 모국의 종교문화와 종족종교적 특성들을 재현함으로써 고향 자체를 거주국의 삶으로 가져온다(Leman 1999). ISC에서도 종교 내에서의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통해 한인들은 종교적·종족적 타자 또는 주변인의 위치로부터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스스로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모국문화를 토대로 온전한 성원권과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인 스스로 주인이 되는 카톨릭공동체의 독립의지를 가시화하였다.

한편, 카톨릭으로서 한인됨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모국과의 사이에서 또한 이들의 주변적 위치와 중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종족 경계를 따라 이등시민의 위치를 재현하였다면, 모국의 그것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73년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인 사제가 브라질로 전출되면서 ISC는 신앙생활과 공동체적 난관에 봉착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로부터 ISC 담당으로 원주민 사제가 배치되었으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들의 영적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종족이라는 매개기제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공동체에는 분열과 해체위기마저 뒤따랐다.

한국주교회에서 함영상(비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파견장

한국주교회 1973년 3월 20일

브라질 쌍빠울로 대주교 빠울로 에비리스토 안스 추기경께서는 상서국장 후고 무나리 주교를 통하여 한국인 교포사목을 위한 사제 한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략)

함비오 신부는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아르헨티나 신자들을 위하여 사목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한국주교회에서는 함영상(비오)신부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서 상파울로 대교구로 거주지 이동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함영상(비오) 신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상파울로 대교구장 파울로 에비리스토 안스 추기경님의 관할권 하에서 교포사목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략)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30년사, p.66]

당시 한국에서는 ISC 주임 신부를 브라질로 파견하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의 한인 교회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국 한인교회의 조직과 운영조차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미 대륙 반 이상 규모의 사목지역을 한 사람이 관장하기란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이들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나 이동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조처는 현지에 대한 한국 교계의 관심과 이해 부족을 대변한다. 3-4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순환보직 체계에서 사제 전출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전 사목지역에 대한 대안없이 단행된 인사는 당시 한국 교계 또한 해외사목과 관련한 인적자원, 재정, 전문성 그 어떤 것도 완비되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는 당시 상황을 모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이 오래 공을 들여 파견받은 한인 사제를 신자 수가 4배 규모인 브라질에 '빼앗겼던'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섭섭한 감정을 회상한다. 그리고 당시 한국 교계의 조처는 실제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며 큰 타격이 되었기에 ISC에서 이 사건과 이후 5년여 간의 위기는 모국에서 받은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다. ISC 성원들이 모국 교계의 무관심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지금까지도 한국과의 교류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전술들에 나타난다. 한국의 물리적 거리나 비용문제 외에도 성원들 사이에서는 타지 교민사회와의 비교 구도 위에 '브라질 교세가 여기보다 세서', '여기는 미국처럼 시장규모가 크거나 중요하게 생각 않으니까'라는 식의 화법이 빈번히 발견된다. 이 같은 화법과 그 안에서 감지되는 소외감은 종종 이등교포라는 교회 밖의 경험과 중첩되어 그들에게 모국과의 관계에서 또한 주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위치가 각인되어 있음을 가늠케한다.

모국으로부터의 차별적 경험 또한 한인 카톨릭이 종족종교공동체 설립을 추동하는 배경이 되었다. 흔들림 없는 신앙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모국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제 파견 등 안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기반이 마련되어야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한인 카톨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공동체 구축이 구체화되었다. 주임사제의 공백으로 인해 원주민 교회를 떠돌던 분파²¹⁾들이 규합되기 시작하여 1977년 '천주교재아한국인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우리 성당 갖기 운동' 결의를 통해 신자 파악과 교적 정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공동체 통합과 본당 매입이 진행되면서 신자들의 결속을 강화하였고, 1985년 재아르헨티나 한인 카톨릭 본당 완공과 함께 ISC는 평신도들 자력으로 정통성과 통일성을 갖춘 아르헨티나 대표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인 카톨릭공동체의 독립과정은 성원들이 처한 디아스포라 위치의 종교적 재현임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위치를 스스로 주조해 온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소속의 문제를 보면, 카톨릭 교회 자체의 물리적 소속은 이들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구에 해당하는데, ISC처럼 언어와 문화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신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성원들은 보다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여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소속을 유지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로의 진입과 동화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심리적으로도 온전한 성원됨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타파하여 모국과의 연계를 통해 종족적으로 차별화된 독립체를 구성할 것인가. 이 선택지로부터 후자를 택한 ISC 성원들은 모국과 거주국의 교계 어느 한쪽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잡아야했고, 지금과 같이 완성된 공동체로 자리잡기까지 스스로 생존방식을 터득해갔다. 이들은 카톨릭 전례형식과 내용, 사제 확보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국 교계와 관계하여 해결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다투는 현지에서의 문제들은 원거리의 모국보다는 거주국의 소속 교구와 담당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언어와 현지사정에 밝은 신자들을 주축으로 견진성사 등 종교 의례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생애주기 의례를 비롯하여, 영주권 취득, 자녀 취학, 정착금 확보 등 이민사회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카톨릭이민문화연구센터와 같이 아르헨티나 교계의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한인 공동체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1) 당시 한인 신자들은 크게 3개 분파로 나뉘었는데, 교회명 또는 소재지명을 따라 코차밤바(Cochabamba), 코보(Cobo), 산타 이사벨(Santa Isabel) 측으로 불리웠다(ISC 2001).

결국 모국과 거주국 교계 모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ISC의 관계 방식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혼재하는 이중의 소속구조를 낳는다. 1983년 제4대 주임 신부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ISC 주임 및 보좌 신부는 한국천주교 전주교구에서 파견되고 있으며, 본당 수녀로는 1987년 이래로 서울성가소비녀회 소속 2인이 파견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교구 측에서는 해외 사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와 더불어, 교회의 실제 소속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레스 교구이기 때문에 ISC 조직과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플로레스 교구와 현지 본당 메다자밀라그로사(Parroquia Nuestra Senora de la Medalla Milagrosa) 측에서는 ISC의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국으로부터 담당 신부의 파견에 따른 사목활동 승인 이외에는 ISC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 간의 필요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간헐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동민 토마스, 60대, 주임사제, 2012년 부임, 미국 · 페루 사목 경력, 1975년 사제서품]

- **남동민:** 여기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둘 다에 속해있는 셈이야.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같은 식으로, 이게 다 적용되는 거지. 사제들은 전주교구 소속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메다자밀라그로사가 본당이고. 이름은 이글레시아(iglesia,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본당 소속의 까삐냐(capilla, 공소)로, 제3의 지대라 할 수 있다고. 어디서도 간섭 없이 터치를 얹아.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좋다면 좋은 거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건데... 그래서 더 교류가 없고 그러려고 얹는 것도 있고, 더 폐쇄적인 닫힌 공동체.

[강우석 제리노, 70대, 의류업 외, 1971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1년 카톨릭입문]

- **강우석:** 한국에서 뭐 해준 게 있나. 다 여기서 알아서 한 거지. 건물 사서 성당 짓고, 원래 이런 게 까삐냐인데 그만큼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사실 경제력이 그만큼 받쳐주고. 또 그만큼 보탬이 되니까 이글레시아로 인정해준 거야.

사실 ISC는 카톨릭공동체로서 이글레시아(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이 명칭 또한 이중의 입지를 내포하고 있다. 카톨릭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또는 ‘전례적 경배를 위해 봉헌된 신성한 건물’의 의미로 사용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글레시아(Iglesia, 교회), 빠로끼아(parroquia, 본당), 까떼드랄(catedral, 주교좌성당·대성당- 교구장 주교 영구 관할 성당), 바실리카(basilica- 교황에 의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별한 성당) 등으로 명칭 지우는데, ISC의 본당 메다자밀라그로사는 빠로끼아를, ISC는 이글레시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

다²²⁾. 플로레스 교구에서 ISC의 지위는 본당²³⁾ 메다자밀라그로사에 속하였으나 소속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까삐샤(公所)²⁴⁾이고, 전주교구 측에서는 국내 교구와는 별도로 아르헨티나 지역에 파견된 소속 신부가 현지 한인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목활동을 전개하는 재아(在阿)본당인 셈이다. 작금의 위치는 강우석의 해석처럼 한인 신자들의 신실함과 사회경제적 기여로 인해 까삐샤의 위치이지만 이글레시아의 지위로 인정받은 것일 수도, 남동민의 설명처럼 이글레시아의 이름만 가졌지 사실 여전히 닫힌 공동체로서 까삐샤의 지위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주어진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종교적 맥락 안에서 ISC의 실재를 구축해온 것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도모해나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성원들 자신의 몫인 것이다.

소속은 보장되나 그 어느 쪽에서도 성원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형국은 아르헨티나 사회와 모국 사이에서 한인들이 자리한 디아스포라의 위치, 그리고 그곳에서 공고히 해가는 중간인으로서의 정체화 과정과 닮아있다. 이중의 소속이라는 상황에서 양쪽 교구 모두에게 ISC는 관여하기 어려운 제3의 지대에 놓여있는 셈으로, 그 결과 교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껏 부재한 상태이며 교회 조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대내외 교류와 소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민 초기에는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종족종교공동체로서의 독립을 위해 이같은 구조 상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안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공동체가 정착기에 접어든 현재에 와서 성원들은 그들 스스로의 폐쇄성을 당면 문제의 더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성원들이 구성하는 종

22) 자료 출처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교회,” <http://dictionary.catholic.or.kr/dictionary.asp?name1=%B1%B3%C8%B8> (2016. 3. 20 접속)

- 아르헨티나 카톨릭정보원(Agencia Informativa Católica Argentina), “Iglesia en la Argentina (아르헨티나 소재 교회),” <http://www.aica.org/guia> (2016. 3. 20 접속)

23) 카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단위교회로, 지역단위교회인 교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본당,”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m=1229&keyword=%BA%BB%B4%E7&gubun=01> (2016. 3. 20 접속)

24)公所(公所 / 까삐샤, capilla):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를 의미하지만, 교우들의 모임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公所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가 집전되지 못하고 대신에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참례를 보거나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을 통해서만 성사(聖事)가 집행된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公所,”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m=4267&keyword=%B0%F8%BC%D2&gubun=01> (2016. 3. 20 접속)

교성과 신앙실천이라는 행위성의 차원에서 ISC를 보자면, 이 곳에서는 남동민의 표현처럼 성원들 스스로 '닫힌 교회'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2. 한인 카톨릭, 그 성원됨의 의미와 실제

앞서 현재 ISC가 '닫힌 교회'로 존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아르헨티나와 한국, 카톨릭계의 구조와 체계 차원에서 짚어보았다면, 이후의 논의는 보다 내밀한 ISC 내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이들은 왜 계속하여 닫힌 공동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온전한 성원됨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기대들이 공유되며 이들의 종교적 실천을 서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인이자 카톨릭이라는 디아스포라 위치의 실체에 보다 근접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1) 닫힌 교회의 생산: 차별화의 논리와 소속의 정치

현재 비한인 신자가 부재한 ISC에서 종교전례와 관련 활동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의 전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인 개신교회에서 이민 2-3세와 원주민들을 위해 까스떼샤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ISC에서는 이같은 서비스가 부재하며, 한국어가 서툰 2-3세를 위해 토요일 청년부미사와 한글학교, 교리수업에서만 부분적으로 까스떼샤노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ISC의 활동은 모두 교회의 본당과 한맘 광장(식당 등 부속건물 포함)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상시 출입이 자유로운 원주민 교회와 달리 ISC 건물 출입구는 보안상의 문제로 청원경찰이 배치된 미사 전후시간 이외에는 항상 잠겨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현재까지 외부 부에노스아이레스 카톨릭 사회와의 공식적·정기적 교류는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소속 본당인 메다자 밀라그로사에 성금을 지원하고 한인 선교사 파견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목위원회 및 각종 단체장 등 주축 성원들은 이민 1-1.5세대

들로 1970-80년대 이주시기의 한국적 정서나 문화,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보통 새로운 세대나 사회적 흐름의 변화들을 지양하고 '한국인다운' 전통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주임사제 남동민의 표현처럼 '달힌 교회'라는 표상은 성원들 스스로 자인하는 ISC의 대표적 특징이다. '달힌 교회'는 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원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원주민 사회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의지가 부재한 ISC의 공동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달힌 교회'를 양산한 데는 양국 사회와 카톨릭계의 구조적·사회적 배경이 있었지만, 달힌 상태를 지속해나가는 성원들의 내적 동기와 행위성에 주목한다면 이는 외부사회로부터 주어진 구조와 관계 속에 갇힌 상태로서만이 아니라, 성원들 스스로 생산해낸 주체적 실천양식으로 볼 수 있다. ISC라는 사회적 장에서 사회관계는 기존 권력들에 의해 구조화되지만, 그 장의 경계들은 유동적인 것으로, 장 자체는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경쟁에 뛰어드는 참여자들에 의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Levitt and Schiller 2004: 603). 따라서 현지 한인사회와 카톨릭 사회 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카톨릭'이라는 지점으로 수렴되는 성원들의 기대와 기획들을 포착해야만 ISC 내·외부의 사회 구조와 관계들이 이 장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이들이 그려가는 경계의 실재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1) 아르헨티나 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양가적 기대

ISC 성원 개개인이 카톨릭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모태신앙인이나 영적 체험과 같은 신앙적 요인에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권유, 이민사회 적응, 일련의 사건 및 깨달음 등 신앙 외적 요인들까지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른 종교공동체가 아닌 한인 카톨릭으로 살아가는 이유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단서가 포착된다.

[박계월 마리아-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30년사, p.66]

- 박계월: 백구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1967년 4월이었어요. 영주권 없고 낯선 나라라 외롭고 말도 안통해 답답하던 차에 가까운 현지인 성당을 나갔더니만 몇몇 한국인 교우가 미사를 보더라구요. 그 성당이 꼬보 성당이이었어요. 그들은 외로우니까 서로 자기 집 가자고 끌었어요.

[강우석 제리노, 70대, 의류업 외, 1971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1년 카톨릭입문]

- **강우석:**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카톨릭이 아니었어. 성당 다녀본 적도 없고. 아무래도 이민 오면 소속되고 의지할 데가 필요하지. 이민생활 적응하는 데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카톨릭 국가에 왔으니까. 이 나라 방식을 따르고 여기에 맞춰 살려고 선택한 거야. 만약 미국처럼 개신교가 많은 나라로 이민 갔으면 또 그 쪽을 따라갔겠지. 그리고 (개신)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자유롭고 편해보여서. 편안한 그런 게 있어.

[이진숙 디아나, 40대, 의류업 준비 중, 2012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입문]

- **이진숙:** 처음에 말도 안 되고 다 낯설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민 오면 교민사회에서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고민하는데 어딜 갈지 모르겠더라. 그때는 성당 다닐 때도 아닌데 답답하면 가다가 보이는 아무 성당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고 그랬어. 어디나 성당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말이 안 돼도 사람들 안에 섞여서 편하게 인사도 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거기 섞여있는 기분.

1960년대를 증언한 박계월과 1970년대의 강우석, 2010년대를 증언한 이진숙은 모두 카톨릭 교회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위안과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편안함’은 한인 이주민과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장,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공통된 감각으로 서사된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은 달랐을지라도 이 세 지점을 연결함으로써 이들을 편안함의 감각으로 인도하는 것은 소속됨의 경험과 확인이었다.

ISC 성원들에게 “왜 ISC의 일원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대다수의 응답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들에게 ‘편안함’이란 감각은 종교적으로나 종족적 혹은 문화적으로만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가늠할 수 없는 신실함의 척도 대신 공동체의 성원된 자격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실제적이며 감정적인 동일시와도 같다. 여기에서 실제적이라함은 강우석의 사례처럼 카톨릭이 아르헨티나의 국교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원권의 연장 차원에서 이민 이후에 카톨릭으로 입문 또는 개종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신분과 그 법적 근거로 카톨릭 ‘교적(敎籍)’을 획득함으로써 실제의 종교 성원권을 담보하게 된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런 가하면 이진숙처럼 카톨릭교회가 거리마다 자리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으로 들어가 일상에서 현지사회로부터 타자화된 자신이 그 속에 섞여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경험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 차원에서도 거주사회 성원됨에 익숙해지는 과정

이면서, 나아가 종교적 감각과 확신으로까지 발전된다. 박계월의 경우는 언어와 생김새, 생활습관까지 유사한 한인 카톨릭들에게서 확인하는 동질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종교에의 공동체적 향유와 참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서 부재했던 온전한 성원됨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들 모두에게 '편안함'의 감각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서툰 이민생활에서 체류 신분이나 언어능력과 같은 자격요건의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를 통해 현지 사회에 적응하며 진입하는 공통분모로 작용한다. 나아가 불안정한 디아스포라의 위치로부터 일상에서 늘 타자화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대다수의 원주민들과 같은 종교적 일상을 공유하고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경험은 서로 간의 차이가 무화되는 공통된 소속의 감각과 같다.

디아스포라들이 종교공동체를 찾는 주요한 동기는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일치됨(communio)에의 갈망에서 연유하며,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종교적 교리뿐만 아니라 보편적 정신과 공동체의 느낌이다(Dumont 2003: 370). ISC 성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낯설고 소외된 환경에서 카톨릭으로, 그리고 한인 카톨릭공동체로 일치됨을 서사하는 단초는 보통 이같은 공동체의 느낌, 소속의 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소속의 감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한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변화하는 것으로서 정체성은 존재상태(being)와 존재화(becoming), 소속됨(belonging)과 소속되고자 하는(longing to belong) 기대들이 복합된 양상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에 대한 각 개인의 서사는 이러한 다중성을 내포한다(Levitt and Schiller 2004; Nira 2006). 정체성이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성원인지에 대해 답하는 서사들이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부착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무언가에 속하고자 하는' 기대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Probyn 1996; Fortier 2000, Nira 2006에서 재인용).

카톨릭이 국교이므로 이에 귀의했다는 명시적 설명에서뿐만 아니라, '카톨릭 국가 아르헨티나'라는 종교적이며 세속적인 세계로의 진입을 유인한 '편안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 또한 ISC 성원들의 정체성의 서사라는 점에서, 현재 ISC에는 아르헨티나 및 현지 카톨릭 사회로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종종 다른 한인 종교공동체와의 비교에서 아르헨티나 사회 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내보이는 자신감, 카톨릭 국가에서 여타 종교가 아닌 카톨릭공동체 성원이기에 갖는 그것은 이들의 소속 의지와 인정에 대한 기대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ISC는 아르헨티나와 현지 카톨릭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성원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닫힌 공동체의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 초국가적인 사회적 장에서 개개인은 존재의 방식과 소속의 방식들을 특정 맥락에 따라 달리하여 구사하는데, 여기에서 소속됨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사되는 것이기에 일방으로의 완전한 통합이 아닌 관계의 동시성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초지역적 경험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Levitt and Schiller 2004). ISC의 폐쇄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민사회에서,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종교는 곧 사회이고 사회는 다시 종교라는 부분집합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성원들의 반복된 진술과 그 의미의 해석에 주목해본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아직 주류사회 진입장벽은 너무 높아요. 원주민들이 배타적이다보니 결국 더 원주민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제는 서로 차별하는... 교민사회에서는 사회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다보니 문제들이 많아요. 같은 이민사회라도 미국과 달리 특히 아르헨티나 교민사회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것에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온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열등의식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초반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다보니 (교민사회)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변화나 새로움을 밀어내는 경향이 많죠.

(중략)

한국 성당은 너무 옛 것을 고집하는데, 좋은 측면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감투, 과시하는 것 같은, 안 좋은 것들. 아무래도 교민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종교가 결국 사회자체라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카톨릭 자체의 피라밋 구조가 한인성당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걸 유지하려는... 새로운 생각, 믿음을 공유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과 나눔’이 막힌 것이 이 곳 이민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먼저 한인사회 외부로 시야를 확장시켜 보면, 카톨릭 신분은 한인들의 사회적 불안정성을 상쇄할 대안적 성원권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능해왔다. 하지만 도성란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원주민 사회의 배타성은 결국 독자적인 한인공동체로의 ISC 독립을 추동하였다. 한편, 교회가 닫혀있게 된 배경으로 한인들이 사회

경제적 성취와 함께 스스로 외부 사회와 거리두기를 위한 내부의 배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녀가 말하는 거리는 유럽계 백인 중심의 주류 원주민사회와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의 이주민 및 저소득층 원주민 사회라는 두 방향으로 가늠된다. 전자의 경우 이에 소속되고자 하는 ISC 성원들의 통합 욕구와 함께, 그간의 차별적 경험과 아르헨티나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통합에 대한 양가적 욕구가 투영되는 관계이자 거리이다. 반면, 후자는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 주체로 담론화되는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한인들과는 고용-피고용인, 점주-불법노점상 등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입지에서 대립하는 이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비통합적 욕구로 강하게 드러나는 관계이며 거리이다.

한편 공동체 내부적으로 보면, ISC는 종교적·문화적 가치와 질서를 공유하는 종족종교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공한 중간상인 소수자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중간인으로 머무르며 서로의 공통된 이해관계에서 해법을 도모해가는 이익공동체이기도 하다. 결국 ISC라는 소속지점은 성원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속하면서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긍정하고 스스로 온전한 성원됨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과 비통합의 양가적 기대가 수렴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원들의 문화적·사회적 기대는 ISC가 한인 카톨릭만의 닫힌 교회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할 때 오롯히 유지되고 실현될 수 있는 셈이다.

(2) 분리된 세계, '그들만의 리그' 내부의 권력관계와 질서

성원들은 또한 내부적으로 ISC가 가진 폐쇄성의 근본적 원인을 현지 한인사회에서 종교와 사회의 밀착된 관계로부터 찾아내고 있다. 짧은 이주역사, 이주지속성 등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주맥락에서 한인들 간 신뢰부재는 종교를 통해 믿음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이라는 대안 공동체의 확산을 가져왔다. 각 종교공동체는 교민사회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사회적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종교 외부의 기대들도 자연스럽게 공동체 내부로 유입되면서, 교회는 사회적 연대 및 권력 결합의 장으로도 역할하게 된다. 사업장과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ISC의 구역모임과 함께,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성원권의 총위가 달라지는 몇몇 내부 단체

들은 종교를 통해 사업과 친목활동을 통합하며 단체 내외부의 권력관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한편 카톨릭의 권위체계를 빌어 한국식 가부장적 권위구조 또한 ISC에 재현되는데, 이는 가족 및 친족 구도가 공동체의 질서를 잠식하며 불평등한 관계들을 종교적·사회적으로 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디아나, 40대, 의류업 준비 중, 2012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입문]

- **이진숙:** 주말은 온 가족이 성당에 총출동하는 거. 여기서 친척들 다 만나. 애들이나 청년부는 활동이 다 토요일에 있는데, 어차피 애들 데려다주러 와야 하니까 어른들도 온김에 다른 활동도 하고. 일요일엔 다같이 미사보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 놀고, 어른들은 기도모임을 하던 친목모임을 하던... 그리고 오후에 회장님 부부처럼 성당 테니스회에 가고 골프하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끝나고 성당 와서 회식 겸 저녁 먹고 나면 주말 다 가는 거지. 나는 뭘 좀 해보고 싶어도 여기 시댁 식구들 다 나와있는 데다가 한 다리만 건너면 “아이고, 누구 아들이네, 누구 며느리네.” 하니까 어렵고 조심스러워. 자모회를 들어가볼까 했더니 거의 뭐 친목단체같은... 딱 필요한 봉사만 하고 싶은데 들어가야 막내라고 심부름이나 하지 뭐 의견 하나 내기 어렵겠더라.

학습과 오락 공간이 희소한 한인사회에서 주말의 교회는 종교적·사회적 관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 가족들이 참여하여 친족·친교집단과 같은 사적 관계들까지 아우러지는 총체적 집합으로서의 사회를 재현하는 장이 된다. 따라서 ISC 내에서 성원 각각은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친족 및 사회관계와 질서들이 혼합된 관계망에서의 역할들로부터 위치지워지게 된다. 친족관계와 더불어 친구나 지인의 부모형제와 같이 성원 대부분이 실제 또는 유사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카톨릭의 대부모(代父母)제도 또한 이같은 유사 혈연관계의 확장에 일조한다. 그리고 가족경영식 사업구조가 보편적인 이곳에서는 친·인척 관계구조와 질서가 사회적 관계의 그것들과 상당 부분 교차된다. 따라서 1-1.5세대를 가장으로 하는 현재 한인 가정의 가부장적 질서는 공고히 유지되고, 이는 연령과 젠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성원 간 권력 불균형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무리없이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부로 닫힌 교회에서 권위를 유지하려는 이들은 기존 권력구조와 질서의 변화를 원치 않으며, 아르헨티나 이민사회에서 중간인으로서 관망하는 삶에 익숙한

이들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도 현재의 안정된 판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안 공동체가 희소한 한인사회의 종교공동체에서 자칫 판을 잘못 읽거나 주류에 반하는 질서를 택하게 될 경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민생활 전반에 있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개신교회 장로였던 C는 이같은 경험으로 인해 오랜 기간 헌신했던 교회와 지인들을 떠나면서, 인간적 신뢰와 사업적 성취 모두에 있어 큰 타격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술회하였다. 최근 지인의 권유로 새로이 카톨릭에 입문하여 교민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업과 신앙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지난 경험의 상처로 현재 ISC 활동에서는 자신의 소리를 죽이며 드러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좀 더 관망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종교와 사회가 겹쳐지는 한인사회에서 ISC가 달린 교회로, 변화가 부재한 공동체로 생산·유지되는 현상은 기존의 권력 관계가 종교공동체 내부로 확장되는 측면과 함께, 공동체 내부 활동이 한인사회에서 이민생활 전반에 미칠 효과에 대한 인식과 견제가 맞물리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이는 권력구조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위 주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성원들 또한 기존 체제에 순응하며 변화와 불안정한 상황들에 개입되기를 원치 않고,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 중심이 이동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2-3세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한인사회 내부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2) 한인 카톨릭: 종교를 통한 이중적 소속 전략의 구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ISC 성원들의 소속에 대한 양가적 욕구와 이중적 실천전략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성원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카톨릭의 특수한 맥락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었다. 먼저 실제 사회적 성원권의 차원에서 보면, 본격적인 아르헨티나 한인 이주가 시작된 1970년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은 아르헨티나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또는 이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당한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진입하고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 많다. 이들 중 다수는 애초에 미국 등 제 3국을 목적지로 삼았기에 법적 체류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지에 머물다가 정착하게 된 경우로, ISC 성원들 중에서도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쳐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의 위치에 놓인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은 사업과 생활이 안정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양이나 문화적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 지위로부터 그들 스스로도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됨을 자신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 하에 국교가 카톨릭인 아르헨티나에서 ISC 성원 개인별로 확보한 종교인의 신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한국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ISC의 지위는 종교법 상으로나 일상적 경험과 감각의 차원에서나 아르헨티나 사회 성원으로서 이들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대안 기제로 역할하고 있다.

[조우재 베드로, 50대, 의사,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조우재:** 정식 허가없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집도 한 7년 걸려서 겨우 영주권을 받았죠. 특별 케이스로. 그때 중학교에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도꾸멘토(documento, 증명서)가 없으면 학교에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쉽게 나올 줄 알았던 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나오고, 기다리라고만 하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카톨릭 신자니까 혹시나 해서 카톨릭 학교를 찾아가 교장신부님께 사정했더니 같은 교인이라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졸업 때까지도 이 영주권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학교에선 언제 가져올 거냐고 재촉하고. 애는 졸업하고 진학해야 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결국 신부님이 직접 나를 데리고 이민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민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하니 내어주라고 담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민청장이 직접 허가서를 써서 사인을 해주고 그 덕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 영주권을 받게 되었죠.

(중략)

여기가 카톨릭 국가니까 카톨릭이라는 신분이 어찌되었던 인정되는 게 있어요. 심적으로도. 또 우리 성당도 신분이 확실한 거니까, 그만큼 기여도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카톨릭 국가니까 외모부터 다르고 차별받는 동양인이지만 그래도 같은 카톨릭이라는 데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사실 조우재의 경우는 카톨릭 신분의 특혜로써 가족 영주권이 허가된 특별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민 초창기부터 한인 카톨릭들은 원주민 사제들과의 교류를 통해 물질·심리적 지원을 받아왔다. 초창기 성원들은 ISC 본당 설립 관련으로뿐만 아니라, 현지 사제의 보증을 통해 카톨릭 관계기관에서 난민 장기 무이자 금융지원을 받아 한

국의 가족들을 초청해오기도 하였다. 이민생활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이를테면, 한 성원의 표현처럼 ‘여차하면 기대볼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신분으로 카톨릭이라는 대안적 성원권을 향유해왔다. 최근 한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민생활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대체로 한인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되며 종교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주 자격과 관련하여 불법성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까지도 ISC 내에서 카톨릭 성원권이 주는 소속감과 안정감은 조우재의 경험과 같은 서사들의 확장을 통해 이들에게 여전히 실재화된 감각으로 공유되고 있다.

한편 공동체로서 ISC는 성원들이 현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성원된 의무를 실천하는 창구이자 대리자이기도 하다. ISC 성원들 대부분이 의류업 현장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반면 보통 이들의 관계는 판매자와 고객,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한정될 뿐, 사업을 떠난 인간적인 교류와 소통으로까지 확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ISC 성원들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원주민 대상 구호품 지원과 헌금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이로써 사회적 기여와 연대への 기대를 충족해나간다.

그런가하면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카톨릭 사회에서 한인교회로서 ISC가 공유하는 문화적 상징과 의미, 사회적 질서는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의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신앙실천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로 부터 전체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에 소속되면서도 한인 카톨릭만의 경계 재설정과 거리두기가 정당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들의 이중적 소속 전략이 구현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된다.

<‘한국 성모상 현지 원주민 교회에 봉헌’ (2014년 5월 30일 필드노트 중)>

원주민 30여명, 한인 30여명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사에서 문한림 유배날 주교는 다음과 같이 강론한다. “성모는 가시는 곳마다 그 나라 특유의 의상을 입고 계시는데, 중남미에서는 인디오와 백인 혼혈의 모습을 하고 이 곳 전통의상을 입으신 과달루페 성모상을 모십니다. 저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서 공부했고, 같이 공부한 이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흑인 성모상을 늘 지니고 다니며 모시던 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문화적 표현방식은 달라도 믿음이란 같은 거죠.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은 다 같지만, 이렇게 문화적 표현이 다양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카톨릭이 세계적인 종교라는 보편성을 깨닫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한국 성모님이 여기 있게 되어 기쁘니

다. 이로써 두 교회, 한인과 아르헨티나 교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범세계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널리 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사진3) 성모방문성당(Parroquia Nuestra Señora de la Visitación) 한인 성모상 봉헌
미사 : 한인(왼쪽)과 원주민(오른쪽)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참석한다.



사진4) ISC에서 성모방문성당에 봉헌한 한인 성모상



사진5) 성모방문성당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루한(Lujan) 성모상

이처럼 각 국가나 지역별로 믿음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는 카톨릭 세계에서 ‘우리’의 경계는 범카톨릭, 아르헨티나 카톨릭, 한인 카톨릭 등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공존한다. 상기 사례처럼 성모 마리아는 모든 카톨릭의 어머니이지만, 그 표현방식은 한복을 입고 있는 한국 성모로도, 메스티소의 얼굴과 전통복장을 한 멕시코의 수호자 과달루페 성모로도, 아르헨티나 전통의상과 흰 피부의 모습을 한 루한 성모로도 재현된다.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에게 한국 성모는 카톨릭의 하나된 어머니로서의 본질은 ‘우리’의 경계 안에 있는 동일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투영된 어머니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그들’의 어머니라는 다른 경계 안에 위

치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한인들의 종교적 상징과 연행은 닫힌 교회의 질서와 함께 그 내부에 머물면서도, 외부 카톨릭 세계에서 '우리'와 '그들'의 경계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정당성을 담보하게 된다.

성원들은 ISC의 닫힌 경계를 한인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오롯히 보전하고 이를 종교적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설명한다. 한국 교계의 의례 기준과 관습, 언어, 한국에서 공수되는 강론과 도서자료 등 ISC 내의 모든 종교적 상징과 연행에서 한국의 그것들을 좇으며, 현지화예의 의지가 미미한 작금의 상황은 이들의 종교적 지향이 한국으로 향해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닫힌 교회는 종교를 통한 문화적 시민권의 적극적 실천이자, '차이'에 대한 현지 사회 및 교계와의 상호 인정을 의미한다. 문화적 시민권은 다름을 토대로 한 공동체와 공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소속의 감각과 성원권에 대한 기대가 문화적 또는 일상적 실천들로 구현되는 현장을 의미한다(Flores and Benmayor 1997). 아르헨티나 카톨릭 세계의 성원으로서 ISC는 그 안에서 문화적·종족적 차이를 존중받아 한인들이 온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소속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닫힌 교회를 생산·유지해왔다. 그리고 한인만을 위한 문화적 시민권의 추구는 원주민사회와 거리를 두고 닫힌 교회 안에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구들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신비화의 전략으로도 역할한다.

[서지훈 다니엘, 20대, 의류업, 1988년 아르헨티나 출생, 모태신앙인]

- **연구자:** 너는 말도 까스페샤노가 편하고 학교도 원주민 학교 다녔으면 그냥 원주민 성당 가는 게 편하지 않아?
- **서지훈:** 그게 어렸을 땐 원주민 애들이랑 한인애들이 학교에서 어울려 다니고 친하게 지내. 그런데 좀 크면서 서로 먹고 놀고 하는 수준이, 쓰는 수준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한국애들끼리, 수준맞는 애들끼리 모이는 게 더 편해져. 성당오는 것도 그렇고. 한국 친구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도 애들 토요일마다 미사 끝나고 모여서 밥 먹고 놀면 돈 꽤 들거든. 한국애들 중에도 집이 잘 못사는 애들은 그런 데 못 끼다가 점점 안나와. 어른들도 그래. 한인성당이라 하면 그래도 장사해서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어른들 모임 가면 더해. 그래서 (경제적 형편 상) 못 끼다가 안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쓰면서 맞춰 다닐만한 거야. 한인들 끼리도 이런 데 원주민들이랑 오고가고 하면... 그냥 한인들 끼리끼리가 편한거지.

ISC가 종교적 정당화의 논법으로 추구하는 다름 권리의 요체는 한인이라는 문화적

자질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서지훈의 경험처럼 ISC에서 함께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는 한인의 위치는 '웬만큼 먹고 살만한' 중산층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계층임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ISC를 닫힌 교회로 유지하고자 하는 양상은 1-1.5세대와 문화적으로 세대 차이를 느끼는 2-3세대들의 기대와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

기존에 ISC의 소속관계나 인사파견 절차 등의 문제로 아르헨티나와 한국 교계에서 이들의 종교적 지향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고 해도, 최근 여러 한인 사제들이 배출되고 활동하기 이전까지 ISC와 한인 카톨릭은 현지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드러내려 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 ISC에도 점차 '다름'과 자기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며 능동적으로 소속의 위치를 표명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상기 성모상 봉헌과 같이 단발적으로나마 현지의 한인 사제와 선교사를 통한 교류들이 물꼬를 트고 있으며, 원주민대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지 카톨릭계와의 교류는 '현금유통이 좋은' ISC의 재정지원 형태로 이루어질 뿐, 면대면 접촉 또는 프로그램 형태의 지속적 교류는 부재하다. 한인 카톨릭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제고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부사회와의 교류가 ISC라는 존재에 대한 증명과 상호 인정이라는 소극적 실천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원들 스스로가 닫힌 교회의 주요 원인으로 원주민 사회와의 거리두기를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처럼 ISC 성원들이 자신들만의 닫힌 교회에서 카톨릭으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권을 추구하면서도 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차별화된 이등시민인 한인 카톨릭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우는 전략은 동시성의 차원으로 구사하는 소속의 정치이며, 종교라는 판을 빌어 그들이 주조하는 중간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위치이기도 하다.

Ⅳ. 사회와 신앙의 불안정한 결합: 종족종교공동체의 신앙인

종교색이 강한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종교적 헌신은 소속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한인들은 특정 종교공동체로의 헌신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다른 집단 성원과 차별화된 자기 위치와 정체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수렴된 기대와 질서들로 통합된 것처럼 표상되는 집단 내부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기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분화된 양상들로 갈등하고 경합하며 소속의 정치는 계속된다. 공동체 내부적으로 소속의 정치는 성원권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특정한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의 서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합과 타협의 과정들로 전개된다(Nira 2006: 205).

ISC에서도 사회와 신앙, 세속적 가치와 영적 가치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성원들 간 불협화음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인 카톨릭이라는 중간인의 위치와 닫힌 교회는 외부사회에서 이등시민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점해온 이들이 온전한 성원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조한 디아스포라의 위치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회로서 ISC의 역할과 이에 대한 성원들의 기대는 종교공동체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신앙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회인’과 ‘신앙인’ 사이의 긴장은 여러 형태의 갈등 국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일상적인 종교활동을 통해 ISC를 구성하는 공동체적 질서와 각 개인의 상이한 기대들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라는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고 신앙의 심화를 추구하는 성원들이 교회의 세속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성원들과 겪는 갈등과 경합의 양상을 살펴본다. 신앙인의 위치에서 ISC 내부구조와 관계를 조명하려는 시도는 앞선 장들에서 한인 카톨릭의 디아스포라 위치와 성원권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공통의 정치적 기획에 다소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회인’ 쪽으로 기운 관점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또한 비정치적 신실함을 추구하는 신앙영역은 소속의 정치에 배치된 각자의 기획이 어긋나는 지점들을 보다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다수가 만족할만한 ‘온전함’이 또 다른 소수의 ‘불완전한’ 위치를 낳게 되는 모순적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성원권의 속성이 유동적인 정치적 장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항상 ‘온전함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정치적 일상으로 소환된 신앙

카톨릭교회 ISC는 종족공동체이기 이전에 신앙의 연행과 실천들이 토대가 되는 종교공동체이다. 따라서 ISC에서는 '신앙으로서의 종교'로 '사회로서의 교회'를 품기 위한 공존방식이 모색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비신앙적인 기능과 활동을 종교적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이다. 반면, 신앙적 기대가 큰 성원들은 종교적 언어를 보다 세분하여 구사하며, 남들과 차별화하여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두 시도들은 '봉사'라는 종교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고, 성원들은 봉사의 의미와 활동 안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영적 또는 세속적 가치와 실천방식을 두고 경합하거나 타협하게 된다.

1) '봉사'를 둘러싼 평판게임: 정치적 경합과 신실함의 차별화 전략

ISC에서 성원됨의 미덕은 주로 종교적 실천을 의미하는 '봉사'에 대한 태도로부터 평가된다. '봉사'란 종교적 실천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공동체나 타인을 위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지원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민사회에서 종교적 입지에 대한 영향력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한인사회 반경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봉사는 사회적 연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주요 성원들은 교회 밖에서도 xx교회 장로님, 한인성당 oo회장님 등으로 불리며 각 종교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와 위세는 외부 한인사회에서도 공유된다. 교회 이외의 조직적 회합이나 공동체 활동이 희소한 이곳에서 교회는 대안적인 사회적 교류와 위세 경합의 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보통 교회의 빠듯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봉사로 명명되는 교회의 활동에 상당한 개인 자본과 시간 및 노동을 투자함으로써 ISC의 조력자로 역할하고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직을 맡을 만큼 투자 가능한 자원을 가진 성원들은 결국 교회 밖에서도 그만큼의 경제력과 사업기반을 확보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 내의 직위는 교회 외부의 사회적 권위와 상당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이 하청을 받거나 사업 연망 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주들이 다니는 교회로 물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교회 안팎 권력구조의 연관성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닌 실제 질서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사업이나 이민생활에서 조력자가 필요한 이들이 교회 밖에서는 접촉하기 어려웠던 ISC의 요직에 위치한 성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성원들에 대한 평가는 신실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인사회로까지 연장되는 교회 내의 평판은 단체장 등 직위를 통해 실제 권력으로 가시화되거나 해당 성원의 잠재적 영향력으로 축적된다.

그렇다고 성원 모두가 동일한 논리와 동기로부터 평판게임과 같은 정치적 경합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성원들은 종교생활에서 믿음의 깊이, 즉, 신실함을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평가할 수도, 스스로 가늠할 수도 없는 자질이며, 완결없이 지속적으로 심화시켜가는 것이다. 따라서 ISC에서는 보통 타인과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성원됨의 미덕과 신앙 함양에 대한 평가는 모두 공적영역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집중된다. 그리고 봉사에 할애하는 시간, 비용, 노동의 강도는 성원들의 종교적 헌신과 공동체 성원됨의 자질 및 ‘급(class)’을 평가하는 언어로 번역된다. 평판게임에서 벗어나 신앙의 심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봉사의 성격과 범주를 보다 세밀히 구분하며 자신의 신실함을 차별화한다. ISC 성원으로서 행하는 활동의 종교적 정당성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구분으로부터 가름된다. 기도, 노동, 교육 등 직접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이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신심활동단체와 사목회 등 주요 운영단체 성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신심활동단체 중에서도 공동체적 참여나 기여 없이 소수 성원들만의 회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로 평가되며, 공동체 성원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의 미덕에 대한 평판에서 논외의 대상이 된다. 그런가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 실천 외에 위세 획득과 같은 세속적 목적성을 보이는 이들, 즉 정치성의 유무에 따라 신앙인으로서의 평가는 그 해석방식을 달리한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교회에서 감투는 봉사직이지만 지금 여기에선 사회 권력이나 같아요. 교회가 곧 사회이다보니 감투 쓰는 분들 경제적 기반, 학력같은 것에만 치중되고 신앙의 깊이는 상관없다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인공동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분들의 경제력이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꼭 종교적으로가 아니어도. 사목회장 하면 거의 사비가 5천 만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누구는 원한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다보니 신앙의 깊이와는 별도로 정치적이던지 권력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게 있다 해도 그런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게 있죠.

도성란처럼 참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성원들은 사목위원과 같이 봉사직인 동시에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직위들을 공동체내의 헌신이라는 가치로만 평가한다. 종족공동체로 역할하는 교회에서 감투를 쓴 성원들 또한 표면상으로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정된다. 그러나 내밀한 이야기에서 이들의 권력욕과 정치적 경합은 신앙인의 미덕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욕없이 봉사로서 신앙을 실천하는 성원들과는 다른 뉘앙스로 회자된다. 그리고 봉사의 정치적 목적 유무는 신실함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평가방식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감투를 쓰고 나서 태도가 거만하고 고압적으로 변했다는 식의 몇몇 인사에 대한 공통된 평판 외에, 기실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하며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묘연하다. 다만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정치성의 흔적을 털어내려는 시도는 ISC 성원들이 세속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참신앙인으로서 신실함을 차별화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실함이라는 신앙적 진정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세속적 기대와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온전히 비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빈자(貧者)들을 위한 비정치적 신앙실천을 표방하는 물리적(노동) 봉사단체 BB회 사례는 ISC의 정치적 역할 속에서 결국 그 누구도 비정치적 신앙인으로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여긴 그냥 한 마디로 거지부대지. BB회 자체가 친목 성격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 물자적인 거나 지원하고 하는 단체니까, 사업 때문에 인맥 쌓는다가거나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다른 데로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젊은 사람들 또 힘든 일 안하려고 하니까. 여긴 다 그냥저냥 먹고살만하고 욕심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정말 봉사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자기 방식으로 (신앙을)실천하는... 기도 봉사도 있고,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잘 맞는 사람들이라 기도는 각자 하는 거고.

ISC 사목회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BB회의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박영도는 사업과 이민생활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인맥, 경제력을 바탕으로 ISC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뒤로 하고, 각자의 경제적·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봉사를 하기 위해 BB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참신앙인적 진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먹고 살만

한', '욕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회원들의 자평은 자신들이 사회적 욕망을 종교 내로 엮어드는 여타의 성원들과는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차별화된 자질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교회의 열린 공간에서 전개되는 BB회의 활동은 봉사내용과 대상, 실천과정과 결과 모두가 단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ISC의 다양한 평판게임에 쉽게 연루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BB회는 ISC 성원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전 공동체를 대표하여 사회복지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 단체 외부성원들로부터 인정과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형편이 어려운 ISC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김치나눔과 원주민 대상 구호품 전달은 ISC의 유일한 정기 봉사활동이므로 BB회는 활동 규모와 범위, 성격에 있어 여타 단체와는 다른 대표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활동에는 사제단과 사목위원회를 비롯해 여타 비회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따르며 공공성이 강조되고, 전 공동체 차원에서 공유되는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해진다. 그렇다보니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정치에 얽히기를 거부하는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교회 내의 세속적 기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활동과 평판에 개입된다.

[동세훈 비오, 40대, 의류업,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입문]

- **동세훈:** CC회처럼 더 사회적인 단체들도 가봤는데 비슷한 포래다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요. 성경 낭독같은 기본적인 종교 활동이 있지만 대부분 술자리가 많은데 교류는 활발하지 않고. 다른 단체들은 사업이 잘되고 돈이 많은지, 뽕이 있는지 이런 걸로 대우가 달라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요. 그래서 BB회가 편해요. 여기는 다 어른들이니 나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거든. 그리고 이분들은 신앙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사업이나 여기 생활 경험도 많고 진심으로 충고해주거든요. 밖에선 여기를 돈 없고 뭐 없으니 몸(노동)으로 때우는, 꾀발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재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진짜 봉사하러, 할 일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예요. 보면 다른 데보다 잘 살거나 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래도 여기 분들이 제일 착하고 믿을만한 분들이예요. 그렇다고 목적없이 교회다니는 사람은 없죠. 종교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게 다 연결되는 거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BB회에 대한 평가는 단체 내부적으로는 사심없는 신앙인의 미덕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만 역할하게 되는 봉사자들과라고 평가기도 한

다. 이 같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회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BB회 또한 CC회와 같은 '사회적인' 단체들과 함께 ISC의 정치적 위계구조의 '곶발없는' 한 지점에 놓여 평가 받게 된다. 그리고 동세훈 역시 각 단체와 성원들의 면모, 자신의 입지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 BB회 가입을 결정한다.

연구자와 함께 2013년 영세를 받았던 동세훈은 자신이 ISC에 들어온 배경에는 사업을 위한 정보와 인맥을 확보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밝혀왔다. BB회 이전엔 그가 거쳤던 CC회는 ISC에서 소위 제일 잘 나가는, 이를테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능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덜 신앙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단체로 평가된다. ISC의 성원권을 획득하고 사업전선에 막 뛰어든 신참자들은 보통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바로 CC회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별도의 '뺨' 없이는 동세훈처럼 단체 내부의 차별적 성원권과 위계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에서부터 배제되기 십상이다. 사회적 성격이 강한 단체일수록 이해관계에 기반하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달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참자들 중 일부는 성원권의 인정이 용이하고 자신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적 기반과 성원권의 위치를 다져나갈 수 있는 기지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다. 여기에서 비정치성을 표방하며 '가진 게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BB회는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활동이 공동체에서 대표성과 가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ISC의 견고한 위계구조와 정치적 경합의 장으로부터 소외당한 신참자에게 매력요인을 갖춘 대안이 된다.

한편, 고된 노동으로 인해 젊은 일손이 부족한 BB회의 상황은 이들의 활동에 사회적 평가 외에도 신앙의 색을 더함으로써 평판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동세훈은 BB회에서 대가없는 노동을 꺼리는 여타의 젊은이들과는 다른 비정치적 신앙인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어필하면서 신참자의 종교적·사회적 열세를 만회해나갔다. 그의 전략은 연장자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배타적이며 상호견제가 심한 동년배 사이에서 얻을 수 없는 인맥과 정보를 확보하면서 공동체에서의 입지와 평판을 다져가는데 주효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축약된 사회인 ISC에서 BB회와 같은 이들이 추구하는 비정치적 신앙 영역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분히 정치적 고려 하에 위치 지워지거나 이용되며 '순수한' 비정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BB회의 비정치적 신앙실천은 정기 봉사활동인 김치나눔을 통해 전면적으로 ISC 내 정치적 경합의 장에 연루된다.

〈‘BB회 김치 담그는 날(AMICAL²⁵⁾지원 김치 추가)’ (2014년 6월 28일 필드노트 중)〉

화기애애했던 평소와 달리 오늘 작업 분위기가 꽤나 싸하다. 다음 주에 있을 AMICAL 행사 지원을 위해 평소 2배 가량의 김치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작업량 탓으로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터였다. 평소 교회 내 음식을 주로 맡아온 단체들과의 협의와 업무 분장 없이, 또 회원들의 동의없이 김치작업이 할당된 데 대해 불만어린 소리들이 적잖이 터져나온다. "아니, 김치도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회장단이나 위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은 우릴 무시하는 건지... 봉사야 하는 거지만 몇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세워 단체 활동을 맘대로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란 거야." "그동안 김치 때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솔쩍 친하다고 부탁하고 받는 사람들이나 받을 분이 아닌데 수녀님이 그냥 이름 넣으라는 거나.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성당 전체로나 그렇게 자기 이름값 하려고 그럼 안되지. 그럴 때면 진짜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가 싶어서 하기 싫고 맥 빠져."

김치나눔은 BB회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 온 것이었다. 활동이 안정되어가자 이는 공동체 차원의 복지사업이 부재하였던 ISC에서 대표 봉사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자발적 신앙실천으로 시작된 활동은 여타 성원들에게 점차 당연한 BB회의 역할로 인식되어 갔다. 상기 AMICAL 행사처럼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할 때면, 사제단과 회장단 등 권력자들은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부탁이나 순화된 지시의 형태로 이들에게 관련 작업을 요구하였다. 작업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으로 BB회 임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평회원들에게는 이후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으로만 협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원진과 평회원들 사이에도 오랜 갈등이 묵어 있었다.

회원들은 평소에 ISC의 정치판에서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신앙 실천에 집중하고 봉사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크게 갈등이 생길 일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이들이 단체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는 정치적 활동에 이용할 때면 이처럼 ‘곶밭’에 따라 단체 내외부에서 성원들의 입장이 나뉘며 내재된 갈등이 분출된다. 갈

25) AMICAL(Asociacion de Misioneros Catolicos Coreanos de America Latina, 라틴아메리카 한국선교사회):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한인 카톨릭 선교사들의 조직으로, 라틴아메리카 선교지역 중 한 국가를 택해 매년 한 차례씩 정기 회합을 가짐.

등은 작업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성과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각 사안별로 작업성과는 ISC와 BB회의 권력자들 개개인의 능력과 공로로서 평가되지만, 단체로서 BB회는 하던 대로 김치봉사를 통해 신앙 실천을 한 것으로만 비춰지며 성과는 개별 성원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작금의 불만은 결국 ISC의 권력구조에서 ‘꽃발이 없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존재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자기인식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회원들 내부적으로는 비정치성과 신실함의 가치를 우선하며 외부에서도 봉사의 진정성과 공동체적 기여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ISC의 평판게임에서 이들 스스로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2) 교회 담장을 벗어난 신앙과 정치: 범카톨릭 세계에 재현된 일상의 경계

BB회처럼 신앙적 기대가 큰 성원들 중 다수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ISC의 세속적 룰에 구속받지 않는 외부로 시선을 확장시키며 독자적으로 활동영역을 개척하려고 시도한다. 닫힌 교회 ISC에서 담장 밖으로 진출하는 것은 온전히 종교적 대의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신실함의 주요한 단서로 설명된다. 개인 차원의 외부 활동이 보통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별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BB회의 봉사는 단체 자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 참여를 통해 점차 ISC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자리잡아왔다. 현지 카톨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개인 차원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온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BB회가 대신하고 있기에, 여타 성원들은 담장을 나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간섭없이 그들의 실천을 존중하고 지지를 보인다. ISC에 소속된 개인들은 이같은 직·간접적 지지로써 BB회의 성과를 '우리 한인성당'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공동체의 것으로 공유한다. 그리고 BB회의 활동을 한인 카톨릭의 공동체적 기여로 아우름으로써 전체 ISC와 성원 개개인은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에 가지는 부담을 덜게 된다.

[강우석 제리노, 70대, 의류업 외, 1971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1년 카톨릭입문]

- **강우석:** 단체들 중에서 BB회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지. 왜 거지부대라고들 부르잖아. 김치도 만들고 하면서 그만큼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참신앙을 실천한다는 게 필요하지만 쉬운 게 아닌데, 그만큼 욕심없이 신앙적으로 열

심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드물어. 여기서 힘 자랑이나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아니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 중 누가 그 위험한 빈민촌에 가려고 하나. 그리고 거기서 봉사해봐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BB회에서 하는 봉사들은 우리 한인성당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일이야. 여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느니 차라리 혼자 병원이나 원주민 성당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성원들의 활동반경인 한인사회를 넘어서 사업적 이해관계와 일상의 정치적 경합에 관계없는 원주민 사회와 교류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은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는 세속적 욕구와 대별되어 이들의 신앙적 진정성을 차별화하는 논리로 이야기된다. 손익계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한인사회 밖 활동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빈민촌과 병원 등 지에서의 활동은 일 자체가 고되고 현장 역시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많기 때문에 신실함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신앙 실천으로 평가된다.

BB회의 대외 봉사는 교회에서 옷가지나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모집하여 연 2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빈민촌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매년 10월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행사인 '루한 청년도보순례(La Peregrinación Juvenil a Pie a Lujan)' 참여를 제외하면, 구호품 전달은 교회 차원에서 원주민 사회와 교류하는 유일한 대외활동이다. 물품은 한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인근의 XX와 YY, 북부의 ZZ 세 지역으로 전달되는데, 원거리에 있는 ZZ의 경우 화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근의 두 지역은 회원들이 직접 현지로 물품을 운반하여 관계자에 전달한다. XX와 YY는 타 지역의 원주민이나 인근 국가 이주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로 진입하기 위해, 또는 진입과 정착에 실패하여 거주하며 형성된 빈민촌으로, ISC와 교류하는 한인 수녀 각각 한 명씩 해당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ISC 성원들의 일상과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인식되어 기피해야할 지역으로 회자된다. 따라서 본 활동은 ISC의 일상과는 요원한 장외 활동으로 성원들의 관심이 높지 않으며, ISC 내부의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상황은 봉사의 신앙적 진정성을 담보한다.

그런가하면 김치봉사 때와는 달리, 원주민 대상 봉사에 대한 ISC 내부의 갈등들 또한 BB회 신앙 실천의 진정성과 대외 활동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빈민촌 봉사도 말들이 많아. 왜 한인성당에서 한인을 도와야지 원주민을 돕느냐고. 그런데 아무리 형편이 안좋아도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좋은 이불 깨끗이 빨아서 갖다드려도 "내가 거지냐?"면서 쓰던 거라고 기분 나빠해, 새 것 아니면 받지도 않고. 옷은 입고 다니면 서로 누가 주고받은 건지 다 알게 되고. 사실 그 만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던 거지. 한인들 뭐 잘들 살잖아. 아무리 힘들다 해도 굶고 못입는 게 아니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지. 여기 빈민촌 원주민들 보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게 말도 못해. XX나 YY 수녀님들 계신 데 가보면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구나 싶어 느끼는 게 많아. 우리도 이민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옷장사 해서는 돈도 꽤 벌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게 다 이 나라에서 여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해 먹고살게 된 건데 그 고마움을 왜들 모르는지. 그냥 '우리(한인)'밖에 몰라. 잘 풀리게 해주신 (하느님)은 헤에도 늘 감사해야 하지만, 이 나라랑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결국은 다 같은 카톨릭이고 하느님 자녀인데...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풍족한 사람들이 작게라도 같이 나누는, 함께 사는 도리를 하는 거지.

ISC의 외부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보통 신앙실천의 영역을 한인사회로 한정짓는 성원들과의 이견에서 비롯된다.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반경과 그 안에서 맺는 관계들이 종교적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상 속 관계와 질서는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는 형편이나 봉사 물품의 수준을 두고 오가는 평가와 체면 경쟁은 빈자(貧者) 구제라는 BB회 설립목적에 반해 신앙의 본질을 더욱 왜곡시킨다. 따라서 이들의 비판은 BB회의 활동이 ISC 외부의 범카톨릭 세계로 확장될 때 오히려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반론의 근거가 된다.

박영도의 이야기에서 아르헨티나와 원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된 이웃의 범주는 범카톨릭 세계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깨달음, 즉 국가와 인종, 계급과 같은 차이를 초월한 믿음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구사된다(Levitt 2007: 85). 이들에게 카톨릭 세계는 성숙이 복합된 차원에서 한인과 원주민을 가르치는 일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 사회로 진출한 BB회는 ISC 내에서만 활동하는 이들과 달리 범카톨릭 세계의 시민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한국을 떠나 현재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범카톨릭 세계로서 아르헨티나 사회라는 세속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종교적 보은의 서사는 세속적 일상에서의 사회

적 의무로 재해석되어, 아르헨티나와 한인공동체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수혜자인 한인들이 실천해야 할 성원된 의무로써 이들의 외부 진출을 정당화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먹고 살만한 수준의 ISC 성원들을 지원하기보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부터 어려운 빈민촌 원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적 이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방어논리로 사용된다. 이처럼 BB회의 대외봉사를 두고 나타나는 내부 갈등은 그들의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세계관을 부각시키며 BB회의 대외 활동에 신앙의 무게를 더한다.

하지만 영적봉사활동이 기도와 같은 영적 매개를 통해 세속적 욕구와 기대들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신앙실천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과 달리, 노동이나 물자 지원 등 물리적 활동 기반의 봉사는 모두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일상적 관계와 기대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ISC 내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한인 카톨릭의 세속적 기대, 즉, 원주민 사회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자기 내면의 정치성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들 스스로 표방한 범카톨릭인으로서의 차별화된 세계관과 신앙적 진정성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BB회 빈민촌 구호품 전달 작업’ (2014년 6월 28일 필드노트 중)〉

오늘 YY에서는 구호품과 성금이 쓰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주민)과 자녀들을 위한 쉼터를 둘러보았다. 회장님이 이동 중 슬쩍 언질을 주신다. "현장을 보여준다는 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단 건데. 한인성당이 다른 데보다 여유있는 걸 아니까. 우리라고 넘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 상황은 회장님 예상대로 흘러갔다.

구호품은 페리아(feria, 시장)를 열어 판매하고 수익금은 쉼터 운영비로 사용된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당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수용여건 상 5-6달 후에는 쉼터를 떠나야하는데 일자리와 숙식 등 연계 지원이 없다보니 결국 다시 피해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일자리를 구해 독립하더라도 보통 빈민촌 인근의 생활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시원찮은 데다, 가해자가 찾아내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주민 수녀님은 한인들이 까삐딸(Capital, 수도)에서 옷가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원이나 가사도우미로 이들을 고용해준다면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신다. 한인들이 주정부도 못하는 일을 하게되는 것이라 덧붙이신다. 쉼터 분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회원들에게 쏠리고, 부회장님이 성당 분들 옷가게나 음식점에서 일손이 부족하므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하자, 다른 분들이 슬쩍 웃자락을 잡아끌며 제지하신다. 쉼터 측에서는 제안을 매우 반가워했지만 회원들은 썩 편치않은 표정이다. 상황을 살피던 한 바라과이 여성이 자신은 까삐딸에서 일해 본 적이 있다며 도꾸멘토(documento, 신분

증명서)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니 신원에 대해선 걱정 말라고 말한다. 성당 분들은 그래도 일해 본 사람이라 뭘 안다며 멋쩍은 웃음으로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그간 구호품 봉사에서 BB회의 역할은 물품모집과 포장, 배송까지로 한정되었다. 안 전문제로 회원들이 빈민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물품은 마을 입구에서 한인 수녀의 감독 하에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교회와 선교사 숙소로 보관하였다. 지금까지 BB회에서도 직접 원주민들과 접촉한 적이 없고 세부 활동내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현지에서 물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몇 년간 YY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해오면서 회원들은 이 날 처음으로 자신들의 봉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막연하게 'YY 빈민촌'에서 '어렵게 사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실제로는 회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던 간접적이지만 이상적으로 상상된 종교적 연행이 각자의 사회적 입지와 사연을 가진 채 현실에 존재하는 쉼터 여성들과의 대면을 통해 일상의 시공간에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같은 실제 대면을 통해 BB회 봉사에서 신앙적 기대를 가진 공여자와 일상적 기대를 가진 수혜자 간 입장차가 확인된다. 중산층의 한인 공여자는 물품만을 지원하는 봉사로 신앙 실천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빈민촌 거주민인 수혜자는 이 신앙적 관계가 취업 알선과 고용이라는 일상적 관계로 확장되길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BB회의 지원이 쉼터 운영과 피해자 구제에 요긴하게 역할하면서, 당면과제는 사회정의와 인권 수호라는 종교적 이슈에서 이주민 여성의 사회진입과 적응이라는 사회복지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소에 대한 기대는 BB회와 ISC의 한인사회로 이어진다. 향후 이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까지 확장된 지원들이 필요한 실정에서 선교사들과 쉼터 측이 BB회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BB회에게 본 활동은 '이웃사랑'과 '나눔' 등 종교적 대의와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게 해 준 아르헨티나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봉사지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선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개되는, 일상과 분리된 다분히 종교적인 연행이다. 하지만 종교적 대의에 기반한 공여자의 이상적이며 막연한 신앙적 기대가 활동이 반복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수혜자 측에서는 활동이 지속성을 갖게 되면서 지원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대가 더 세밀

하게 확대되어 갔다. 쉼터와 선교사 측에서 한인들이 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기대하는 지점을 세밀화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에 회원들은 적잖이 당황하였다. 사실 회원들 대부분 의류업에 종사하는 업주이거나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나 신앙과 봉사라는 연행에 한정된 상호 역할을 기대했던 회원들은 상대측에서 일상의 위치와 관계에 대한 기대가 보이지 않음에 부담감을 표하면서 상호 간 거리를 명시한다. 그리고 원주민 및 인접국가 이주민과 관련된 이들의 일상 경험과 감각들이 소환되면서 아르헨티나와 한인사회로 소속 지점을 분리하는 '거리두기'의 논리가 방어기제로 재등장한다.

[정진성 제르비노, 50대, 의류업, 1980년대 이주, 재이주경험자, 1980년대 카톨릭입문]

- 정진성: 자꾸 이러면 곤란한데... 다 돕고 살아야하는데 해주면 좋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필요한 물건들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정도.

사실 우리도 이민 와서 남의 땅이니 쉽지 않아. 여기서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고 골치아픈 건데, 애들 도꾸멘토도 네그로(negro,검정)랑 블랑코(blanco,흰색)가 있는데 취업 되는 게 블랑코. 일 잘하니까 블랑코 가진 볼리비아 애들을 많이 써. 그게 또 사람을 봐 가면서 써야지. 여기 노동법이 말도 안되게 업주들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서 블랑코들이 신원은 확실한데 대신 부당하고 소송, 이런 걸로 말썽이 많아. 그래서 네그로를싼 값에 쓰는데, 신분증 위조도 많고 불법이니까 뭘 훔쳐 도망가도 찾을 방법이 없어. 또 마스크에선 톡하면 불법이다 뭐다해서 한인들이만 이렇다저렇다 해하니 항상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원주민들 안쓰고 믿을 수 있는 가족들끼리 다 장사에 붙는 거지. 그냥 봉사는 봉사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만큼 하는, 괜히 좋은 마음으로 다른 식으로 엮이면 있던 관계나 활동까지 잘못될 수 있다고. 대신 어려운 거 알았으니까 좀 더 필요한 물건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걸 더 돕는 걸로.

카톨릭으로서 행하던 종교 연행에서 일상 관계로의 확장은 BB회와 쉼터 성원들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 '한인과 여타 이주민', '원주민 사회와 한인사회'와 같은 일상의 차별화된 위치와 경계로 분리하며 대립시킨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사회적 위상·고용·신변 안전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안전담론은 한인으로서 ISC와 외부 사회를 분리시키는 당위성의 논리로 인용된다. 상대방이 BB회와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한인의 그것으로 대하는 이상 디아스포라 위치와 그 안에서 공유되는 특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의 관계는 봉사의 공여자와 수혜자, 고용인과 피고용인만의 관계를 넘어 아르헨티나 사회의 타자로서 이주민의 위치에서 연결된 다양한 맥락들에서 환기된다.

BB회에서 한인사회 외부인을 '원주민'으로, 대외 봉사를 '원주민 대상' 활동으로 일
 반화했던 이전과 달리, 아르헨티나인과 이주민, 합법적 노동자격 유무, 출신국별 이주
 민 유형 등 세밀화된 범주들은 '중간상인 한인'으로서 BB회와 ISC가 '불법성'에 연루
 되지 않기 위해 씬터 이주민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된다. 보
 통 장사하는 사람 중 한두 건 이상 소송에 걸려있지 않은 이들이 없다 할만큼 피고용
 인 우선의 아르헨티나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한인들이 인접국 이주민들과의
 고용관계에서 불법적 상황들에 복잡하게 얽혀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이주민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에 사업적 거래 외에 한인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이들은
 주로 여타 국가 이주민들이며,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이들은 불법성을 담지한 신
 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된다. 한편, 현재의 고용문제 외에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타자로서 한인의 위치는 불법성과 관련된 과거의 위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인들은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마다 불법고용과 저임금 노
 동착취라는 명으로 원주민사회와 이주민 노동자 모두로부터 전방위적 압박과 차별에
 시달린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페루와 파라과이 등지 출신 불법노
 점상 만떼로(mantero)의 급증으로 한인을 비롯한 원주민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현
 지 마스크는 선의의 피해자로 한인 의류상들을 이미지화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
 원됨을 지지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인다. 하지만 BB회 회원들은 지금의 상황 또한 이
 전처럼 위기상황에서 원주민들은 뒤로 빠진 채 한인을 내세워 다른 이주민들의 분노
 가 분출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기획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범카톨릭적으로 확장된 세계관을 통해 교회 외부로 진출한 BB회 회원들
 의 종교적 지형도는 여전히 국가, 종족, 계급의 세속적 기준들로 구획된다. 외부와 관
 계를 맺는 방식 또한 범카톨릭 세계의 성원으로서가 아닌, ISC의 다른 성원들과 같이
 '우리' 식의 거리두기와 제한된 관계들로 한정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타자로
 서 회원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이주민 또는 소수종족이라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현
 실적 어려움'이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웃과의 나눔'을 실
 천해야 할 능력을 가진 공여자로서 가지는 신앙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양해된다.
 또한 종교적 장에서 정치성과 일상성을 배제한 신실함의 논리를 표방해왔던 이들에게
 외부의 일상적 요구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거절한다 해도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에 해가 됨 없이 내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아르헨티나 사회의 타자이자 중간인으로서 한인들이 원주민들과도, 여타 이주민들과도 깊이 연루되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작금의 기대들을 대변한다. 그리고 그 거리는 BB회와 쉼터 사람들 사이가 신앙적 관계에서 일상적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 그대로 이들 사이에 재현된다. 결국 ISC는 성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소속의 정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장이자 공동의 세속적 기대가 수렴된 지점이다. 평소 한인으로 구성된 교회 내부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교회의 담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인을 자처하는 성원 개개인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성을 담지한 주체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 신앙 자원 VS. 문화 자원 : 언어와 세대 간 권력관계

앞서 1절에서는 교회 내부의 정치적 경합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갖는 스스로의 정치성으로 인해 신실함을 추구하는 성원들의 기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ISC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사업기반을 가진 이민 1-1.5세대 사이에서는 주로 사회로서 닫힌 교회가 이들의 신앙실천 과정에 개입되며 빛는 갈등이 두드러진다. 반면, 2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신앙의 심화 자체만을 두고도 언어와 문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양상이 이전 세대에서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1) 언어 환경과 신앙 : 한인 2-3세의 신앙언어와 한국어

현재 ISC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모든 종교 의례와 관련 활동은 까스떼냐노 서비스 없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 1-1.5세대가 주요 성원으로 활동해 온 최근까지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서 점해온 지위는 종교와 일상영역에서 견고히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도가 더 높은 이민 2-3세의 성장과 함께, 자녀세대 언어의 자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종족공동체와 신앙공동체로서 ISC에 대한 성원들의 엇갈린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유혜선 요안나, 50대, 의류업, 1987년 이주, 모태신앙인 / 조우재 베드로, 50대, 의사,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0년대 카톨릭입문]

- 유혜선 : 애들 한글 이해도가 떨어져서 까스페샤노가 필요해. 미사 때도 애들이랑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 집에서 한국어를 쓴다 해도 용어나 이해의 차원이 성당에서 쓰는 거나 실제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어.
- 조우재: 성당에서 한국적인 걸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다 한국말로 하면 애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교육의 질도 떨어져요. 첫 영성체 후에 교리를 배우는데 기간이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요. 교리수업을 신부님, 수녀님이 한국말로 하시는데 아이들이 100% 이해 못하고. 교사나 사제들이 이중언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세례 때 한국어 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외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말로만 해선 안돼요. 기도문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교리-적용-생활'의 과정을 통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2중언어 시스템이 필요해요.
- 유혜선 : 물론 한글교육은 필요해. 교포들한테는 현지 언어와 한국말에 대한 당연한 기대가 있어. 한국말 못하면 취업도 어렵고. 여기서도 나라별로 'xx계'이냐고 묻는다고.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한국어, 한국문화, 한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현지 출신들과는 갭이 많아. 이곳에서 살려면 여기에 적응하고 상황들을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한국어, 까스페샤노, 미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커질 거야.

ISC 한글학교에서 한인 2-3세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유혜선과 조우재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해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현저히 상승된 것을 일선에서 체감한다고 말한다. 이들 모두 문화자원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동조하지만, 현재 2-3세들의 이해 및 소통능력의 한계로부터 한국어가 이들에게 신앙의 발전 측면에서 온전히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 모두 ISC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종교공동체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사제와 수녀, 영적봉사단체 등 내적 믿음으로써 신앙의 발전을 지향하는 성원들의 기대를 대변하고 있다.

믿음의 심화를 추구하는 성원들은 종교심과 신앙심을 구분하며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성란(50대, 이민 1.5세대)은 종교심과 신앙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교심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신의 유무에 대한 태도로 그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고, 신앙심은 유일한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며 찬미하는 마음과 실천이에요. 독실

하다는 건 신앙심이 깊은 걸 말하는 거죠." 종교심은 모든 종교에 입문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고자 하는 의지(will to believe)'와 같으며(Mauss 1972: 117), 신앙심은 외재하는 종교적 상징과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려는 의지와 같다. 카톨릭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성서)'의 체화를 통해 삶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믿음을 심화해가는 것이고, 언어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 도구이자 믿음의 결과로서 역할한다. 이를테면, 신앙 학습과 체화의 과정은 익숙하고 친밀한 매개기체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외재하는 '말씀'은 학습을 통해 지식·정보로 획득되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내화된다. 여기서 언어는 중층적 기제로 신앙의 내면화를 위한 학습과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서사와 증언은 신앙에 대한 확신의 증거이며 체화된 신앙 그 자체이다(Luhrmann 2012).

ISC에서 믿음이 심화되는 과정 또한 주로 언어와 소통의 매커니즘으로 이해된다. 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나 의심을 지울 수 없던 믿음의 실체,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계기는 삶의 위기에서 기도를 통해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체험들이 주를 이룬다.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이나 전율을 통해 신의 존재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게 된 것 또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신앙 체험과 믿음 그 자체는 신과의 소통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공동체 성원으로서는 ISC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앞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교리-기도-생활'의 일치를 강조하는 이들은 믿음을 키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믿음을 확신하는 계기는 다양하더라도 늘 마음을 열고 신과 소통하며 일상만사를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다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며 실천하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이같은 언어적 소통의 매커니즘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수된다.

ISC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이해도나 심리적 부담 차원에서 놀이와 이야기 등 가벼운 방식 외에 별다른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이때부터 교리수업을 시작하며 신앙언어와 소통방식을 학습·훈련하고, 독립적 신앙주체로서 성장하는 준비과정을 밟아가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일상예절과 같던 의례, 놀이의 장과 같던 교회는 일정 시점

에서 진지한 학습과 성찰을 위한 종교적 장으로 전환된다. 아이들은 제도적 훈련을 통해 신과 소통하며, 삶의 진리로서 '말씀'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법을 터득한다 (Luhmann 2012). 이로써 초자연적 세계를 자신의 일상 속에 실재하는 현실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종교인에서 참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셈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과정에서 2-3세들이 숙달하지 못한 한국어가 단지 학습 언어로, 그리고 외재하는 '말씀'의 존재 형태(언어)로만 도구적으로 역할하게 된다. 한국어는 이들에게 온전한 이해와 체화의 과정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신앙언어로 내화되지 못한 채 제 3의 지대에서 부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ISC는 한글학교, 교리수업, 청소년부 미사 및 성가대 연습 등 개별단체 활동으로 평상시 상황과 주객이 전도되며,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주로 이민 2-3세)의 장'으로 전환된다. 아이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글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5시까지 교리수업이나 특별활동(간단한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시 반 청소년부 미사에 참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소속단체의 개별활동에 참여한다. 정규 활동 시간 이외의 대화는 대부분 까스떼샤노로 이루어지고, 1-1.5 세대인 한글학교 교사 또는 교리수업의 사제나 수녀와의 대화에서 간헐적으로 한국어가 사용된다. 수업을 기다리며 활발하게 까스떼샤노로 웃고 떠들며 대화하던 아이들은 수업 시작과 함께 표정에서부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업 환경 자체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가 구성되며 진지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어만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으로의 전환, 언어적 맥락의 변화는 교사로 있는 어른들과 동등하거나 그들보다 우월한 까스떼샤노 화자·청자(communicator)의 위치에 있던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해 열등한 위치에 놓이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초등부 한글학교 수업 지도’ (2013년 10월 5일 필드노트 중)>

한글날을 앞둔 토요일, 초등부 4-5학년 아이들과 한글 또는 한국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수업을 가졌다. 쉬는 시간에 가장 말이 많고 장난기 넘치던 한 아이에게 물었다. “싼띠(Santi)! 이거 멋있다. 뭘 그린 거예요?” “...” 아이가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같은 질문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 “선생님, 신티 한국말 잘 못해요.”라며 한 아이가 그 역시 부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설명을 한다. “호...” “싼띠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대답한다. “¿Qué pintaste(뭘 그린거야)?”라고 까스떼샤노로 묻자 신티는 “호떡 좋아. 좋아해요.”라고 대답하고는 “¡Hablas²⁶⁾ castellano(까스떼샤노 하네)!!”라고 연구자에게 외치며 다시 수업 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수다스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와 함께 숨죽이

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Ana, Anal!"라고 연구자를 친구처럼 부르고 잡아끌며 존칭표현이 아닌 동격의 2인칭 동사들 가득한 까스페샤노로 왈자하게 떠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잠시 후, “자, 한글학교 수업이니까 우리 한국말만 쓰는 거예요!”라는 연구자의 중재에 모두 책상에 고개를 박은 채 몇몇 아이들만 서툴지만 깉듯한 한국어로 대답하는 엄숙한 분위기로 돌아간다.

위 상황에서 연구자는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구도에서 아이들이 연구자를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연구자에게 까스페샤노로 수업시간에 못한 말과 농담을 던지며 보이는 친밀한 모습을 통해 불식되었다. 한글학교의 수업 분위기와 아이들의 참여도는 교리수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교리수업은 수업 내용과 어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탓에 아이들의 이해나 참여도가 훨씬 더 저조한 편이다.

수업이라는 상황을 벗어나면, 본당에서 청소년부 미사에 앞서 교리수업 교사들이 까스페샤노로 아이들을 주목시키고 흥미를 유발한다. 하지만 미사 직전에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 제대에 오르는 순간, 교사들 또한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무대는 다시 의례의 장으로 전환된다. 한국에서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된 사제의 집전 하에 제대 아래의 아이들은 일상언어와 다른 신앙언어인 한국어로 진행되는 엄숙한 미사전례에 참여하게 되고, 이 시간에 아이들과 사제 사이에 언어적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강론 중 사제가 던지는 농담에 반응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건 아이들이 아닌 연구자와 몇몇 부모들뿐이었다. 미사가 끝나고 성스러운 공간인 본당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다시 까스페샤노로 이야기 나누며 본연의 자신감에 찬 모습을 되찾는다.

위 장면들은 언어능력 면에서 한국어가 신앙의 내화를 위한 자기 언어로서 갖는 한계를 가늠케한다. 아이들의 한국어는 간단한 단어로 겨우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부터 일상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의례와 격식을 갖추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교회의 어휘와 방식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6) 까스페샤노에서 상대를 존대할 때는 3인칭형 대명사 ‘당신(usted)’을 사용하며, ‘말하다(hablar)’의 동사형 또한 주어에 맞춰 3인칭형인 ‘habla’를 사용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글학교 교사로 분한 연구자에게 한국어로는 ‘선생님’ ‘~해요’와 같은 존댓말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까스페샤노로는 ‘너(tu)’라는 2인칭 동격 대명사에 해당하는 동사형태 ‘hablas’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까스페샤노가 제 1언어인 아이들에게 한국어 일변도의 종교적 장만을 제공한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체화없이 참된 믿음으로 신앙심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종교심만 가진 채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ISC 내 한인 2-3세들의 한국어 사용현황을 보면,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의례어와 격식어로 존재하는 한국어의 사용 맥락과 이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의 이민 2-3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미사전례와 신앙활동, 한글학교 및 교리수업과 같이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활동들이다. 이같은 환경 하에서 이들은 격식과 예를 갖추며 엄숙한 태도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제, 교사, 연장자 등 상대와 대별되는 피권위자의 지위에 위치한다. 보통 또래나 부모와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는 까스페샤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국어로 하는 일상대화 또한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대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 반면, 한국어와 달리 연령과 권위에 따른 언어표현²⁷⁾과 태도의 격식변화가 덜한 까스페샤노 사용환경으로부터 체득된 의사소통방식은 보다 격의 없는 평등한 대화주체들 사이의 그것에 가깝다. 따라서 까스페샤노에서 한국어로 언어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언어능력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권력관계의 재현 또는 전환의 차원으로 맥락이 확장된다. 이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자원으로서 한국어가 장애가 되는 심리적 장벽을 구성한다.

한인 2-3세들이 한국어를 신앙의 학습과 체화를 위한 자기언어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피권위자의 위치에서 의례어와 격식어로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편안함'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큰 장애가 된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신앙은 어렵기만 해서도, 의무만 있거나 뭘 가르치고 강요해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 아버지는 전능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성모님을 찾잖아. 성모님은 엄마처럼 자상하고 따뜻한, 우리가 투정 부리거나 아버지한테 직접 하기 어려운 부탁을 대신 전해주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지켜야 할 말씀이나 교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부담없이 편해야지. 그런데 말부터 막히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벌써 벽이 생기지. 불편한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기도를 한다던지 하면 그게 잘 안돼.

27) 까스페샤노에서도 3인칭 높임형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들은 종종 2인칭 동격 표현들로 대체된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신실한 단계는 신앙을 일상의 삶 속으로 끌어오거나 일상을 신앙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애들한테는 까스떼샤노가 그래서 필요해.

ISC에서 언어와 관련하여 '편안함'을 이야기할 때, 문화자원으로서 한국어와 아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성원들은 언어는 획득해야 할 자원이자 기술로, 아이들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다분하다. 반면, 신앙자원으로서 까스떼샤노와 아이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원들은 언어는 신앙 체화의 매개이자 본질로, 아이들은 학습-체험-내화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세계를 열어가는 독자적 행위주체로 존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후자에서 언어는 그 사용에 있어 조력자들의 지원과는 별도로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세속적 일상과 무한한 영적 세계를 관통하여 개개인에게 하나의 소우주를 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친밀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2-3세들에게 그것은 한국어가 아닌 제 1언어로서 까스떼샤노여야 하는 것이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의 사목을 담당하는 보좌사제는 미사전례가 아이들의 이해나 상호작용이 부재한 채, 일방적인 설교와 의식으로만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해외사목 경험없이 ISC에 파견된 직후,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를 하는 게 당연하고, 교회도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던 그였다. 하지만 그는 2-3세를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해보니, 한국어가 신앙언어로 역할하지 못하고 일상언어와 신앙언어가 분리되어 아이들이 신앙을 일상과 분리된 차원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하였다. 그는 신앙언어로서 까스떼샤노 도입이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해외사목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제 파견에 앞서 현지어 교육 등 준비과정 또한 부실하기에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 전망한다.

2) 신앙과 권력으로서의 언어 : 공식언어로서 한국어와 1세대 권위의 강화

해외사목 경험이 풍부한 주임사제 남동민은 언어자원과 관련한 현 상황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언어교육에 대한 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에서 연유된 것임을 지적한다. ISC에서 신앙언어로서 한국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맥락은 단순히 세대 간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으로서 모국과 한국어가 가지는 위상과 함께 이로부터 세대 간 권력중심이 어디에 놓이는지와 관계된다.

[남동민 토마스, 60대, 주임사제, 2012년 부임, 미국 · 페루 사목 경력, 1975년 사제서품]

- 남동민: 그래도 나는 아마존에서 7년 사목한 경험이 있어서 스페인어가 되니까 까스페샤노 강론을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자모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일주일 중 5일을 원주민 학교 다니는 애들이다 보니까 하루만이라도 한국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요즘은 한국어를 해야 뭘 해도 유리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국어로만 하고 있지.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한국어 가르쳐야 한다하시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참으로 이해하려면 까스페샤노로 해야 한다는 말들도 많고.

언어자본을 두고 나타나는 갈등은 2-3세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1.5-2세대가 최근에 부모로서 발언권을 갖는 위치로 성장하면서, 상이한 기대들의 간극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한국문화와 한국어 학습을 통한 종족문화자원 획득에 대한 기대가 큰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1.5세대 이후 부모와 자녀세대들 사이에 까스페샤노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가정은 이전과 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그 기대는 각 교회와 교회 내 한글학교, ICA(Instituto Coreano Argentino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등 외부 기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ISC가 이제는 신앙공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또한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지 친화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는 부모들도 있다. 자녀들이 신앙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1세대 중심의 보수적인 한국 문화와 종교관은 앞으로 ISC의 주축이 될 2-3세대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 까스페샤노 서비스를 도입하고 원주민 교회와 같이 격식 없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앙활동을 다각화하여 2-3세대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원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심화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공동체 차원의 열린 태도와 변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닫힌 상태로 머물러있는 ISC에서 혁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반면, 주축 성원인 1-1.5세대들의 한국어와 한국식 종교문화 지향, 국내파 사제들의 한국식 사고는 종족문화자원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2세대 이후 이중언어 사용환경으로부터 일상언어와 신앙언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

면서, ISC에서 언어는 영적·일상적 소통의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권력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한 사회나 집단, 특히 이중 또는 다중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는 지배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결정되며 일련의 제도들을 통해 공고화되고, 이들 언어공동체에서 언어적 실천은 언어를 통해 집단의 권력관계를 재현하며 핵심 권력층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Bourdieu 1991). ISC에서 사목위원회 및 각 단체 임원진과 주요 성원은 한국어가 제 1언어인 이민 1-1.5세대의 50-60대 연령층으로, 공동체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들로부터 결정되며 핵심 권력 또한 이들에게 집중된다. 나이에 따라 위계를 가늠하는 한국식 문화와 함께 교민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부터, 카스페샤노가 제 1언어인 40대 미만의 2세 이상의 세대들은 ISC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2부 리그'로 위치하며 활동하게 된다. 사회로 역할하는 교회의 정치적 장에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1-1.5세대들에게는 일상언어와 신앙언어 사이의 간극없이 한국어가 온전히 두 영역을 통합하는 언어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인사회 내부로 닫혀있는 교회에서 한국어를 통한 1-1.5세대들의 지배구조는 견고하게 유지된다. 게다가 모국요인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기대와 만나는 접점을 통해 ISC에서 한국어는 계속하여 신앙언어로 교육되며 '정통성을 가진 언어(legitimate language)'로서 보다 공고화되고 이들 집단의 지배적인 위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언어실천과 관련하여 1-1.5세대가 주도하는 권력관계는 '정치색'을 덜어낸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교구에서 사제단을 파견하는 시스템이 이같은 권력구조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카톨릭 교회의 위계에서 사제단은 영적 지도자로서 신과 가까운 위치에서 인간계와 영적세계를 매개하며 평신도들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한국 교구에서 파견되는 ISC의 사제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식 카톨릭 문화를 실천하는 이들이기에, ISC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갖는 위상은 일상영역을 넘어 영적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 카톨릭 전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미사의 강론 또한 사제의 식견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내 정세와 이슈에 관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진다. 강론은 사제의 해석을 통해 '말씀'을 일상생활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하고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세대 간 신앙의 기회를 차별화한다. 강론시간이 1세대에게는 신앙의 기운 속에서 모국의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 이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은 세대에는 아르헨티나의 일상과 요원한 이야기들이 신앙과 삶의 일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제들은 해외 사목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파견되기 때문에 현지 실정과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 지도자로서나 의례 주관자로서 이들의 종교적 실천은 한국에서 해온 방식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 사제단처럼 까스페샤노 도입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3년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이들이 기존 공동체에 변화를 도모하기란 쉽지 않으며, 새로운 사제가 부임해오면 모든 상황은 이들에게 맞춰 다시 한국식으로 재정비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종교적 정통성을 담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능숙한 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제단을 지원하며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ISC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들 또한 주기적으로 신앙적 권위자로서 정당성을 갱신하게 된다.

영적 지도자와 보다 친밀한 거리에서 쌍방향적 관계를 통해 강화되는 이들의 권력은 영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속적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해외교포 사목의 특성 상 사제들은 각 공동체의 기존 분위기와 활동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게 되고, 현지 언어와 정세에 통달한 평신도들에게 의지하며 일정 수준의 권위를 이들에게 양도한다. ISC는 아르헨티나라는 지역 특성 상 사제들이 현지에 대한 이해와 언어 활용 면에 있어서 영어권보다 평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그 의존대상은 한국어와 한국식 사고로 소통 가능한 1-1.5세대이며, 이들의 입김은 공동체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사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몇 년 전 한 사제는 성당 재건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성원들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쫓겨나다시피 교체된 바 있다. 이처럼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나 세속적 차원 모두에서 한국어와 이에 대해 지배적인 권위를 가진 1-1.5세대들은 여전히 ISC의 핵심 권력층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앙자원으로서 까스페샤노의 도입을 이야기하는 성원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ISC의 대표언어로서 한국어의 정통성은 놓지 않으면서 까스페샤노의 부분적 지원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매커니즘으로 언어문제를 해석해보면, 사회와 신앙, 문화자원과 신앙자원에 대하여 상이한 기대를 가진 이들 사이의 갈등 이면에 권력을 둘러싼 세대 간 상호 역학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들이 공동체로서 ISC의 공식언어와 신앙주체로서 개별 성원의 신앙언어를 각각 다른 층위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언어 이외에도 공동체와 개별 성원 사이에 갈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사회로서의 교회와 어긋난 신앙주체로서의 개인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성원됨의 자질과 개별 성원의 입지를 둘러싼 집단과 개인 사이의 불협화음은 언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신앙주체로서 개별 성원들이 교회라는 사회의 질서와 부딪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의해 소외되는 신앙과 개인

ISC에서 신앙을 심화시켜가는 방식은 크게 기도와 성경강독 등 직접적으로 신과 소통하며 영성을 키우는 방식과 봉사활동으로부터 타인과의 관계 및 신앙실천을 통해 믿음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원들은 각자의 성향과 신앙인으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전자와 같은 영적 활동이나 후자의 물리적 활동 중 하나에 주력하기도 하고, 이 둘을 절충하여 나름의 신앙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사실 이는 사적인 신앙 영역이지만 이민사회 맥락에서 교회는 공동체 차원에서 각 개인에게 일련의 세속적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이 과정에 여러 방식으로 개입되면서 사회로서의 공동체와 신앙주체로서 개별 성원 사이에 갈등국면을 양산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신참자들이 심적 부담이 덜한 단체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신앙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카톨릭 교회의 특성 상, ISC는 성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여타 성원들과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을 공유하지 않고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꾸려가거나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이나 원주민 교회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용되면서 각자가 스스로의 신앙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부재한 ISC에서는 단체 활동에서 기존 성원들의 멘토링으로 이를 대체한다. 신참자들은 보통 예비자교육을 담당하는 수녀와 지인의 권유로 단체를 선택하고 이들로부터 신앙에 대해 학습해간다. 이 경우 흔히 각 성원의 성격과 신앙적 지향에 맞는 무언가를 제안하기보다 이들의 연령, 결혼여부 및 가족구성 상황 등에 따라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에 배치된다. 그렇다보니 성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 신앙의 색을 찾아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기대 사이에 간극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연구자와 같은 기수 영세자들의 경우 20-40대 연령층이 많았던 까닭에 담당수녀의 지도로 젊은 일손이 부족했던 BB회로 가입이 유도되었다. 이로 인해 타 단체들에서 향의가 있었는데, 본래 예비자 과정을 마치면 모든 단체에 대한 소개와 약식의 체험이 있고 이를 통해 영세자 스스로 각자에게 맞는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수순인데 이번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단체이던 젊은 연령대 인력 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BB회 활동에 동참하며 친분이 있던 담당수녀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예비자들을 BB회로 '빼돌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당시 영세자 중에는 영적 훈련을 위해 다른 단체에 가입하려 했으나 담당수녀의 지도에 의해 BB회 가입을 당연한 수순으로 오해하여 따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는 신앙의 심화과정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공동체와 각 단체 차원에서는 위 상황이 인력 수급과 확보 과정 상의 권력과 절차의 문제로 부각된 반면, 신앙주체로서 개인의 의지와 기대는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하다못해 당시 예비자들은 ISC에 어떤 소속단체들이 있으며, 각 단체의 성격과 활동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다. 당사자들은 특정 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앞서, 자신들이 ISC에서 개별적 신앙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영적 봉사와 물리적 봉사에 다양하게 참여해 왔던 도성란은 이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신앙 실천하는 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인성이나 여러 면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단체 소개도 없이 누가 다 끌고 가 버린, 잘못된 거죠. 원래 예비자과정에서 상담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지 조언도 해 줘야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럼 영세 후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떨어지는...

(중략)

여기는 (교회가)사회 역할을 하다보니 집단에 맞춰 개인이 그냥 따르라는 옛날 방식이 강해요. 교민사회에서 인맥이 중요하니까 이런 동기로 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동기가 우선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젖어들면서 신앙심이 커지게 되면, 각자 신앙 배경이 원래 다양한 거니까. 그런데 미국, 한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신앙생활을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어른들이 옛 것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개인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관계에만 치이고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쉽죠.

신앙적 기대가 큰 성원들도 교민사회의 특성 상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나 세속적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는 이들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신앙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봉사라는 공동체적 실천과 종교적 언어로 번역되면서, 사회로서의 교회에 기여하는 일반단체와 활동들이 신앙적 성격을 가진 신심활동단체의 그것들과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개인의 신앙영역 또한 공동체적 질서에 밀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서 교회는 공적이며 사회적 영역의 성격이 강화되고, 신앙적인 개인의 영역은 오히려 ‘좀 더 사적인’ 시공간으로 밀려나게 된다. ‘차가운’ 카톨릭교회 특성 상 영적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유인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이런 단체의 활동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참여자만의 연행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참자나 외부 성원들이 해당 단체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공동체 차원의 공개 활동이 많고 당장의 활동을 위해 다수 인력이 필요한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외부 성원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사업과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와 구역모임. 골프와 테니스회 등 사회적 성격의 회합들은 외부 성원들의 접근이 그나마 용이한 편에 해당된다.

김치봉사 등 비회원도 참여가능한 공개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BB회 외에 ISC에서 신참자와 외부자가 여타 단체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BB회 같은 단체 또한 신앙을 실천하고 심화시키는 임무를 가지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이 운영되다보니 공동체 차원의 임무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다분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활동 전후 기도와 같은 의례적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신참자를 위한 신앙 멘토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성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여타 지역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나름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기획하고 운영해간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신앙적 다양성 계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ISC에서 주어지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신참자나 새로이 신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따르게 되는 것 또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계산된 교회의 질서와 접근성이 좋은 신심활동단체나 비신앙적 활동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연스레 신앙과 개인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앞선 사례를 통해 BB회에 가입했던 이진숙(40대, 이민 1세대)도 스스로에게 맞는 단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 소외되는 ISC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하게 된다. 노동 중심의 BB회는 연령에 따른 수직적 상하관계와 가부장적이며 불평등한 남녀역할에 대한 압박이 강한 곳이었다. 이진숙은 개인의 신앙에 대한 존중 없이 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만 강조된 BB회의 활동과 인간관계가 자신의 성향과 신앙적 기대와 어긋나자 타 단체로 전향하고자 하였다. 그 즈음 청년부와 장년층 사이 연령대의 여성 신자들이 DD회라는 단체를 새롭게 발족하였다. DD회는 ISC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부재했던 연령대 여성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모색하면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었다. 이진숙은 DD회가 연령에서나 자신의 신앙적 지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단체에 가입하려 하였다. 하지만 출범 초기 가입요건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았던 DD회는 이진숙의 가입을 두고 회원의 연령 범위와 가입요건에 대해 고민하였고, 담당 수녀와 회원들 간 협의를 통해 결국 20-30대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여 40대 초반인 그녀의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다. 당시 가입을 불허한 주요 원인은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의 자녀를 둔 30-40대 여성들을 자모회로 유인토록 하는 교회의 지침 때문이었다.

DD회는 신심활동단체로서 신앙영역의 단체인 반면, 자모회는 신앙과는 별도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성격의 단체이다. 하지만 두 단체들은 사회와 신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연령과 혼인여부, 자녀유무 등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각 개인을 위치지우는 ISC의 질서에 따라 성원권의 범주를 확인(규정과 별도로 관례적 차원에서)한다. 여타의 단체들 또한 공식규정은 아닐지라도 이 같은 질서에 대한 암묵적 동조 하에, 신참자와 지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연구자가 각 단체에 회원가입을 문의할 때도 영적 봉사와 물리적 봉사 단체들 중 그 어느 곳도 본인의 성향과 신앙적 지향에 대해 물어온 곳이 없었다. 그리고 흔히 단체의 '연령대가 높거나 낮아서', 연구자가 '결혼을 안해서' 또는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거절의 변과 함께, '또래라서', '젊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등의 이유로 가입을 수락하였던 단체들로 가볼 것을 권유받았다.

카톨릭 예비자과정 동기이자 신참자라는 같은 상황에서도 각 성원들의 연령이나 이들이 가진 사회적 신분과 관계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기회마저 차별화한다. 예비자과정 중 이진숙을 포함하여 예비자 수업 외에 다른 활동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대부분의 동기들과 달리,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ISC의 제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본의 아니게 신실함의 측면에서 성원들에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영세 후 단체 가입과 본격적 신앙활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자, 장기 거주(예상)자, 사업 종사자 등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신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참여 기회는 차등화되었다.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타 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더불어 전례과정에서도 기혼자들에게는 성체봉헌²⁸⁾이라는 차등적 기회가 주어진다. 원주민 교회에서 성체봉헌은 연행자의 사회적 역할과 신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ISC에서 본 연행은 결혼한 부부들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진다. 많은 이들이 성체봉헌 시 설명하기 어려운 성스러운 느낌과 전율 같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기혼 부부가 아니고서는 다른 성원들이 가질 수 없는 주요한 신앙적 기회 중 하나가 된다. 자녀를 둔 기혼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착할 준비를 하던 이진숙은 DD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단기 체류자이며 미혼인 연구자에 비해 단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ISC의 활동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각자의 신앙적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성원이 교회에서 보다 많은 관계와 위치들로 엮여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28) 성체봉헌: 카톨릭 미사전례 중, 영성체(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연행)에 앞서 지정된 2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하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일정 거리를 걸어 제대 앞으로 나아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전달하는 연행.

하는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진숙의 경우처럼 교회라는 사회에서 주어진 선택지가 신앙주체로서 개인의 기대와 어긋날 때 그 기회는 무의미해진다.

그런가하면 소규모 신심활동단체의 입장에서 또한 사회로서의 ISC에 의해 신앙과 개인의 소외되는 상황들이 포착된다. 30대 전후의 이민 1.5세대가 주 성원인 EE회는 물질적 원조와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영적 봉사단체로, 주 1회 기도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일상에서 개별적으로 실천하면서 모임 시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ISC에 30대들의 조직적 모임이 부재하다 보니 단체의 신앙적 지향과 상관없이 교회는 EE회에 역시 비슷한 연령대 신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원기지로서의 임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보통 4명 내외의 회원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원없이 신참자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임무가 몇몇 회원에게 집중되고, 이들은 주 1회뿐인 회합에서조차 스스로의 신앙적 순간에 집중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한다. 또한 보통 신참자들은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인맥을 구하며 적을 둘 집단을 찾다가 교회 관계자의 권유로 EE회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적 활동 중심인 EE회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려워 그저 거쳐가는 지점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들도 이제는 공동체에서 부과된 임무에 형식적으로 응하며 신참자의 교회 밖 생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분리하려는 EE회의 성격이 그 둘이 통합된 종교관을 가진 교회 및 신참자들의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민사회에서 각자의 다른 기대들을 절충하고 타협하여 사회와 신앙이 통합된 종교에 대해 대부분의 성원들은 공감하지만, 좀 더 세밀히 들어가면 각 영역에 대한 인식과 활동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 사회와 신앙 사이에서 : 교회를 전유하는 방식의 세대차이

EE회의 사례에서 나타난 집단으로서의 교회와 개인의 갈등구도는 사실 신앙생활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상호 평가와도 많이 겹쳐진다. 현재 ISC의 주축세력인 50-60대의 1-1.5세들이 사회와 신앙이 통합된 종교관으로서 전자의 입장을 대변한

다면, 40대 이하의 이민 1.5세 이후의 성원들은 사회와 신앙의 각 영역을 존중하고 신앙주체로서 개인의 독자적 신앙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성원들은 보통 전자는 어른세대로, 후자는 젊은세대로 칭한다²⁹⁾. 사실 교민 교회의 특성상 어른뿐만 아니라 젊은세대도 사회와 신앙이 공존하는 종교관을 공유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는 성원들 스스로 사회와 분리되어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ISC를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 종교관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사회와 신앙 사이에서 교회를 전유하는 방식에서는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인다.

[강혜숙 테레사, 60대, 의류업, 1989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85년 카톨릭입문]

- 강혜숙: 요즘 젊은 사람들 성당에 열심히 나오지도 않아. 주말엔 놀러다니느라. 와서도 미사에 얼굴만 내비치고 사라지잖아. 어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미사 두 번씩 들어가는 분도 계셔. 여기저기 뭐 (도움)필요한 거 없나 다니면서. 나도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 항상 나와 있으려고 해. 가게 아니면 거의 여기 나와 있지. 성당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막상 필요할 때 보이는 건 어른들이지, 요즘 애들은 같이 어울리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들 돈 버느라,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엄고은 골라라, 30대, 의류업, 1984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90년 카톨릭입문]

- 엄고은: 여기는 우리 포래가 갈 데가 없어. 어른들 위주인 데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맞으니까 안가려 하고. 그런데 항상 필요한 때 찾는 건 우리야. 어른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만나가고 있으면서 막상 일은 우리가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어른들은 교회밖에 갈 데가 없는데 우리는 밖에서 할 일도, 갈 데도 많으니까 딱 여기서 미사보고 뭐 없으면 바로 나가. 친한 친구도 성당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미사랑 E회 모임 때만 있고 나머진 다 나가서 해. 여기서까지 막 먹고 놀면서 취하고 그런 건 좀... 사정이 있을 때는 동네에서 미사보고 놀러가거나 일 보러 갈 때도 있고. 여기서 안보니까 젊은 사람들 '신앙심이 없다, 성실하지 않다' 그러는데 아니거든. 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같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60대의 강혜숙이나 30대의 엄고은처럼 일상생활에서 성원들의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교회에 기반하는데, 어른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에 일상생활의 어느 선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기준과 활동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어른세대에게 신앙 외에 사회로서의 교회는 이 관계들을 기반으로 공동체 관련 봉사와 같은 공적 활동과 함께, 친목모임, 취미생활과 같은 사적 활동이 혼재되어 그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29) 이민 1.5세대는 이주시기와 연령대에 따라 '어른세대'에 속하기도, '젊은세대'에 속하기도 하므로 사례의 맥락에 따라 위치지우기로 한다.

동일한 시공간이다. 그렇다보니 일상생활의 제반 관계와 활동영역이 교차되며 교회 내로 집중된다. 이를테면 어른세대의 입장에서 각 활동의 성격을 떠나, 우선 자신들은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른세대가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며 신앙적 성실성으로까지 확장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젊은세대에서 신앙 외에 사회로서의 교회는 공적 활동에만 무게를 두고, 그 밖의 일상적·사적 활동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 젊은세대의 경우 사적 관계가 교회에서의 그것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신앙활동과 공동체에 관련한 공적 활동의 영역이며 시공간이고, 일상의 그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신앙과 공동체적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른세대에서 교회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양적' 참여도라면, 젊은세대에서 그 기준은 활동의 내용과 적합성에 대한 '질적' 참여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교회 내의 음주가무와 관련된 이슈이다. 보통 각 단체나 특별행사와 관련된 공적 봉사활동 뒤에는 교회의 다목적 공간에서 식사와 더불어 음주가무를 더한 뒷풀이가 따른다. 이것이 어른세대에게는 해당 활동의 연장인 셈이므로 여기 참여하지 않는 젊은세대 성원들은 공동체 활동에 불성실한 것으로, 젊은세대에게는 어른세대가 본 활동 이외에 교회의 시공간을 사적인 여흥의 장으로 부적절하게 전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히려 교회 안으로 일상 영역과 사적 활동들을 끌어오는, '교회에 나와서까지' 먹고 마시며 놀이의 장을 펼치는 어른들이야말로 젊은세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덜 성실한 성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어른세대가 교회를 여흥의 장과 같은 사적 공간으로 전유하게 된 데는 부에노스아 이레스 사회에 이들이 찾아 즐길만한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상황 배경이 있다. 단체별 주일 배식 준비와 같은 봉사활동은 늦은 저녁 시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인근에서 식사와 음주를 겸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ISC가 위치한 플로레스 한인촌 식당들은 치안문제로 보통 저녁 9시 전후로 영업을 종료하며, 한 인상이 밀집지역인 아베샤네다로 옮길 경우 이동 거리와 시간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한인 식당과 주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많은 수의 인원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재하다. 젊은세대의 경우 원주민 식당과 펍에서 간단히 먹고 즐기는 문화에 익숙하므로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다양한 편이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세대들은 주위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한국처럼'

먹고 마시며 놀 만한 곳이 없기에 그 영역까지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이는 젊은세대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는 바이기에 서로의 사고와 활동방식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해가 되고는 있으나, 젊은세대들이 어른세대 중심의 단체 활동을 불편해하며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위의 상황은 그나마 세대 간 활동이 분리되어 있어 큰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갈등국면은 이들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활동의 규칙을 가지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다.

[이진숙 디아나, 40대, 의류업 준비, 2012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 입문]

- **이진숙:** BB회에서 인간관계가 힘들기도 했고, 다른 단체도 경험하면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찾아보려고 자모회에 가봤어. 신앙을 키우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천천히... 지금 우리 애가 성당 오는 걸 너무 싫어해. 전부터 다니던 게 아니고 이민 와서 또래들이랑 어울릴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데리고 나왔거든. 그러다보니 종교적 반감만 더 커지는... 그래서 여기 생활 적응 좀 도와줄 수 있을까해서 자모회로 갔지.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거야. 일할 사람은 없고 어른들만 많더라. 예전에 학부모였던 어른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서도 안나가고. 지금 50~60대 초창기 멤버들이 아직도 핵심으로, '큰언니' 노릇을 하는... 내가 가니까 막 내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일도 안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만 많아.

(중략)

사실 자모회 핑계로 골프모임이지, 타이틀만 걸쳐두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지. 있어봐야 우리 애한테고 봉사고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뒀어.

여기 자모회에서 '큰 언니'로 통하는 어른세대 회원들은 단체 외부 성원들로부터 나름 교회 내에서 성실히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식사를 담당하거나 활동을 보조하고, 일손이 필요한 여타 활동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활동은 ISC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게 가시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왔다. 이진숙은 신심활동단체에서 활동하며 신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자녀가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모회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내부에서 경험한 바, 어른세대 성원들은 자모회의 회합에 자주 참여하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는 있었지만 이는 전혀 단체의 공동체적 성격이나 활동의 질과 무관한 사적활동의 성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모임 초창기부터 10-20여년 간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 온 어른세대 회원들에게 현재 자모회는 친목 중심의 골프모임에 다름없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자격 상으로 부적합한 50-60대의 어른세대 회원들은 진즉 자모회를 나갔어야 하지만, 교회에서 성원들과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골프모임을 운영하자면 회합의 형식적 명분이나 기회와 장소가 없으므로 여전히 이 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령에 따른 위계가 중시되는 한인 교회의 특성 상, 이들은 현재 정식 회원이 아님에도 '전관예우' 형식을 빌어 자모회의 각종 활동에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자모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일종의 관례적인 질서의 권위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작 적령기의 자녀를 두고 관련 봉사활동에 의지가 있는 젊은세대들의 활동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큰 언니' 역할을 하며 활동의 규칙을 만들고 지시하는 어른세대 회원들과의 공존은 그같은 방식이 익숙치 않은 젊은세대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젊은세대 부모들이 일의 효율성이나 아이들의 흥미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연장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현재 아이들 세대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세대로부터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회원 자격 문제와 함께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0-40대의 회원들은 '큰 언니' 세대 중심의 자모회 자체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봉사가 필요한 때에만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신앙과 공적 활동의 장으로 ISC에 참여하는 젊은세대에게 있어 친목모임과 같은 사적 활동을 위해 전유되는 지금의 자모회는 단체의 본 성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녀와 공동체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활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밖에 자신의 사적 영역이 확보된 이들은 굳이 친목 골프모임 성격의 자모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타 단체들의 활동은 회원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기에 단체와 맞지 않을 경우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젊은세대 회원들은 자녀의 교회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모회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거리두기 방식으로라도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민 1.5세

로 언어와 현지 생활 적응도가 높은 한 40대 성원은 몇 년 전 자모회 활동을 희망한 바 있으나, 골프를 치지 않으면 '어른들' 눈 밖에 나기 쉽고 회합에 어울리기 어렵다는 말에 가입을 포기하고 가끔 필요한 때마다 돕는 식으로 참여해왔다고 전한다. 그녀 또한 골프를 즐기지만 ISC의 골프회나 자모회에 참여할 필요 없이 외부의 다양한 기회들을 활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며 신앙과 일상생활을 분리시켜 왔다.

자모회뿐만 아니라 여타 신심활동단체들에서도 신앙생활과 실천 방식에 있어 어른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의 간극은 점점 확대되며 교회에서 세대별 활동영역과 시공간 자체를 분리시키고 있다. 오랜 이민생활로 교회 밖의 한인사회나 원주민 사회에서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1.5세대 이후 세대들은 자신의 가치기준이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어른세대의 질서에 맞추며 버텨내지도, 공동체의 주축인 그들의 판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젊은세대들은 한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활동하지는 않되, 관련 활동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참여하면서 ISC에서 상호 합의된 나름의 '변외 규칙'들을 통해 성원됨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현지조사 초반, 연구자는 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어른세대들이 '요즘 젊은세대는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신심 또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실제 각 단체의 회합에 참여해보면 20-40대 사이의 연령층은 소수에 불과했고,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젊은세대들은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어른세대와 달리 미사가 끝나면 대부분 바로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ISC와 각 단체들의 주요 연행에 많은 젊은세대들이 등장하여 낯은 일을 도맡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 신앙생활과 신앙의 실천방식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상호 평가 역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차별화의 맥락을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신실함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모회의 역할과는 별도로 단체 외부에서 내부의 개별 성원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자격요건이나 실제 활동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교회에 자주 나오며 오래 머무르는 어른세대에게 후하게 내려진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본받을만한 자모회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반면, 비가시적이지만 적재적소에서 단체 취지에 맞

는 역할을 수행하는 젊은세대는 공동체 성원으로나 신앙인으로서 또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와 신앙이 통합된 종교관 속에서 신실함에 대한 어른세대의 평가는 젊은세대의 그것처럼 활동의 성격과 질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질만큼 세밀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른세대가 주도하는 ISC의 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와 신앙,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재되어 투명한 규칙이나 질서 없이 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젊은세대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지향이 선명하고 신앙생활을 위한 일련의 기획이 확고한 이들의 경우 불투명한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서 자신의 기획과 어긋난 현실을 마주하며 소외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단체에 가입하기보다는 해당 활동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큰 언니들' 세계의 질서를 피해 자신의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꾸려가며 공동체 성원의 역할 또한 온당히 수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4장에서는 종교와 종족사회가 통합된 ISC라는 집단에서 신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자기와는 다른 세속적 기대와 성향을 가진 성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로서 교회와의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단체 활동을 둘러싼 내외부의 정치적 경합이나 집단의 질서에 신앙과 개인이 소외되는 상황, 신앙이자 권력으로서 언어가 내재한 모순이 세대 간 갈등으로 부각되는 국면들은 단일 종족종교공동체 ISC 내부가 사실 결코 단일하지 않은 영적·세속적 기대와 성원권의 자질들이 끊임없이 경합하는 디아스포라 위치에서의 사회적 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와 개인들에 축적된 갈등은 왜 더 이상 밖으로 크게 분출되거나 공동체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지금의 상태로 봉합되어 있는 원인을 진단해보고,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타개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들 나름의 종교적 실천방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한다.

V. 디아스포라적 신앙실천을 통한 성원권의 재구성

지속된 이주로 인한 삶의 유동성과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ISC 성원들은 법적 성원권과는 별도로 차별없이 연속성을 가진 성원권과 소속의 지점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성원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또는 신앙적 기대만을 좇아 ISC를 떠나지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회적·종교적으로 ‘온전한’ 성원권을 확보하면서 ‘달린 교회’에서 해소될 수 없는 기대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ISC와 각 성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중간인의 위치에서 종족과 종교,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종교적 해법을 구사한다. 그리고 이같은 해법들은 교회와 신앙 안에서 ISC만의 다양한 신앙실천 방식들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면서, 사회와 신앙,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소속됨과 차별화의 이중전략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구성된 한인 카톨릭 성원권을 보다 온전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1. 두 교회 다니기 : 사회적 성원권의 유지와 신앙적 갈등의 해소

1) 달린 교회, 열린 실천 : ISC와 원주민 교회 사이의 ‘이중생활’

ISC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교회 다니기’이다. 많은 성원들이 ISC에 교적을 두고 주요 카톨릭 의례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충족되지 못하는 신앙적 갈등과 애로사항은 다른 원주민 교회에 다니면서 해소한다. 여타 종교와 달리 카톨릭의 제도적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이처럼 소속과 활동의 분리를 가능케한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카톨릭 시스템과 전례 방식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의례의 연행과 관련 활동에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ISC와 원주민 교회를 오고 간다 해도 단절 없는 신앙생활의 통일성을 담보한다. 게다가, 원주민 교회에서는 한국 카톨릭과 같은 교적(敎籍)³⁰⁾제도 없이 세례증명서만으로 카톨릭 신분을 확인하며 성원들

30) 교적은 신자의 신앙생활 기록표로, 가족관계와 신앙명세 등 인적사항, 세례·견진·혼배 등의 성사관계, 신앙경력이 기록된다. 이는 한국 고유의 제도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작성 발행하며, 소속된 본당에서 가구주별로 작성되고, 세속의 호적과 같은 구실을 한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교적,”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dNum=324&keyword=%B1%B3%C0%FB&gubun=01> (2015. 3. 19 접속)

의 실제 활동과 참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적의 소속을 중시하는 한국 교회와 달리 카톨릭 외부자의 참여에 항상 열려있는 편이다. 또한, 한인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는 카톨릭의 태도는 ISC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해당 교회활동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양해하여 성원들의 '이중생활'을 가능케한다. ISC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이나 카스떼샤노 서비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원들이 원주민 교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 반경의 한인사회에서 실제의 성원권을 유지하면서 원주민 교회에서 신앙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기대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윤지연 마리아, 60대, 의류업, 1980년대 이주, 재이주경험자, 2013년 카톨릭입문]

- 윤지연 :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국가니까 어딜 가나 성당 천지인 데다가, 다 형제자매와 같은 거지. 이중생활이 된다는 거야. 하하. 자기가 맞는 데를 찾아다닐 수 있으니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진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 뭐 여기(ISC) 있다가 다른 데 갔다고 개신교처럼 뭐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 누가 어디를 갔네, 갈라져 나갔네 말들이, 이 좁은 교민사회에서 바로 영향이...

그런가하면 윤지연의 표현처럼 한인사회 내부의 성원권과 관련하여 카톨릭의 '이중생활'이 가능한 데 있어 주요한 키워드는 '배신'이다. 종교성이 짙은 한인사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종교공동체는 실제 성원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사회 영역과 다름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 혹은 여타 종교공동체로 옮겨간다는 것은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교세 경쟁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성원들의 종교적 이동 경로는 대내외적으로 주목된다. 교회 밖의 좁은 세계에서도 '배신'의 꼬리표는 상당 기간 해당 성원을 따라붙으며 이들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 신자였던 윤지연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교회 회계비리를 고발하였다가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히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속공동체에서 밀려났고, 그 여파로 사업 관계에 차질이 생겨 번창했던 사업체는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후 이들 가족에게는 신앙을 부정하고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사업과 사회생활을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인 공동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신교회로 수이 옮겨가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개신교회의 성원들이 이전 교회 관계망과 얽여있었다보니 이들 가족에게 늘 '배신'의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 가족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ISC로 오기까지에도 몇 년이 걸렸는데, 한인사회에서 ‘배신’의 멍에를 벗고 한동안 부정했던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같은 교파 내에서도 교회 간 성원권이 통용되지 않는 개신교나 불교와는 달리, 카톨릭의 단일한 성원권은 위와 같은 한인사회 맥락에서도 ISC 성원들의 유연한 신앙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ISC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한인 카톨릭 교회인데다, 원주민 사회와의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내부 성원 간에도 소통과 변화가 부재한 ‘닫힌 교회’라는 측면에서 성원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만큼 성원들의 개별적인 외부 신앙활동에 열려있다는 점은 두 교회 다니기를 통해 한인사회 내에서 실제적이며 온전한 성원권을 담보하면서,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 신앙적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2) 이중생활의 주요 원인과 실천 방식

성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는 데는 ISC의 신앙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재,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적응 문제, 성원 간 불화 등 ISC 내부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래에서는 성원들이 ISC 외에 원주민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된 주요 원인과 이를 전후한 맥락을 중심으로, 이들이 ISC와 이들 교회를 오가며 성원권을 유지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1) 신앙심화를 위한 체계·조직 상의 요인

ISC 외에 다른 원주민 교회를 함께 다니는 성원들이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이중생활의 이유는 ISC에 신앙의 심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ISC에도 기도와 영적 봉사 및 물리적 봉사를 중심으로 한 신심활동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집단이 아닌 개인 차원의 신앙 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성란 아가타, 50대, 의류업, 1975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도성란: 미국에선 한국 신부님들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이걸 삶에 응용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면서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한국에서 너무 멀고 원주민 교회에서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없이. 사실 이런 은사로 부터 축복과 은총을 통해 화나 짜증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서 내 생활의 긍정적 에너지가 사회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서로 신앙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자기 믿음과 함께 가야... '기도'란 게 결국은 '소통'하게 하는, 기도로부터 긍정적 에너지와 효과를 밖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영 성가 같은 분들 도움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신앙을 삶에 끌어오는 기술이나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부족하죠. 그게 신앙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한국과 원주민 교회에서는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 주기적인 견진성사³¹⁾와 제반 교 육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이 신앙주체로서 스스로 믿음을 계발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ISC에서는 이같은 지속적 프로그램 없이 간헐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에서 영성가를 초빙하여 영성 세미나 및 피정³²⁾행사를 주최하지만, 이 또한 해당 인 사의 방문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기에 1년에 2-3회에 그치는 정도이다.

따라서 까스떼샤노와 현지 문화에 친숙한 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 원주민 교회 를 번갈아 다니며 신앙생활을 채워간다. 이민 1.5세 도성란도 ISC에서는 주일미사와 영적봉사를 위한 신심단체활동에 주력하면서, 주중에는 자신이 속한 재속프란치스코회 (Orden Franciscana Seglar, 이하 OFS)³³⁾ 소속 교회에서 성경공부 모임과 영성활동 에 참여한다. ISC에도 15여명의 OFS 회원이 활동 중인데, 주중에는 모두 성 프란치

31) 견진성사: 가톨릭교회의 일곱 성사(신앙생활 주요 단계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기 위해 거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이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는 의례이다. 견진성사는 주 교 또는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집전한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견진성사,”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um=6535&keyword=%B0%DF%C1%F8%BC%BA%BB%E7&gubun=04> (2016. 3. 20 접속)

32) 피정: 가톨릭 신자들이 영신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쇠신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남을 뜻한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피정,”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um=3856&keyword=%C7%C7%C1%A4&gubun=01> (2016. 3. 20 접속)

33) OFS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관리되는 카톨릭형제회의 하나로, 수도자와 같은 정신으로 복음의 생 활화와 전파를 위해 활동하는 특수조직이다.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교회에서 수도 사 제의 신앙 지도에 따르게 된다. 수도 사제는 수도회에 입회한 수도자로서 사제 양성 교육을 받고 사제 품을 받은 이로써, 교구·재속 사제와 달리 수도자와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이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um=6394&keyword=%C0%E7%BC%D3%C8%B8&gubun=02> (2016. 3. 20 접속)

- 재속프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조직,” <http://www.ofskorea.org> (2016. 3. 20 접속)

스코회 소속 FF교회의 미사와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한다. 도성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민 1세대로 까스떼샤노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주중 미사는 강론내용에 대한 이해나 원주민들과의 교류 없이 형식적으로 오가는 수준에 그친다. FF교회에서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까스떼샤노에 능한 도성란과 고영수(80대, 이민 1세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ISC의 OFS 회원들은 원주민 사제와 성원들로부터 '우리 한인 형제들, 한인 카톨릭(nuestros hermanos coreanos, los catolicos coreanos)'으로 불리우는 집단, 즉, 카톨릭 형제이자 문화적·종족적 타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FF교회는 ISC의 OFS 회원들이 10여년씩 다녀온 익숙한 공간이며 원주민 성원들도 오랜 시간 부대껴 지내온 이들이다. 하지만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이들 사이에 교류는 여전히 부재하며, 시간의 무게만큼 이들 사이의 간극이 크게 좁혀지지는 않았다.

2014년 6월, 고영수의 OFS 서약 50주년 금경축을 맞아 FF교회에서는 서약 갱신식과 작은 파티가 준비되었다. OFS 안에서 함께한 형제의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원주민과 한인들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사진 6) 금경축 미사 중 FF교회 주임 신부 강론: 화면 상단 중앙에는 성모상(그 위로 예수상이 위치함), 그 아래에는 성프란치스코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문양, 아래 제단에는 영적 지도자인 주임 신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양쪽 신자석에 원주민 성원들(좌측)과 한인 성원들(우측)이 서로 분리되어 앉아있다.

위 사진에서처럼, 신앙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FF교회 원주민과 한인 성원들은 모두 OFS 회원으로, 또한 성모와 예수의 자녀로 하나된 형제들이다. 하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됨'의 종교적 이상은 아래의 신자석이 의미하는 세속, 즉, 현실로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분리된 경계를 연출한다.

이 같은 장면은 ISC 성원들이 원주민 교회에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언어능력이나

세대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연출된다. 이 날 의례의 신앙적 의미와 형식 차원에서 한인과 원주민 성원들은 같은 시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론, 독서, 축사의 발화자에 따라 까스떼샤노와 한국어가 번갈아 오갔고, 한인들은 까스떼샤노를, 원주민들은 한국어로 된 내용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런가하면 의례 진행 과정에서 한인 성원들 사이에 식 절차 상의 작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들은 그 상황을 원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결국 의례의 의미와 형식은 공유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별도로 공존하는 상황은 한인과 원주민 성원들 상호 간에 차별적 경계가 신앙영역에 또한 건재함을 보여준다.

기실 이 날의 분위기는 같은 형제로서보다는 ‘특별한 손님’인 ‘한인 형제들’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자리와 같았다. 신성한 의례 공간인 본당을 나와 식당에 마련된 파티장은 사방이 온통 태극기로 장식되어 있었다. 일상 영역에서 고영수와 한인 성원들은 바로 태극기와 한국이라는 상징과 동일시되었고, 테이블 역시 한인은 한인끼리, 원주민은 원주민끼리 앉는 것으로 배치되었다.



사진7) 금영축 축하파티: FF교회 부속식당에서 열린 축하파티는 고영수를 위해 원주민 성원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였다.



사진8) 태극기 컵케이크: 주최측은 축하의 의미로 전 공간을 태극기로 장식하였고, 푸른색 아르헨티나 국기(좌측 중간)가 곁에 나란히 놓였다.

태극기 물결 중간중간 아르헨티나 국기가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있다. 카톨릭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 즉, 서로의 차이는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차원에서 공존과 화합의 차원으로 다루어진다. 이 날 사제의 강론과 한인, 원주민 성원들의 축사도 서로에 대한 존중, 공존과 화합,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의례에서 나와 일상의 영역에서 그 경험은 반대방향으로 더 강하게 나타

난다. 이상적으로는 사진7 상단의 성 프란치스코회 십자가가 상징하듯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 아래에 나뉘어 있는 양국 국기처럼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여기에서 한인들이 타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도성란, 고영수처럼 원주민들과 섞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 ISC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한인에 대한 문화적 ‘존중’과 ‘차이’ 사이에서 ‘차별’을 감지하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어? 따라오기 힘들 텐데.”, “우리는 너네(한인) 방식과 다를거야.” 도성란은 원주민교회 성서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한인으로서 원주민 성원들로부터 받았던 ‘존중’같은 ‘차별’이 큰 상처가 되었다고 말한다. 모태신앙인인 그녀는 원주민 카톨릭학교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평소 원주민 친구들과의 교류도 많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종교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던 그녀였지만, 원주민 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모임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간관계에 치여 오랫동안 떠나있던 ISC로 돌아왔다. 대신 ISC에서는 주일미사와 주요 행사만 참여하면서, 그 외에는 FF교회뿐만 아니라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이중생활’을 해왔다.

사실 신앙의 실천 방식 차원에서 이들은 OFS와 FF교회의 일원이면서, 문화적·종족적 차이로부터,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민생활에서의 사회적 소속 차원에서는 ISC의 성원이다. 그런데 종교공동체로서 ISC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앙적 이유로 많은 이들이 원주민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도, 스스로 또한 그럴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FF교회에서처럼 ‘특별한 손님’이라는 한인들의 위치에 대하여 한인과 원주민 성원들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한인들에게 OFS처럼 신앙으로 연결된 이들은 단지 ‘형제들’이지만, ISC의 한인들은 ‘우리 형제들’로 이야기된다. ‘우리’라는 수식어는 신앙 이전에 더 본질적이며 강력한 소속의 지점이 ISC, 한인 카톨릭공동체임을 의미한다. FF교회의 어떤 성원들은 이를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그들이 ISC에 대해 갖는 소속의 감각은 사회적 성원권 또한 넘어서는 보다 강력하고 끈끈한 친족집단으로서의 그것과도 같다.

그런가하면,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하는 ISC 성원 중에서는 주일 외 시간에도 자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사랑, 치유, 복음 등 각각의 은총³⁴⁾을 받은 교회를 찾아 미사를 드리고 위안을 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 다수는 ISC에서 영적 봉사활동을 주도하는 성원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영성과 영적 봉사자로서의 자신의 자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같은 실천에 임한다.

[신미진 까밀라, 50대, 의류업, 1982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신미진:** 여기 공동체(ISC)에서 영적 봉사자의 임무는 기도로써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구하고, 이것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로 이 긍정의 에너지, 신앙의 힘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신앙 말고도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들어오니까 신경쓸 게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해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GG교회에 자주 가게 돼요. 나도 그렇지만 여기는 기도 봉사 해 드릴 분들도 그게 많이 필요하고.

신미진(50대, 이민 1세대)은 영적봉사단체 AA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ISC의 성원들을 대신하여 상황에 맞게 이들을 위한 맞춤기도를 올리고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찾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소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신앙에 집중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와 달리, 이민사회 교회의 특성 상 신앙과 관계 없이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연유한 미움, 짜증, 갈등은 봉사자로서 그녀의 자질을 해쳐갔다. ISC 성원들이 한인사회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여 있다 보니 외부의 사업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는 성원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봉사자로서 신미진 본인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기도 하였고, 종종 봉사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다른 성원들이 기도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사람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보니 AA회의 봉사에서도 주로 치유를 위한 기도가 많이 이루어진다.

34) 아르헨티나 카톨릭 교회명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현시하였거나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는 성모마리아, 또는 공적을 기릴만한 성인·성녀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각 교회를 상징하는 종류의 은총과 공덕의 효험은 해당 교회의 미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믿음이 공유된다. 예를 들어, ISC의 본당은 기적의 은총을 받은 기적의성모성당(Parroquia Santuario Nuestra Señora de la Medalla Milagrosa)이고, 의류상가가 집결하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찾는 플로레스 지역의 산호세 대성당(Basílica de San Jose de Flores)은 요셉 성인의 공덕을 기리며 치유의 은총을 받은 곳이다.

그녀는 최근 오전 중 짬을 내 사업장 근처에 위치한 GG교회에 가서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기도를 올린다. 영적 봉사자로서 자기 자신과 기도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가진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이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GG교회는 심신에 병이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이곳에서 미사에 참여하거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이 공유된다. AA회 회원들은 치유 목적 외에도 공동체나 개별적인 기도 대상의 상황에 맞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교회를 찾아 영성을 강화한다. 성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을 때면 사랑의 은사를 받은 교회에서, 신앙적 냉담기에 있는 성원을 찾기 전에는 복음의 은사를 받은 교회에서 일정 기간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올린다. AA회와 같이 은사의 힘을 믿는 이들은 이로써 직접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신앙생활의 조력자로서 자신들의 영적 능력치와 기도 효과가 상승하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긍정적 결과가 결국 전 공동체에게 파급될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특정 은사를 받은 교회를 찾는 것은 실제 기도의 효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ISC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신실함을 연행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BB회와 같이 신앙실천이 가시적인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봉사활동의 경우 그 효과성이나 봉사에 임하는 성원들의 신실함이 외부로 표현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 봉사자나 영성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원들의 활동은 종종 여타 성원들로부터 ‘자기들끼리만’, ‘보이지 않으니 뭘 하든 알 수 없는’, ‘힘들이지 않고’라는 식으로 저평가되기도 한다. 영적 봉사, 기도라는 것은 그 효과를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신교회와 달리 카톨릭 교회에서 기도는 발화를 통해서보다는 신과의 내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행의 진위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성원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특정 기도를 위해 효과가 있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보이는 사실’로써 신실함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더 이상 해당 성원들에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성스러운 은사의 힘을, 종국에는 신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는 공동체 차원에서 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더 크게 확산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신앙실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언어 및 문화적응 요인

두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는 언어에 따른 어려움이나 ISC의 한국식 카톨릭 전례방식과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 1.5세대 이상의 성원들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엄고은 골라라, 30대, 의류업, 1984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90년 카톨릭입문]

- **엄고은:** 원주민 성당은 정말 자유롭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미사 중에도 동작이나 표정, 움직임이 다양한데, 한국 성당은 뭔가 딱딱하고 무겁게, 다 똑같이 따라야 하는 분위기라서 잘 맞지는 않아. 한국어도 안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맞으면 더 힘들고.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런 외면적인 것이나 형식에 너무 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다녔고, 지금도 DD회와 EE회 말고는 주일미사도 원주민 교회로 갈 때도 있고. 강론도 원주민 신부님들 얘기가 더 잘 와 닿아.

이민 1.5세대이지만 이민 당시 6세에 불과했던 엄고은은 이후 원주민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격식없고 자유로운 아르헨티나식 문화와 카스떼샤노에 익숙하게 자라왔다. 그녀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ISC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에 대한 기대가 컸으므로 고등부 시절부터 여타 원주민 교회의 미사와 신앙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한국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이후로 한국어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지만, 그녀에게 연령과 친·인척 관계 및 권력관계에 따라 수직적 질서가 강요되고 지나치게 엄숙하며 격식을 중시하는 ISC의 환경은 여전히 불편하다. 일례로, 엄고은과 같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매일미사’나 성가를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미사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어른 세대는 당신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금하고 있다.

<「한맘주보」 제1821호(2014년 2월 16일) 공지사항 중>

*미사 참례 시, 앞자리 먼저 앉기, 복장 단정, 핸드폰 끄기, 잡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ISC 주보에 종종 등장하며, 미사 직후 사목회장의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기된다. 이처럼 어른 세대 중심의 사고로부터 비롯된 일방적 제재는 복장, 참례 태도 등에도 두루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주민 교회는 노출여부와 같은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미사 시간에 개별적인 신앙표현을 제재하는 ISC와 달리, 전례 중간에도 원주민 신자들은 자유로이 일어서서 “¡ Amen(아멘)!", "¡ Dios les bendiga(그들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등을 외치거나 자신의 기도를 소리내어 읊조리기도 한다. 카톨릭 국가에서 신앙이 생활화된 원주민들의 전례는 체화된 문화로서, 믿음에의 동기부여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된다. 반면, ISC에서는 모두가 정해진 동일한 방식으로 연행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일종의 의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 신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엄고은은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와 신과의 소통에 집중하기 위해 ISC의 소속단체 활동 이외에는 주로 원주민 교회의 미사에 참석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교회에 다니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조우재(50대, 이민 1.5세대)는 일요일이면 가족들을 이 교회, 저 교회로 실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 이민 1세대인 모친은 ISC에서, 2세대인 자녀들은 원주민 교회에서 미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조우재 베드로, 50대, 의사, 1977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70년대 카톨릭입문]

- **조우재** : 아침 9시에 어르신들 미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8시까지 모여다 드리려면 온 식구가 시간 맞춰 한 차로 출동해야 해요. 애들은 어제(토요일) 한글학교 와서 저녁에 한국어 미사 갔으니까 굳이 안와도 되는데, 대신 이해하기 쉬운 원주민 신부님들 강론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ISC)서 같이 간단히 요기를 하고 애들은 근처 원주민 교회 미사에 같이 갔다가 이런저런 볼 일을 봐요.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 모시러 여기 들렀다가 다같이 집으로 가요. 힘들어도 애들 클 때까지는 우선 해줘야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살다가 인근으로 이주한 조우재의 모친에게 일주일 중 주일 하루는 유일하게 지인들을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는 날이며, 한국어로 진행되는 미사를 온전히 이해하며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국에서 카톨릭 신자였던 모친은 요즘도 가족과 함께 집 근처 교회에서 주중 미사에 참여하지만 까스페샤노를 이해하지 못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조우재의 자녀들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ISC의 미사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조우재는 토요일마다 ISC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청년부 미사에 함께 참석하는 한편, 다른 요일에는 원주민 교회의 미사와 성경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였다.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조우재의 가족은 성원 간 세대와 문화차이로 인해 서로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두 교회 다니기에 동참하고 있다.

조우재는 ISC의 주일미사와 주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부모세대부터 꾸준히 공동체에 헌신해왔고 그 또한 한글학교 교사로서 꾸준히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ISC의 확실한 성원권을 담보할 수 있었다. 엄고은 또한 어린 세대들이 ISC 성원으로서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교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엄고은은 ISC가 현지 카톨릭 사회와 교류가 필요할 때마다 중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교회 다니기를 실천하는 성원들은 형식적으로라도 ISC의 단체에 소속되거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때마다 봉사의 형식으로 ISC 활동에 참여한다. 자기 신앙을 위해 원주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소속감이라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본인과 가족, 지인들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연행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으로 ISC에서도 성원권을 인정받고 인적 관계망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3장에서 다룬 한인사회에서의 사업적 관계들은 재론하지 않더라도, 출생과 사망, 혼인에 관련된 주요 의례들은 카톨릭 성사라는 형식을 통해 교회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내부 성원 간의 인맥관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원들은 결혼, 출산, 부모의 임종 등을 앞두고 ISC로 돌아와 일정 기간 주일미사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타 성원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카톨릭이 아닌 상대와 결혼을 준비하는 성원은 배우자의 입교를 위해 카톨릭 예비자 과정에 동참하면서 통과의례를 거쳐, 미성숙한 개인이 아닌, 부부로서 완성된 진정한 어른이자 공동체 성원으로 거듭나며 인정받게 된다.



사진9) 예비자 과정을 마친 한 커플의 혼인성사: 카톨릭 교회에서 결혼식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 날 참석 하객 대부분은 ISC 성원들이었다.

매년 예비자 교육과정에서 50% 이상이 결혼을 앞두고 입교를 준비하는 ISC 성원과 비카톨릭 예비 배우자이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처럼 결혼식장이 따로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든. 그런데 난 너무 오랫동안 여기(ISC)에 만나와서, 그 전에 미리 와서 신부님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질 필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혼인 성사 봐주세요’ 하기도 좀 그렇잖아.” 연구자와 예비자과정 동기였던 한 성원의 이야기이다. 이민 2세대인 그녀는 성인이 되면서 ISC에서 원주민 교회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부모가 ISC의 주축 성원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 같은 속내가 있었기에 그녀는 배우자의 예비자 교육에 동참하고 ISC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원들과의 관계에 한동안 공을 들였다. 이들은 같은 해 ISC에서 혼인성사를 치르고 약 3달 동안 ISC의 주일미사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원주민 교회로 돌아갔다. 그리고 원주민 교회의 주일미사에 참여하며 ISC에서는 카톨릭 전례력 상의 주요 연행과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본당의날 같은 ISC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원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밖에도 ISC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성원들의 혼인성사, 영아세례 등에 참여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ISC에서의 사회적 성원권 또한 지속적으로 담보해가고 있다.

(3) ISC의 내부갈등 요인

그밖에 ISC 성원들은 단기적으로 두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여타 성원들과의 불화나 일련의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 일시적 도피처로서 원주민 교회를 이용할 때이다. 교회 내의 정치경합이나 세대 간 신앙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의 당사자들은 종종 표면적으로 사업 내지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한동안 ISC 대신 원주민 교회에 나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간다. ISC 내부 사안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빚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일상적인 불화나 집안 문제들 또한 같은 ISC 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때가 많다. 그런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한인 카톨릭교회가 하나이다보니 교회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원하는 방법은 잠시 ISC를 떠나 원주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다. ISC에서 성원 간 갈등은 보통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당사자와 관계된 여타 성원들과의 평가르기가 조장

되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사제와 수녀들 및 주축 성원들 또한 임시방편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법이다.

[김정아 까밀라, 40대, 교육/의류업, 2009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2000년 카톨릭 입문]

- **연구자:** 언니 휴가 갔었다면서요? 어른들이 언니 몇 주씩 놀러 다니느라 미사도 다 빼먹었다고, 군기 한 번 잡아야겠다고 하시던데요.
- **김정아:** 무슨, 휴가는 잠깐 갔다왔고, 요즘은 매일 동네 미사 다녀. 어른들은 얼굴만 안보이면 다 당신들처럼 땡땡이치는 줄 알지. 오히려 성당 몇 군데씩 다니면서 더 독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구만. 그냥 여기 오면 부딪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사람 핑계로 믿음이 약해진 거 같아서 잠깐 외도를... 성당은 다른 데 간다고 (개신)교회처럼 배신하는 게 아니니까 좋아. 여기 그 많은 성당 어딜 가도 다 똑같으니까. 말이 설어도 미사내용이 어차피 같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녀도 되는, 그게 길게 보면 믿음을 잘 키우는 데 더 나은 것 같아.

김정아는 신심활동단체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SC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굵은일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어른 세대의 신임을 얻고 있다. 그랬던 그녀가 약 두 달 간 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사업 관계로 몇몇 성원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김정아의 오랜 친구였다. 그 친구는 사업관계로 다른 성원과 문제가 생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떠나야했고, 이 일로 김정아를 비롯하여 그녀와 친분이 있던 성원들은 상대방과 교회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거부감을 가졌다. 상대방 또한 영적 봉사를 담당하며 ISC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교회 내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상대방을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이 드러나 상황을 아는 주변인들로부터 제지를 받곤 했다. 이같은 상황과 스스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어 김정아는 ISC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성원과 사제에게 조언을 구했고, 자신의 믿음과 심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잠시 원주민 교회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카톨릭 신자 간 결혼만을 허가하는 제도로 인해, 한인 카톨릭 교회가 하나뿐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많은 ISC 성원들이 직·간접적인 친인척 관계들로 엮이게 된다. 그렇다보니 좋지 않게 마무리된 이혼 등으로 집안 간에 인척관계가 와해되는 경우, 영향력이 강한 쪽의 압력으로 인해 상대측 집안 또는 파혼 및 이혼 당사자가 ISC에서 당분간 떠나있게 되는 상황 또한 발생한다. 한 집안의 내부불화에서도

영향력이 강한 성원에 밀려 여타의 성원들은 원주민 교회에 머무르는 시기를 겪기도 한다. 신앙에 큰 뜻을 두지 않는 이들은 개신교로 개종하여 다른 한인(개신)교회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뿐인 한인 카톨릭 교회를 떠날 수가 없기에 ‘냉담기’를 갖는 형식으로 잠시 ISC를 떠나 원주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

ISC에서 신앙인으로서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심화시켜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며 교회를 멀리하는 냉담기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냉담기를 경험한 성원 중 다수는 실제 이 기간에 원주민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속해간다. 김정아 외에도 냉담기를 거쳤다는 여타 성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이들 중 다수는 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냉담기로 위장하여 ISC를 떠나 있었을 뿐, 원주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 김정아가 원주민 교회에 다녔던 시기에도 여타 성원들은 그녀가 떠난 전후좌우의 상황을 알면서도 그녀의 부재를 단지 믿음이 약해진 냉담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ISC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두 교회 다니기를 행한 성원들은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냉담자’로 연행하게 된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해당 성원이 ISC에서 사라지는 동안 이를 개인적이며 신앙적인 냉담기로 변호한다. 부분 성원 간 갈등이 계속 교회 내에서 회자될 경우,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로까지 번져 더 큰 집단 갈등을 야기하거나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와 연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ISC를 떠나있던 성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아와야 할 ISC이고 갈등의 당사자 또한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다시 돌아올 때 서로의 갈등을 떠올리는 불편함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완충기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냉담기’는 ISC를 떠나있는 성원들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방향기를 겪으면서 신앙인으로서 한층 성숙해진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갈등 당사자가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여 다시금 당당하게 ISC 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냉담기 연행은 ISC를 떠나는 것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성원들이 더 이상 ISC에서의 영향력이나 평판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동체 차원의 지원책기도 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냉담기 연행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신앙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디아스포라적 신앙실천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라는 서사: 매개자를 통한 성원권의 확장과 실천

1) 라틴아메리카 한인 카톨릭 선교사와의 연대

달린 교회 ISC에서 성원들이 아르헨티나 사회 및 현지 카톨릭계의 성원됨을 실천하고 외부사회와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간접적인 방법들 또한 채택된다. 여기에서 교회 안팎의 현장들은 ISC와 외부사회 사이의 매개자들이 연결하는데,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카톨릭 선교사들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원주민 사회와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ISC에서는 원주민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은 ISC에 사제를 파견하는 한국 전주교구나 ISC가 위치한 플로레스 교구 소속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사목지역 또한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SC 입장에서는 원주민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지속적 관계에 대한 책임없이 원거리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런가하면 내부적으로는 선교사를 통한 신앙실천 방식이 대외봉사 대상과 지역을 둘러싸고 성원들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된다. ISC에서는 공동체의 봉사와 사회적 기여가 한인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원주민들에게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성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한인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양측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원주민사회를 돕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인(선교사)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므로 쌍방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ISC와 관계하는 한인 선교사들은 이주 1.5-2세대로 해당 국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서품을 받은 사제 또는 한국 교구에서 파견된 사제와 수녀들이다. 평소에 선교사들은 각자의 해당 교구 및 단체의 관할 하에 각지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AMICAL(라틴아메리카 한국카톨릭선교사회) 회합이나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서로의 사목지역과 한인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상호 연대를 다져간다. 2014년 현재 AMICAL 회원은 약 200여명으로, 그 중 20여명이 아르헨티나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활동하는 교포출신 사목자들은 ISC 성원의 자녀인 경우가

많아 여타 성원들과도 수시로 교류하며 실제 ISC의 가족과 같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교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ISC에서 대주교 집전 미사와 같이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마다 원주민 사제의 통역을 지원하거나 한국어가 서툰 세대들의 교리교육 등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ISC의 성원된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ISC 성원의 자녀로 아르헨티나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한국에 돌아가 신학과정을 마치고 한국 교구 소속의 선교사로 멕시코 등지에 파견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로 가족을 방문할 때 종종 ISC에 들러 지인들과 교류하고, 미사전례를 진행하거나 보조하는 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원들과의 연대를 확인하기도 한다.

ISC의 사제와 수녀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선교사 신분으로 파견되는데, 이들과 여타 선교사들과의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역 특성 상, 거리와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교구에서 이들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카톨릭의 종교 및 문화저변이 넓고 다양한 까닭에 파견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ISC에 파견되었던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여타 지역의 선교사로 다시 파견되거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 대상 선교사로 활동하던 이들이 교포사목의 명목으로 다시 ISC나 브라질 등지의 한인교회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ISC의 현 주임사제 또한 이전에 페루에서 원주민 사목을 담당한 전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SC 사제로 파견되었다, 2013년을 전후로는 전임 보좌사제가 페루 빈민촌 사목을 위해, 주임수녀는 아르헨티나 북부지역 병원사목을 위해 ISC 임기 종료 후 상기 지역들로 다시 파견되었다. 또한 ISC와는 별도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병원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II회 담당수녀는 ISC 보좌수녀로 새로이 임명되었다. 그런가하면 ISC 성원들 다수가 아르헨티나 인근 국가에서 생활경험이 있는 재이주자들이다보니, 성원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사유로 여타의 라틴아메리카 한인 선교사들과 인연을 맺어온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실제 다수의 한인 선교사들은 직·간접적으로 ISC에 일종의 성원권 내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들로서, ISC의 대외 신앙 실천 활동에 있어 주요한 대행인으로 역할하게 된다.

카톨릭공동체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은 크게 각자에게 주어진 마리아(Maria)와 마르타(Marta))³⁵⁾의 달란트(talent, 은사)를 통해 소명에 따라 임하는 영적 봉사와 물

35) 성서에서 자매지간인 마리아와 마르타는 각각 권능자로부터 주어진 영적 달란트와 물리적(노동/물

리적 봉사로 이루어진다. 카톨릭공동체에서는 마리아와 마르타적 실천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두 실천방식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권장된다. 마리아적 실천은 개인 차원에서 두 교회 다니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ISC 안에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매개수단인 기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인적 교류와 접촉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마르타적 소명으로, 여기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ISC와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원주민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 등장하게 된다.

[신미진 아나, 50대, 의류업, 1982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모태신앙인]

- **신미진:** 마리아와 마르타 모두 같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똑같이 소중하며 필요한 존재예요. 결국 하느님의 소명과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인데, 소명에 따라 누구는 마리아처럼 기도로, 누구는 마르타처럼 노동이나 물질적인 봉사를 통해 은총을 받는 거죠. AA회나 BB회처럼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지만,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어떤 불평불만을 가져서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봉사는 많이 부족하긴 하죠. 뭐 한인교회라 어려운 점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그치만 이번 AMICAL에서도 평신도들이 돕지 않으면 선교사들만으로 행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평신도와 선교사 서로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사명에 따르는 법이고,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신앙의 힘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고. 힘든 지역에서 신앙활동 하는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신미진이 전한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는 연구자가 ISC에서 참여관찰을 하는 과정

자) 달란트의 소명을 대변하며, 소명에 따라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가치는 동등함을 의미한다.

[루카복음 10, 38-42]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신약성경 - 루카복음’, http://info.catholic.or.kr/bible/bbl_read_sori.asp?gubun=new2&code=149&JangNo=10&JangSum=24&LastPage= (2016. 3. 20 접속)

중 성원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성서의 일화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주로 영적 봉사자와 물리적 봉사자 사이의 신앙실천에 대한 입장 차이와 갈등을 조율하는 성서적 근거로 인용된다. 교회 내부 활동에서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서사가 영적·물리적 봉사와 관계된 성원들의 성향이나 이해관계 조율 차원으로 조명된다면, 교회 밖 원주민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봉사를 행하는 영역과 입장 차이를 명시하고 인정하는 식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성원들의 입장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소명(calling)'으로 해석되며, 그 밖의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소명을 받은 한인 선교사들의 몫으로 풀이된다. 각 개인 차원에서 신앙실천을 이야기할 때, 성원들은 한인들만의 공동체 내에 머물며 원주민 사회와의 교류나 이에 대하여 기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지만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 그들이 활동하는 원주민 사회와 현지 카톨릭 사회로 신앙실천이 연결됨을 이야기할 때, 성원들은 자신의 소명을 교회 안의 활동들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 소명 안에서는 원주민 사회와 직접 교류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 부담을 가진 필요가 없다. 대신 신앙실천은 선교사들처럼 ISC 성원들과는 다른 소명을 가진 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완성되는 과업으로서 보다 큰 매커니즘으로 해석되며, 성원들은 활동 영역이 제한적인 ISC의 현재와 자신의 위치를 이 같은 방식으로 긍정하게 된다.

2) 후원자로서의 신앙실천 : 한인 카톨릭 선교의 지원기지, ISC

ISC의 대외봉사 활동에 있어 선교사들이 주요한 대리자로 역할하게 된다면, ISC는 이들 활동에서 지원기지로 역할하며 신앙을 실천한다. 한국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요원한 상태에서 소속 교구의 즉각적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다보니, ISC 성원들의 현지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동원력은 선교사들에게 있어 큰 지지가반이 된다. 그 런가하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교구 소속의 선교사들에게도 생활형편이 여유로운 한인들의 지원은 사목활동 중 직면하는 긴급한 금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반면, 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원주민사회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현장 접근성과 전문성을 통해 원주민들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신앙을 실천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 된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내용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각자의 소명에 기반한 ISC와 선교사들의 상호 공조체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닫힌 교회’ ISC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현실적이면서도 성서적 이상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신앙실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신앙인이 된다는 건 믿음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돼. 마리아랑 마르타 얘기 알지? 배고픈 사람한테 설교만 백날 해봐야 뭐해? 우선 뭘 좀 먹여야지. 이런 실천을 통해 사랑을 주는 게 진짜 신앙인의 태도라고. 우리도 사실 현장에 깊이 있는 못 들어가고 발만 담그는... 진짜 현장에서 봉사하는 건 우리 수녀님들. 사실 BB회도 성당 나와서 돈만 내고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 거기서 중간역할을 하는 게 BB회에 맨날 나와있는 회원들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자주 찾아가서 현장에 계신 수녀님들 하시는 일들을 좀 꿰고 있으면서 돕는... 그런데 봉사라는 것이 각자 마음에 달려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누구든 연결은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그 사람들 사는 거 직접 가 보면 마음이 무겁긴 한데, 어찌겠어. 서로 자리가 다른 거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현재 공동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활동은 BB회 구호품 지원활동이 전부이다. BB회에서 빈민촌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집한 물품들은 한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인근의 XX, YY와 북부의 ZZ 세 지역으로 전달된다. 구호품 지원은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성원들이 종사하는 의류업 특성 상 유행이 지나거나 작은 하자로 판매하지 못해 쌓이는 재고들을 처리하는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 전달에 앞서 BB회와 자원봉사자들은 각 지역의 기후와 생활 특성, 그밖에 선교사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물품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포장작업을 한다. 이번(2013년 하반기)에는 아르헨티나 환율파동의 여파로 물가가 급상승한 탓에 밀가루, 설탕, 마떼차와 같은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고, 해당 물품들을 중심으로 구입과 수집이 이루어졌다. 보통 원거리에 있는 ZZ의 경우에는 화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근의 두 지역은 회원들이 직접 현지로 물품을 운반하여 선교사들을 만나서 전달한다. 하지만 XX와 YY 빈민촌 모두 ISC 성원들 사이에선 '외부인이 한 번 들어가면 훌쩍 다 털릴뿐만 아니라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되는 우범지역이다. 따라서 보통 BB회 회원들은 마을입구까지만 가서 물품을 전달하고, 이를 바로 교회나 선교사 숙소로 옮기는 작업까지만 참여한다. ISC 성원들의 소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까지이며, 그 이후의 과정은 선교사들의 영역에 해당된다.

빈민촌, 우범지대와 같은 지역적 특성은 한인들의 안전담론으로 확장되어 봉사의 수혜자와 공여자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를 넘어서지 않는 합당한 근거로 공유된다. 그런데 한편, '좀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사들의 신앙실천은 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그들의 활동은 보통 빈민촌, 이주민 공동체, 국공립병원 등지에서 전개된다. 이곳은 모두 외부인들이 '위험지역' 또는 '기피지역'으로 인식하는 곳이다. 따라서 선교사들과의 공조체제는 큰 맥락에서 신앙실천을 완성시키는 시스템인 동시에, ISC가 원주민 사회와의 경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현하며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써 현재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닫힌 교회 안 성원들의 현실은 보통 성원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종교적 소명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원주민 사회와의 교류 부재 및 교회의 폐쇄성에 대한 개선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래 사진10은 구호품 지원활동 중 BB회에서 직접 관여하는 지점으로, 화물배송업체와 마을 입구에 위치한 교회까지가 이들의 소명에 해당하는 영역인 셈이다. 사진11은 한인 수녀가 활동하는 빈민촌 내부 전경으로, '위험지역'인 여기부터는 성원들의 손을 떠나 선교사들의 소명 영역이 시작되므로 '바통 터치' 구역으로 설명된다.



사진10) XX지역 구호품 전달: 한인 선교사의 안내로 마을 입구 교회에서 BB회 회원들이 구호품 전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11) XX 빈민촌 입구: 여기부터는 위험지역이므로 외부인들은 출입을 자제한다.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는 20여명 선교사 중, ISC 사제 2명과 수녀 2명 외에 지속적으로 BB회와 교류하는 이들은 상기 지역의 5명(XX 1명, YY 1명, ZZ 3명)이다. BB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구호품 전달 외에도 이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면서 전담팀처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때때로 ISC는 BB회를 통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외에 '활동 지원비' 차원에서 소정의 현금을 한인 선교사들에게 사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ISC의 여러 성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HH시립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II회 소속의 수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앙실천에 동참한다. HH병원 사목 수녀들은 병원 한 칸에 설치된 까삐샤(capilla, 공소)³⁶⁾에서 환자와 가족, 방문객들의 기도와 영적 상담을 담당한다. 그리고 2-3개 병동의 점심과 저녁식사 배식을 지원하면서 환자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거나 영적 위안을 위해 필요한 기도서와 매일미사(la liturgia cotidiana)³⁷⁾ 등을 제공한다. ISC 성원 중 직접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녀들과 협의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병원을 찾아 식사 배식을 돕는다. 병원이 한인 의류상가가 밀집한 아베사네다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성원들은 업무시간 중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막간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원봉사를 BB회 활동과 같이 ISC의 공식 봉사활동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는 활동이 소수 성원들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단발성 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러는 여타 성원들과의 불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ISC에서 '냉담자'로 연행하는 이들이 일종의 수양을 위한 시간으로 봉사에 잠시 동참하고 떠나기도 한다.

"아픈 사람들을, 더군다나 한인도 아니고 원주민을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선 까스떼냐노가 안되는 분들도 많고. 여기가 시립병원이다보니 환자들은 보통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최하층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성당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담당수녀 K의 설명에서 업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서로 섞이기 어려운 두 집단 사이의 심리적 장벽이 이들의 신앙실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빈민촌은 공간적으로 한인과 원주민 사이의 경계가 가시

36) 간이 성당과 같은 60㎡ 남짓한 곳에 기도를 위한 공간과 한인 선교사들의 생활공간이 자리한다.

37) 카톨릭전례력에 따른 매일매일의 미사내용(독서, 복음) 및 미사통상문이 수록된 월간지.

화된 '위험하고 금지된 공간'이었다면, 금기가 사라진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 경계와 심리적 거리는 ISC 성원들의 인식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앞서 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ISC 성원들이 원주민 사회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의 두 방향 중에서 비통합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쪽은 저소득층 원주민이나 (실제로든 아니든) 불법성을 담지한 이주민들이다. 병원 봉사자들이 HH 병원에서 부대끼게 되는 봉사대상이 바로 그들이기에 신앙실천에서 또한 비통합의 의지는 확연히 나타난다. 병원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 성원들의 입장은 "장사가 바빠져서", "꾸준히 못할거면 안하는 게 나아서", "환자를 대할만큼 스스로 심신이 강하지 못해서" 등의 사유들로 변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H병원봉사는 ISC 공동체 차원의 신앙실천 활동으로 간주된다. 봉사자는 자주 바뀌지만 계속 참여자들이 나타나다보니 공동체 차원에서는 활동의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이 ISC와 가까이 있어 선교사들은 교회에 자주 오고가며 여러 성원들과 교류한다. 직접 병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성원들은 이같은 교류를 통해 병원 수녀들의 사목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간간히 까스페샤노 성경과 기도서, 매일미사 익월호 등을 모아 이들에게 전달한다.

그밖에 AMICAL 선교사들과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성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ISC의 주일미사와 주보, 온라인 카페 등의 매체를 통해 특정 물품이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사안을 전체 성원들과 공유하며 봉사에 동참한다. 선교사들 또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ISC의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거나, 지원내용이 봉사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보낸다.

<2015년 6월 13일, ISC 온라인 카페 게시글 중>

1. 게시자 L.

여러 교우님들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N신부님은 우리 교우이신 M형제님의 자제로, 아르헨티나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멕시코 JJ 본당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공소를 가지고 있는 본당이라 과테말라 국경 근처 공소까지 오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산악지역이 많아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해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N신부님께서는 손과 발이 되어줄 자동차가 절실히 필요하시어 이번 휴가길에 들른 우리 본당에 조그마한 도움을 바라십니다.

이에 우리 본당에서는 6월 14일과 28일 9시/11시 미사에 'N신부님 자동차구입 기금마련 특별 2차헌금'을 실시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출신 N신부님이 하느님의 발이 되어 현 지인 사목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계시자 L.

N신부님께서 본당 신자 여러분께 감사 안부와 근황을 전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N신부님께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사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자 여러분. 건강들 하신지요? (중략) 보내주신 모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륜구동으로 이제는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 덜 받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公所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신부님과 신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 지니며 좀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사진12) N이 첨부한 차량사진

선교사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ISC는 이들의 휴식처로도 역할한다. 외국어로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선교사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심신 수양을 위해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한국음식을 먹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이며, 같은 신앙으로 수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ISC이다. 선교사들은 자유시간과 휴가기간을 이용해 ISC를 찾아 성원들과 사적으로 어울리며 여흥의 시간을 갖는다. ISC의 조력자인 선교사들의 심신이 건강해야 봉사 또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원들은 선교사들의 휴식처이자, 친구와 가족이 되는 것 또한 일종의 신앙 실천으로 간주한다.

3) '한인'과 '카톨릭'으로서 성과와 평판의 공유

사실 ISC와 라틴아메리카 한인 카톨릭 선교사들 사이의 공조관계와 성과는 봉사를 통한 신앙실천의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한인 카톨릭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가장 '낮은' 곳에서 원주민 사회에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종교적 신분과 함께 한인이라는 종족범주로 함께 구분되어 인식되어 왔다.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본인의 이름 외에도 한인 신부님과 수녀님 또는 한인 형제자매들로 불리운다. 따라서 원주민 카톨릭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개인 차원의 신앙뿐만 아니라 전체 한인 카톨릭의 그것으로도 연장된다.

ISC에서 전달하는 구호물품이 선교사들을 종족범주로 연결짓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성원들이 가게에서 팔다 남은 이월상품이나 공장 재고품들은 카디건 200장, 잠옷 100세트 식으로 한 번에 대량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선교사들도 교회 밖 일상에서 '한인=의류업자=중산층'으로 연결된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긍정적 측면에서, 봉사를 통한 이들의 사회적 기여와 원주민 친화적 태도 및 생활방식은 원주민들이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해온 한인 카톨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한인 선교사들은 원주민 카톨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달린 세계' ISC의 소식을 카톨릭 사회에 풀어내는 전언자로도 역할한다. "ISC에서 오랫동안 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인)수녀님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인 형제들이 신앙공동체로서 잘 성장해왔고 지금도 성실히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XX 지역 사목자인 원주민 선교사들은 BB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소회를 전한다. 그 성과가 한인 카톨릭에 대한 평판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한인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양쪽 선교사들의 전언으로 확인될 뿐이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인 선교사들이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적재적소에서 상기 효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현지 카톨릭사회에서 ISC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2014년 산마르틴 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문한림 유배날 신부가 있다. 1976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여 현지 신학대를 나와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가족들 또한 ISC의 일원이니만큼 여타 성원들이 각별한 애정을 표하는 교포출신 사목자이다. 그는 사제서품 이후 원주민 공동체에서 사목활동을 하면서도 ISC에서 한인 1.5-2세의 교리교육과 미사를 담당하고, 원주민 사제 집전미사와 같은 특별 활동과 더불어 현지 교계와 ISC 사이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개자로서 이를 지원해왔다. ISC에서도 공동체 차원에서나 성원들 개별적으로 그의 사목활동에 물적·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ISC 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원주민들은 보통 한인 선교사들의 사목지역 관계자와 신자들이며, 그 중 지속적 교류는 문한림 주교 관할 공동체 성원이나 그의 활동과 관계된 교계 관계자와 사이에서 이루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가 프란시스코 교황과의 관계이다. 20여년 전, 그가 HH병원 사목을 담당하던 당시 업무 관계자였던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lio, 현 프란시스코 교황) 보좌주교와 맺은 친분으로 그는 교황과 한인 카톨릭 사이에서 중개자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베르골리오 주교의 ISC 방문과 특별미사를 추진하고 통역을 담당하며 의례를 보좌하였고, 주교와의 사이에서 쌓인 신뢰는 현지 교계와 ISC가 교류에 물꼬를 트는 데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ISC 성원들은 이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에서 한인 카톨릭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2014년 교황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데에는 아시아청년대회³⁸⁾ 한국개최와 더불어 이같은 개인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교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교황과 ISC, 문주교와의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이는 현지 한인 카톨릭의 위상을 제고하는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주아르헨티나 중남미한국문화원에서는 아르헨티나 언론과 카톨릭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교황 방한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이와 함께 20여일 간 특별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사진전에서는 교황과 한인 카톨릭, 문한림 주교의 20년 인연과 HH병원 한인 선교사들의 수녀의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라 나씨온(La Nación), 카톨릭포털 aci쁘렌사(aciprensa) 등 언론은 교황의 한국방문 및 문한림 주교의 동행소식과 함께, ISC와 교황의 인연, 문한림 신부의 주교 임명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활동 중인 한인 선교사 소식을 기사화하였다. 이렇듯 ISC의 존재가 현지 언론과 교계의 주목을 받고 거론된 것은 ISC 설립 이래 전례 없는 일이었다.

38) 아시아지역 카톨릭 청년들이 모여 믿음을 쇄신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영성을 체험하는 활동.
 -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 “주요일정-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http://popekorea.catholic.or.kr/schedule/sch-sub01.asp> (2015. 7. 19 접속)



사진13) 교황과 ISC, 문한림 주교 관련 기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울까지: 프란시스코 교황과 한국 카톨릭의 우정의 역사'

- 카톨릭포털 aciprensa



사진14) '사진으로 보는 교황과 아르헨티나의 한인들(el Papa Francisco y la comunidad coreana a través de imágenes)' 전시를 관람하는 현지 관계자들
-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통신원소식

그런가하면 문한림 주교의 서품식과 같이 실제 카톨릭 의례의 연행은 ISC 성원들과 원주민들이 같은 종교적 시공간에서 일상의 경계를 잠시 내려놓는 교류와 화합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같은 직접 접촉은 일시적 혹은 지속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서로가 신 아래 하나된 형제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성원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사진15) 문한림 유베날 주교 서품식: 2014년 5월 4일, 산마르틴(San Martin) 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열린 본 행사에는 ISC 성원 80여명, 사제단 50여명을 비롯하여, 약 500여명 인파가 참석하였다. 이날 역시 신자적 한 섹션(우측)이 한인들을 위해 준비되었고, 본당 곳곳에 태극기와 아르헨티나 국기가 함께 놓여있었다.

이 날 가장 많은 참석 인파는 문한림 주교의 사목지역인 산마르틴 교구 원주민들이었다. 그들과 ISC 성원들은 각각 문한림 주교를 통해 신앙실천에 동참해 온 이들이었고, 그를 통해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현장에서 한인들은 원주민들의 본당 신부로서, 원주민들은 한인들의 형제 사제로서 문 신부의 주교서품을 서로 축하했고, 미사 중에는 마리오폴리(Mario Aurelio Poli) 추기경의 제안으로 문한림 주교가 성모송을 한국어로 낭독하면서 원주민 신자들이 여기에 박수를 보냈다. 매개자를 통해 인식하고 있던 서로의 존재는 이 의례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고,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카톨릭의 종교적 지향은 양쪽 모두에게 자신들이 신뢰하는 '우리 주교님'을 통한 실제의 관계와 경험들로부터 형이상학적 이상이 아닌 실현가능한 사실로 체화된다. 그리고 종교적 이상에 대한 이같은 경험은 양쪽 모두에게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계기로서 신앙 체험이자 문화적·사회적 체험으로 역할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주요한 '체험'들을 통한 '말씀'에의 깨우침은 이를 바탕으로 한인과 원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동등한 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실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신앙실천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교님 오시는 날: 의례를 통한 외부 권위의 차용과 정당성의 확인

ISC 전체 성원들이 카톨릭으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와 카톨릭 교계에 실제적인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한인들만의 닫힌 교회 내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두 교회 다니기와 선교사를 통한 신앙실천은 실질적으로 ISC의 일부 성원들에 국한된 경험이다. 카톨릭 체계 상 교회 차원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레스 교구로 소속이 담보되고는 있으나, 종족적·계층적으로 분리된 한인 카톨릭의 위치에서 성원들이 현지 교계와 동일한 성원됨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를 위해 ISC에서는 일 년에 한 번, 공동체 차원에서 원주민 사회와 접촉하는 특별한 의례를 연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매년 9월 주최하는 ISC 본당의날 특별미사와 한맘잔치이다. 본당의날은 일 년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ISC의 닫힌 문이 외부 세계로 열리며 원주민 사제와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다.

ISC 성원들은 이 연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주민 사회의 카톨릭 성원들과 '우리/하나됨(togetherness)'이라는 감각을 공유하면서, 분리된 세계 ISC의 정당성 또

한 담보하게 된다. 의례는 종교가 사회적 연대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집단적으로 의례를 연행함으로써 참여자는 각각의 개별성을 뛰어넘어 초월적 실체, 즉, 사회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Durkheim 1995). 이 느낌은 개인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통합시키며 연대를 지속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의례가 끝나도 각 개인은 자신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 감각은 지속적으로 의례를 수행함으로써 재충전된다(Nye 2008; Hicks 2010). 이처럼 본당의 날 의례는 ISC 성원들이 '하나됨'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 닫힌 교회 안의 일상에서도 외부 아르헨티나 사회와 카톨릭 세계로의 소속감을 지속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실 의례적 행위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례의 연행 자체가 그 관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Durkheim 1995). 이같은 관점에서 원주민 사회와 조우하는 본 행사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ISC 성원들이 위치한 종교적 성원권의 경계와 실체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원들 스스로 기획한 위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자체적으로는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고안된 신앙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당의날 특별미사: 분리된 세계 ISC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시간

매년 9월 본당의날 행사를 앞둔 시기는 ISC가 제일 바쁘게 돌아가며 복직이는 기간이다. ISC 설립을 기념하는 이 날은 원주민 주교가 집전하는 특별미사와 함께 먹거리와 놀거리가 펼쳐지는 한맘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교회 본당 내부(신성한 공간)는 특별미사 준비로, 한맘광장(세속의 공간)은 음식과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움직임들로 분주하다. 치안 상의 이유로 야간활동에 제약이 많은 ISC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에도 주임사제가 집전하는 특전미사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기에, 본당의날은 ISC의 전 성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한맘축제에서 필요한 역할은 각 단체에 할당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전 신자와 사제단이 함께 관심을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고위급 사제가 주관하는 본당의날 특별미사이다.

< 「한맘주보」 제1798호(2013년 9월 8일) 공지사항 중>

* 22일(일)은 '제43주년 본당의날'입니다. 추기경님을 비롯 외부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

이오니 사목위원 및 제 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쉬는 교우 모시기
- 22일(일): 미사 11:00 (9시 미사 없음)

본 행사를 앞두고 약 한달 간 주일미사를 통해 상기 공지사항이 성원들에게 전달되는데, 위 내용과 함께 미사 중 강론 말미에 사제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한다.

<2013년 9월 8일, 주일미사 주임사제 강론 중>

- **주임사제(남동민):** 본당의날 미사는 특별히 여기(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에서 대주교님이 오셔서 집전하십니다. 우리 성당이 한 해 또 잘 지난 걸 주님께 감사하고 다음 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한인 신자들을 좋게 잘 봐주시니까 축하해주려 직접 오시고.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으면 의미있는 이 날을 계기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데리고들 오세요. 날이 날이니만큼 많이들 꼭 참석해주시고, 자리 꼭 차게. 한인들이 옷장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안보여도 이 안에서(ISC) 우리 한인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오셔서 '아, 잘 하고 있구나' 하실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원주민 신자들도 오고 하니까.

본당의날 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제단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는 의례의 특별함(의미), 높은 분(카톨릭 권위자)의 방문 및 원주민 사회(외부 세계)와의 접촉, 한인 카톨릭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이다. 특별미사는 현지 교구와 관계없이 ISC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사이므로 상기 요소들은 본 의례의 기획의도를 보여주는 셈이다. 주임사제의 당부내용에는 본 의례가 어떤 기획의도 하에, 어떤 각본에 따라 완수되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본 특별미사는 ISC 성원들이 무탈하게 한 해를 지나온 것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성스러운 연행으로, 평사제인 주임사제보다 더 높은 직위의 주교급 인사를 초대하여 외부로부터 영적 권위를 차용함으로써 의례의 신성성과 특별함을 더하게 된다. 이번 해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후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마리오 폴리 대주교(Arzbispo Mario Aurelio Poli)³⁹⁾가 미사를 집전하며 ISC 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으며, '대주교님을 모시는' 준비로 분위기는 한껏 고양되었다.

39)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이자 아르헨티나 수석 대주교로, 2014년 2월 추기경(cardenal)으로 승격하였으며, 2013년 3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Cardenal Jorge Mario Bergoglio)이 교황으로 선임된 이후 아르헨티나 카톨릭 최고 권위자로 부상하였다.



사진16) 본당의날 특별미사- 2013년 9월 22일: 마리오 폴리 대주교(중앙)가 미사를 집전하고 ISC 주임사제(우)와 보좌사제(좌)가 양측에서 보좌하며, 문한림 유배날 주교(가장 우측)가 강론 등 필요 시에 까스페 샤노-한국어 간 통역을 지원한다.

원주민 세계와 분리되어 한국식의 카톨릭 전례와 문화를 고수하며 지내는 상황에서, 성원들은 종종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위치,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ISC의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를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카톨릭이라고 해도, 우리끼리 문 닫고 앉아서 바깥이랑 따로 돌아가는 데, 그걸 누가 알아줘? 여기 한인 성당 있는지도 몰라." 강우석(70대, 이민 1세대)은 아르헨티나로 이주 후 카톨릭이 국교라는 이유로 입문하였던 터라, 본인 스스로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됨을 자신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교회에서 대부분 성원들은 일상적으로 원주민 사회와 교류 없이 지내면서도, 이처럼 어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경험을 통해 아르헨티나 카톨릭 사회의 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된 연행이 바로 원주민 사제가 집전하는 특별미사이다, ISC의 사제 인사체계가 한국 교구에 속해있는 상황에서, 이 특별한 미사의 집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에 속하는 외부 카톨릭계의 권위를 빌려움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카톨릭의 통일된 직제 체계에서 주임사제와 비슷한 직위의 원주민 사제를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평상시 미사의 일상성을 뛰어넘는 특별함에 대한 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일상의례에서보다 높은 직위의 카톨릭 권위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행의 특별함이 완성되고, 성원들은 '과연 누가 오실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본당의날은 아르헨티나의 카톨릭 권위자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ISC 내부로 들어와 한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직접 보고 듣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따라서 이 날 대주교가 ISC에서 받게 되는 인상과 이후의 전언은 원주민 사회에서 한인 카톨릭에 대한 평판에 주효하게 작용한다. 많은 성원들은 현재 ISC가 까비샤(capilla, 공소)가 아닌 이글레시아(iglesia,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도 전임자들, 특히

현 프란시스코 교황이 주교 재임 시절부터 ISC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날은 한인 카톨릭의 신앙적 진정성을 평가받는 날과 같으며, 모든 준비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대비 체제로 돌아간다. 짧은 순간의 의례를 통해 '잘하고 있음'을 연출하는 방법은 주임사제의 당부처럼 본 미사에 '자리가 꽉 차게' 많은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한인 카톨릭의 규모와 결집력, 성실성을 간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즈음하여 주일미사 등을 통해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미사 참석을 당부하고 냉담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영적 봉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 날도 평소 본 미사(오전 11시)의 1.5배 가량인 약 400여 명 성원들이 미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우며 '잘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재현해내었다.



사진17) 본당의날 특별미사:
당시 많은 성원들이 한맘잔치 준비를 위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평소 주일미사의 2배 이상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가하면 특별미사는 한인 카톨릭공동체 설립을 기념하는 자리이니만큼, 미사 집전자의 축사와 함께 그간 한인 카톨릭들의 신앙생활 및 종교적 행보에 대한 평가가 전달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성원들의 입장에서는 1년간의 시험성적표를 받아드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있다. 이 날도 대주교는 강론 중에 아르헨티나 이민사회에서 의류업을 통해 성장한 한인들의 성취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와 같은 신앙적 개척정신을 통해 한인 카톨릭이 이루어낸 성과 또한 높이 평하였다. 더불어 원주민사회에서 교류해 온 한인 카톨릭 선교사들과 ISC 사제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을 통해 전해들은 한인 카톨릭의 신실함과 신앙실천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실 이 날 강론 중 한인 카톨릭에 관련된 내용은 축하의 자리에서 전하는 보통의 의례적 인사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권위자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한 한인 카톨릭에 대한 평가는 본 미사가 기획된 의도에서 보면 내용을 떠나 연행 자체에서 갖는 의미가 강하다.

[마대성 바오로, 30대, 의류업, 1991년 이주, 재이주경험자, 1992년 카톨릭 입문]

- **마대성:** 예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계속 원주민 신부님들이 오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상황 따라 어쩌다 가끔. 그냥 되는대로 우리끼리. 근데 뭐 이젠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대성은 본당의날 의례 이후 ISC 회원들의 태도가 보다 원주민 친화적으로, 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변해갈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20여년 간 ISC에서 생활해 온 그는 최근의 특별미사가 ISC의 실제 변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를 위해 기획된 연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주교의 미사집전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ISC가 원주민 카톨릭 세계와 하나됨을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면, 한인 카톨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들의 독자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상징성이 강하다. 사실 이 날도 대주교와 10여명의 소수 원주민들의 입장만이 허용되었고, 행사내용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교회 대문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전히 닫혀있었다. 전후 상황을 보면, 마대성의 말처럼 본당의날 미사의 주된 목적은 카톨릭으로서 하나됨의 확인뿐만 아니라, ISC의 독자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본 의례에는 후자를 위한 기획을 통해 사회적 연행으로서의 역할 또한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속적 타자에서 신앙주체로 거듭나는 이등시민

의례라는 상황과 종교적 권위자의 출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는 닫혀있던 ISC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 원주민 사회의 누군가는 일련의 타자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 날 외빈은 대주교와 수행사제 한 명, 그리고 원주민 평신도 10여 명으로, 모두 카톨릭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ISC 회원들에게 이들은 '옷장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한인과 대별되는 원주민들이기도 하였다. 이 두 특징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성공한 이민자로서 한인들의 위상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ISC 내부에서는 종종 사회경제적 위치에 비해 원주민 사회에 대한 기여와 교류가 부재한 한인 카톨릭의 세속성과

신앙인으로서 자기반성의 차원으로도 인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례는 평소 ISC 성원들이 문화적·계층적으로 원주민 사회와 거리를 두려는 세속적 욕구를 초월하여 신앙을 통해 성찰하며 신성한 종교주체로 거듭나고 인정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방향을 바꾸어보면, 이 같은 종교적 거듭남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고, 온전한 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기대 또한 엿보인다.



사진18) 특별미사 중 참회의
시간: 제대 오른 편에 놓인
태극기, 교황청기, 아르헨티
나 국기, 이 세 개의 깃발은
성원들의 신앙 안에 통합된
성속의 경계들을 상징한다.

본당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원들 사이에는 특히 외부 세계(원주민 사회)와 한인 및 ISC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다. 특별미사뿐만 아니라 한맘잔치를 준비하는 성원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잔치를 통해 한인 카톨릭의 성취와 자부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특별한 날마저 외부 원주민 사회와의 나눔없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이 표출된다.

[박영도 바오로, 50대, 의류업, 1988년 이주, 1980년 카톨릭입문]

- **박영도**: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끼리, 몇 년 전에 한 번 성당 문 열고 골목에서 음식도 팔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 안전문제도 있고, 평소에 여기 한인성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홍보도 안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했고, 시끄럽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맨날 한인끼리만 뭉쳐 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원주민들이랑 어울리고 대접도 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 이래저래 잘 안되지.

(중략)

평소랑 다르게 대주교님도 오시고 원주민들도 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기는 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살겠다고 한 건 아닌지 반성도 하고, 못살고 무시당하던 예전이랑은 이제 다르잖아. 좀 달라져야겠다 다짐도 하고. 기도도 그런 쪽으로 더... 주일미사에 오는 건 중요한데, 주일마다 성체 모시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미사 빠지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오래 다니다보면 그냥 그렇게 되고, 그만큼 신앙이 생활화되다 보면 습관처럼 무뎌지거든. 미사에서 멍하니 딴 생각도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런 미사는 다른 주일미사랑 다르게 더 특별하고 의미있

는... 좀 더 경건해지고, 신앙인으로 사는 데도 더 반성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 도와 주십사 기도도 하고. 뭐 확 달라지진 않지만 이런 게 쌓이다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박영도의 이야기에는 본당의날을 전후로 사제나 주요 성원들로부터 권장되는 신앙 실천의 과정이 잘 나타나있다. 세속적 존재로서 ISC 성원들은 '우리(한인)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심을 보이는 것처럼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이같은 과오를 뉘우치고 새롭게 변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본당의날은 외부의 종교 권위자 및 원주민들과 함께함으로써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특별히 '우리'와 '그들'의 관계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습관처럼 무뎠던 일반미사와 다른 그 '특별함'은 의례에 신성성을 더함으로써 평소와는 다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미있는 날이 된다. 신앙적 거듭남은 미사 직후 펼쳐지는 잔치마당에서 전 ISC 성원들과 초대된 원주민들의 어우러짐을 통해, ISC 내부(성원 간)와 외부(한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신앙의 실천이자 세속적 경험으로까지 연장된다.

보통 이 같은 이야기에서 한인 카톨릭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차별받는 타자로서보다는 나눔을 행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신앙주체로 다루어진다. 이로써 ISC 성원들은 이등시민으로 위치지워진 일상으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으로 올바른 성원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행위자로 구성된다. 결국 본당의날 행사는 원주민 사제가 권위를 갖는 의례와 한인이 주인(호스트)이 되는 잔치의 결합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거듭남과 함께 이등시민의 자존감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는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학자 벨(Bell)은 의례는 일련의 정해진 행동이 아닌 다양한 범위의 행동방식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례화(ritualization)의 개념으로 의례연구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의례화는 어떤 행동을 다른 것들로부터 차별화시키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어 특권을 부여하며, 그 차이를 인간 행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고안된 문화적 전략들과 관계된다(Bell 1992: 74). 그런 의미에서 본당의날 행사는 ISC 성원들이 신성성을 담지하는 '특별한' 의례의 공간을 통해 신앙적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일상의 타자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기획된 공동체적 연행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신앙 의례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획 내지 사회적 연행으로서의 성격 또한 갖게 된다.

ISC 성원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미사에서는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 성체를 모심⁴⁰⁾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의례의 핵심은 성찰과 거듭남의 신성한 연행이며, 의례의 시공간에서 성찰하는 자아는 세속적 존재인 일상의 자신과는 구별되는, 신성한 시공간의 신앙주체로서 존재한다. 본당의날 미사는 여기에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인 카톨릭으로서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단일한 특정 주제를 가지며, 전 공동체의 '기도(신앙적 기대와 연행)'가 이에 집중되고 외부자 참여라는 특별함이 더해지는 데 의미가 있다. "평소에 우리가 속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성숙해가는 게 신앙인으로서 과정, 그리고 속세로 돌아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신앙의 계기가 중요해. 공동체 모두가 뜻을 모으는 의미도 특별하고. 평소와는 다른 자신으로,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니까." 도성란(50대, 이민 1.5세대)의 이야기에서처럼 특별한 계기로서의 의례(미사)들은 단일한 주제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뜻과 참여가 모아지는 자리 이니만큼, 성찰의 신성한 연행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ISC 전체가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자들의 인정과 확인으로부터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 신성한 연행을 주관하는 원주민 사제는 한인 카톨릭의 거듭남을 인도하고 승인하는 성숙의 매개자이며, 이 같은 과정에 동참한 사제와 원주민 신자들은 카톨릭으로 하나된 동지이다. 또한, 동시에 이들은 한인 카톨릭의 거듭남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될 타자로서, 외부사회의 전언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19) 영성체 의식: 의식을 행하기 위해 대주교가 성체가 담긴 성배를 들고 제대를 내려오고, 신자들은 제대 쪽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20) 미사에 참석한 외빈: 이 날 원주민 신자들은 수시로 미사 장면을 촬영하였다.(보통 ISC에서 미사 중 휴대폰 사용은 제재됨)

40) 영성체: 미사전례 중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밀전병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은총을 받게되는 연행으로,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며 신자 상호 간에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동일한 카톨릭으로 미사전례에 참여한 원주민 사제와 신자들은 미사 이후에 진행되는 한맘잔치에 초대되는데, 이 세속의 장에 들어서면 이들과 ISC 성원들은 다시 한인과 원주민이라는 일상의 대별되는 위치로 분하게 된다. 본당 내부에서의 종교적 권위와 신분, 동일한 룰은 무화되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그룹, 그리고 잔치의 주인과 손님으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사진21) 본당의날 잔치마당이 열린 한맘광장



사진22) 한맘광장에 들어선 대주교와 그를 안내하는 주임사제

잔치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연행의 권위는 주최 측의 수장이자, ISC의 '가장 중요한 어른'인 주임사제와 주요 단체 임원 등 ISC 관계자들에게로 이양된다. 사진22에서 나타나듯, 외빈들의 안내와 지원을 맡은 사제 및 주요 성원들을 제외하고 여타의 ISC 성원들은 본당 내부에서와 달리 대주교를 권위자로 대하며 어려워하지도, 그만큼의 큰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사진21의 정면 한맘광장 외벽 쪽으로 메인무대가 위치하여 사물놀이, 비보잉 등 잔치의 주요 공연과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외빈석은 이곳으로부터 ISC 성원들이 자리한 테이블 너머 반대쪽으로, 한맘광장 가장 뒤편에 위치한다. 이같은 공간구성은 잔치마당에서 치러지는 연행이 종교 권위자와 외부인들에게 중점을 둔 것이 아닌, ISC 성원들이 주인된 위치에서 스스로 즐기는 자리로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 세속의 장에서 대주교의 종교적 권위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손님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에 불과하다. 한국어와 한국의 식문화, 놀이문화, 행동규범 등을 기반으로 연행되는 잔치에서, 연행의 룰과 장소 모두에 익숙하지 않은 대주교와 원주민 신자들은 ISC 성원들의 안내와 도움에 따라 인도되는 손님이자 타자로서 한인들의 연행에 참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타자로, 이등시민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한인 카톨릭은 잔치의 장이 돌아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체화한 주인의 위치에서 일상의 차별적 위치를 전복시킨다. 평소와 달리 원주민 사제와 신자들이 손님이자 이방인으로 위치하고 ISC 성원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차별의 경험을 극복하며 이들을 환대하고 용서하며 대접함으로써, 이 시공간 안에서는 더 이상 이등시민도 타자도 아닌 관대한 주인, 즉, 온전한 성원권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분도 오시고, 원주민 초대해서 대접하고 나면 뿌듯한 게 있어. 그나마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잖아. 당당하게 기 펴 수 있는, 특히 어른들은 밖에서 말 안통하고 무시당하는 데 여기서야 맘껏... 이런 게 이제 밖으로까지 이어져야지." 본당의 날이 한참 지난 후, 한맘잔치 음식을 준비했던 한 성원과 나눈 이야기이다. 일시적이거나 이처럼 이등시민의 역전된 경험은 이후 ISC 성원들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회상되며 일상적으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카톨릭 성원으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원으로서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본당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원주민 신자들은 추후에도 한인들과 교류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간다.

본당의날 특별미사와 한맘잔치, 여기에 참여했던 외부인들과의 관계 확장은 한인 카톨릭으로서 원주민 사회와 공생을 도모하는 성공사례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원주민 신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선택된 소수이며, 이들에게 제한된 시공간의 경험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과정은 '의례화'라는 기획된 연행의 차원으로,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닌 공동체적 연행들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 기획 안에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한인 이주민이라는 이등시민, 세속적 타자의 위치와 경험, 상실한 자신감을 종교적 연행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와 전략이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의 한인 카톨릭 사례를 통해 초국가적 이주로부터 형성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거주국 사회의 여타 성원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원권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흔히 스스로를 ‘이도저도 아닌’, ‘사이에 끼인(in-between) 중간인’으로 정체화한다(Grewel 1995; Mudimbe and Engle 1999; Ryang 2002). 이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일상이 다시 특정 국가와 지역의 경계 안에서 펼쳐지면서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초국적 연망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이 초국적 주체로서 현재 위치한 사회에서 성원권을 구성하고 행사하는 방식은 ‘중간인’으로서의 정치적·문화적 권리 주장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위치지워진 타자보다는 능동적 생산자로서 측면도 강하게 나타난다. 연구는 이처럼 대안적 성원권의 생산주체라는 차원에서 ‘사이에 끼인 중간인’으로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이들의 종교적 성원권에 주목하고, 소속됨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부터 수용과 배제의 전략이 이들의 신앙생활에 투영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는 디아스포라와 문화적 시민권의 결합을 통해, 고정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 이상의 문화·정치 체계에 관계된 이들이 초국적 연망, 거주국과 모국, (실제 또는 상상의)고향, 현재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서 점하는 위치와 소속의 방식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사회에서 종교공동체의 성원권에 수렴된 사회적 기대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서 크게 ‘이주지속성’과 ‘이등시민’이라는 특징으로 대변되는 한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위치를 가늠해보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아메리카 역내 이주와 북미 선진국행의 과정에서 이주의 중간 기착지로 역할해왔고, 이 곳 한인사회 또한 높은 재이주율을 보인다. 역내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잦은 경기불안과 사회적 동요는 이들의 재이주를 추동하였고, ‘언젠간 떠날 곳’이라는 인식은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의지를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한편, 유럽계 백인이 사회 주류를 점해온 아르헨티나에서 한인들은 의류업을 통해 중산층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계층적 차이로부터 원주민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 소수자’라는 입지는 저소득층 원주민과 인근

국가 이주민들과도 불편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왔다. 이주지속성과 이등시민의 경험은 한인들이 모국으로 의식적·실제적으로 귀환하는 배경이 되지만, 영어권이 아닌 제3세계 국가 출신인 이들에게는 모국에서 또한 '이등교포'의 꼬리표가 붙으며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사회에 다시 머무르며 '중간인',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의 현재를 긍정하게 된다.

한인사회에서 공유되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경험과 감정은 상이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일련의 군집으로 귀속시킨다. 이들은 자신에게 배타적인 원주민사회와 거리를 두고 타 지역 한인들과의 연대를 상상하거나 반대로 차별화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이라는 집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서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종교공동체로 편입되고 신앙을 통해 '차별화된 중간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대가 수렴된 종교 성원권을 채택한다.

아르헨티나의 국교가 카톨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카톨릭 신분이 심리적·실제적으로 대안의 성원권으로 역할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로의 소속 의지를 가진 많은 한인들이 ISC로 유입된다. 하지만 거주국 카톨릭 사회로부터 받은 차별은 다시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한인 카톨릭공동체의 독립을 추동하였고, 교회는 아르헨티나 교구에, 사제를 파견하는 인사체계는 한국 교구에 속하는 이중의 소속구조를 통해 교류와 소통이 부재한 '닫힌 교회'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닫힌 교회'는 한인 카톨릭이 원주민 사회로 소속되는 동시에 문화적·사회계층적으로 차별화된 집단으로서 거리를 두기 위한 전략이 투영된 산물이자 실천양식이기도 하다. 기실 ISC를 다른 카톨릭공동체와 차별화하는 '한인'이라는 범주는 언어와 같은 문화적 자질 이외에,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과 비통합에 대한 양가적 기대, '먹고 살만한' 한인이라는 특정 계층, 친족·사업관계에 기반한 권력구조와 질서 등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경계짓는 '문화적' 수사와도 같다.

종교와 종족사회가 통합된 ISC에서 '한인'이라는 경계에 담긴 성원들의 사회적 기대는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장과 맞물리는 맥락에서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신앙적 기대와 어긋나며 신앙공동체로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종족종교공동체 ISC가 '신앙으로서의 종교'로 '사회로서의 교회'를 품기 위해 모색해 온 공존방식은 사회와 신앙의

영역이 무분별하게 혼재된 국면을 초래했고, 신앙주체로서 개별 성원들의 입지는 ‘한인 카톨릭’으로 통합된 경계 안에 압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공동체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신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자기와는 다른 세속적 기대와 성향을 가진 성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로서 교회와의 사이에서 여러 차원의 갈등을 겪게 된다. 신실함의 영역인 ‘봉사’ 활동을 둘러싼 평판게임과 각 단체 내·외부의 정치적 경합, 사회로서 교회의 질서에 신앙과 개인이 소외되는 상황, 신앙이자 권력으로서 언어가 내재한 모순이 세대 간 갈등으로 부각되는 국면들은 ISC가 사실 단일하지 않은 기대들로 끊임없이 경합하는 사회적 장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위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종교적으로 온전한 성원권을 확보하면서 ‘닫힌 교회’에서 해소될 수 없는 신앙적 기대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ISC와 각 성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중간인의 위치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한다. 이들은 ISC에 교적(敎籍)을 두고 성원으로 역할하면서 필요에 따라 원주민교회를 오가는 방식, 한인 선교사라는 매개자를 통해 외부 카톨릭 사회와 연대하고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며 범카톨릭 세계시민이자 아르헨티나 카톨릭계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가하면 외부 카톨릭사회의 권위자와 전언자를 닫힌 교회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ISC의 종교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본당의날 의례가 기획되는데, 여기에서 ISC 성원들은 성찰하는 신앙주체이자 연회의 주인으로 연행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서 부여된 타자성을 극복해간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한인 카톨릭이 위치한 신앙과 세속의 경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닫힌 교회’ 내부에서도 한인 카톨릭 성원권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이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보다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간다.

본 연구는 그간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라틴아메리카 지역 사례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편중된 기존 연구패턴의 한계를 벗어나 제 3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주맥락과 성원권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높은 재이주율과 ‘언젠가는 떠날 곳’이라는 거주국에 대한 인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북미와 근접한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 국가 한인 및 아시아계 이주민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 지

역 아시아계 이주민사회에서 거주국 사회로의 소속의지가 낮은 반면 종족 정체성과 종족집단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서성철 2005; Wilson 2004; Joo 2006; Mera 2011; Ko 2014). 하지만 거주국 사회를 이주의 종착지로 설정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이주를 완료되거나 예정된 단편적 경험으로, 초국가적 삶의 배경은 거주국과 모국사회의 비교적 고정된 구도로 다루면서 이주의 연속성이 이들의 정체성과 삶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이주가 디아스포라들의 단편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삶을 관통하는 패턴 내지 속성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주지속성으로 그 특징을 개념화하였다. 삶의 속성으로서 이주지속성은 이 지역 디아스포라들이 지속되는 이주 과정 속에서 결국 어디에서도 중간인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성하는 한편, 한인 카톨릭과 같이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그 중간성을 긍정하는 소속 전략과 성원권을 기획하는 토대가 된다. 그 성원권의 영역 또한 ISC의 경우처럼 가깝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톨릭 또는 한인 카톨릭에서, 나아가 자신들의 이주노선과 겹쳐지는 중남미 지역의 한인 카톨릭, 그리고 향후 이주가능성이 열려있는 한국, 미국의 한인 카톨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획된다. 여기에서 성원권의 경계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중간인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주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이 곳의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탈영역화된 주체성의 생산 과정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생성과 존재양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국적 주체들의 정체성과 성원권이 구성되고 실천되는 제 양상을 유동적인 사회적 장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조명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종교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소속의 정치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특정 공동체에서 거주국 사회로의 통합이나 여타 종족·계층 집단과의 공존 의지가 비교적 단일하며 고정적인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조명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 한 공동체 내에서도 성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사회적·신앙적 기대들이 공존·경합하며, 성원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행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인' '카톨릭'이라는 신분과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사회적·신앙적 기대가 합치되는 지점과 분기되는 지점을 함께 다루면서, 먼저 '한인'이라는 범주를 문화적·선형적으로 부여된(것처럼 여겨온) 경계들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하였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른 이름인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조선족(朝鮮族), 자이니치(在日)로 살아가는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인됨(koreanness)을 인식하고 경험하듯이, ‘코르헨띠노(coreano en Argentina, argentino coreano)’이자 카톨릭국가의 ‘한인 형제들(hermanos coreanos)’이라는 위치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이라는 범주를 공통된 종족 자질로 고정시켜 방점을 찍어버리면 ‘한인 카톨릭’과 같이 사회와 종교가 압축된 공동체에서 신앙영역은 세속적 목적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장치로 간과되기 쉽다. 그럴 경우 공동체 내부 질서와 성원권의 속성이 재편되는 과정은 종족 내 젠더·세대·계층과 같은 단일한 기준에 따라 성원들의 기대가 분기되며 발생하는 단편적인 변화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 종교, 이주의 속성, 감정과 감각 등 여러 기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ISC 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위치를 가늠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 카톨릭’의 경계가 구성되는 지점들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간상인, 치노(chino)라는 영원한 타자, 뿌리내리지 않는 이방인, 카톨릭 형제인 동시에 분리된 종족공동체, 편안함과 안전함, 신앙인인 동시에 사회인으로 배치되는 교회에서의 위치, 재외 한인 카톨릭으로의 연대. 이러한 지점들은 언어와 관습 같은 문화적 자질 이외에 여러 층위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인’의 경계가 구성되며, 특히 ‘한인 카톨릭’으로 압축된 경계에서는 ‘한인’과 ‘카톨릭’이 각각 의미하는 바와 속성을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신앙과 세속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황에 따라 카톨릭과 ‘타자화된 이주민’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방식은 ‘한인 카톨릭’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유동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는 종족, 종교와 같이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가름해 온 범주들이 실상 소속의 정치를 통해 구성된 경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코 그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에게 ‘온전한’ 형태로 성원권이 고정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한인 카톨릭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문화적으로 수식되는 성원권으로 해석되며, 특정 집단을 차별화하는 자질과 문화적 수사로서 종족과 종교의 경계는 사실 수용과 배제의 일상 정치를 통해 구성된 역학의 한 형태임이 확인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초국적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위치라는 한인들의 이주맥락과 경험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거주국 사회 맥락의 변화가 한인 카톨릭 성원권의 재구성

과정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사실 한인 카톨릭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중간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긍정하고 신앙실천을 통해 성원된 역할을 하려는 시도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아르헨티나가 ‘문명화된 백인 국가’라는 단일성의 신화를 버리고 그간 존재해온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같은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집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이를 드러내며 온당한 성원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한편, 외부사회에서 또한 이들을 사회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과 성원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상호 경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소수자이면서 동시에 인종적·문화적 타자로서 한인들의 입지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여타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위치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종적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들은 주로 ‘흑-백’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치노(chino)’로 범주화되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사회성원권의 담론에서 여전히 비가시적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Siu 2001; Ko 2014; Baustia and Vom Hau 2014). 이같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위치를 맥락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제 3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중간성을 긍정하고 종교, 종족 등 ‘문화적’ 차이를 수렴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적 성원권이 구성·실천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한인 및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여타 사례와 비교연구를 통해 앞서 지적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역연구 차원에서 한층 더 거시적이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18(2): 5-51

강희영, 2012,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구 소련권 유학이주여성의 한국체류경험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권숙인, 2004,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일본연구논총』 19: 181-210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4): 33-60

로살도, 레나토 (권숙인 역), 2000, 『문화와 진리』, 서울: 아카넷

서성철, 2005,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18(3): 155-186

손정수 · 장영철, 2006, 『아르헨티나 한국이민 40년사』, 서울: 대양문화인쇄사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교범, 1992, 『아르헨티나 한인이민 25년사』, 서울: 선영사

천주교재아한국순교성인성당 30년사 역사편찬위원회(ISC),
2001,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30년사』, 가톨릭출판사

Bankston, K. L. and Zhou, Min

1995,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Identification, and Adaptation of Vietnamese Adolescents in an Immigrant Community," *Sociological Quarterly* 36(3): 523- 534

Bastia, Tanja and Vom Hau, Matthias

2014, "Migration, Race and Nationhood in Argentin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3): 475-492

Bell, Catherine

1992,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Benecia, Roberto

2012, "Migraciones y situaciones en el ámbito de trabajo," *Voces* 21: 13-17

Berg, Mette Louise

2009, "Homeland and Belonging among Cubans in Spain," *Th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4(2): 265-290

Bialogorsky, Mrita

2010, "Discriminación a la colectividad coreana," in Braylan, Marisa (eds.), *Exclusión e Inclusión: El problema de los colectivos discriminados*, Centro de Estudios Sociales DAIA(Delegación de Asociaciones Israelitas Argentinas), pp.31-37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MA: Polity Press

Clifford, James

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302-338

Chai, Karen J.

1998, "Competing for the Second Generation: English Language Ministry in a Korean Protestant Church," in Warner, R. S. and Wittner, J. G. (eds.), *Gatherings in Diaspora: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New Immigr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295-332

Chong, Kelly H.

1998, "What It Means to Be Christia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and Boundary among Second - Generation

Korean Americans," *Sociology of Religion* 59(3): 259-286

De Genova, Nicholas P.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419-447

Dumont, Wouter

2003, "Immigrant religiosity in a pluri-ethnic and pluri-religious metropolis: an initial impetus for a typ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18(3): 369-384

Durkheim, Emile (translated by Fields, Karen E.)

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Ebaugh HR and Chafetz JS

2000, "Reproducing Ethnicity," in Ebaugh HR and Chafetz JS (eds.), *Religion and the New Immigrants: Continuities and Adaptations in Immigrant Congregations*, CA: AltaMira, pp.385-408

Ecklund, Elaine Howard

2005, "'Us' and 'them': the role of religion in mediating and challenging the 'model minority' and other civic boundar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8: 132-150

Foner, N. and Alba, R.

2008, "Immigrant Religion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Bridge or Barrier to Incl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2): 360-392

Gans, Herbert J.

1994, "Symbolic ethnicity and symbolic religiosity: Towards a comparison of ethnic and religious accultu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4): 577-592

Grewal, Inderpal

1994, "The Postcolonial, Ethnic Studies, and the Diaspora: The Contexts of Ethnic Immigrant/Migrant Cultural Studies in the U.S.," *Socialist*

Guest, Kenneth J.

2003, *God in Chinatown : Religion and Survival in New York's Evolving Immigrant Community*, New York: NY Univ. Press

Hicks, David

2010, *Ritual and Belief : Readings in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AltaMira Press

Hirschman, Charles

2004,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206-1233

Joo, Jong Taick

2006, "Ethnicity and Economy in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Brazil," Korea Ethnic Return Migrants in South Korea: Receptions, Perceptions and Identities, KERM(Korean Ethnic Return Migration) Conference(27-28, 2006), pp.64-101

Kim, Rebecca Y.

2004,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Ethnic, Multi ethnic, or White Campus Ministries?," *Sociology of Religion* 65(1):19-34

Ko, Chisu Teresa

2014, "From Whiteness to Diversity: Crossing the Racial Threshold in Bicentennial Argentina," *Ethnic and Racial Studies* 37(14): 2529-2546

Leman, Johan

1999, "Religions, Modulators in Pluri-Ethnic Cities: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the Relative Shift from Ethnic to Supra-Ethnic and Meta-Ethnic Faith Communities in Brussels,"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14(2): 217-231

Levitt, Peggy

2007, *God needs no passport: Immigrants and the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New York: New York Press

Levitt, Peggy and Schiller, Nina G.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145): 595-629.

Luhrmann, Tanya M.

2012, *When God Talks Back: Understanding the American Evangelical Relationship with God*, New York: Alfred A. Knopf

Matsumoto, Juan Alberto

2007, "La convivencia multicultural en la Argentina: Los inmigrantes de los países limítrofes que no estaban incluidos en el crisol de raza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4:177-190

Mauss, Marcel

1972, *The General Theory of Magic*, London: Routledge

Mera, Carolina

2003, "La inmigración coreana en Buenos Aires. Historia y actualidad," XI Congreso Internacional de ALADAA(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studios de Asia y África) : 1-10

2011, "El concepto de diáspora en los estudios migratorios: reflexiones sobre el caso de las comunidades y movilidades coreanas en el mundo actual," *Revista de Historia* 12: 43-56

Min, Pyong Gab

1992,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1370-1394

Mudimebe, V.Y, and Sabine Engle

1999, "Introduction: Diasporas and Immigratio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8(1/2):1-4

Nye, Malory

2008, *Religion: The Basics*, New York: Routledge

Ong, Aihwa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Current Anthropology* 37(3): 737-761

Park, Jerry Z.

2013, "Ethnic Insularity among 1.5- and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Christians," *Development and Society* 42(1): 113-136

Park, Julie J.

2011, "I Needed to Get Out of My Korean Bubble: An Ethnographic Account of Korean American Collegians Juggling Diversity in a Religious Context,"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42(3): 193-212

Park, Kyeyoung

1989, "Born Again: What does it mean to Korean-Americans in New York city?," *Journal of Ritual Studies* 3(2): 287-301

1999, "I am Floating in the Air: Creation of a Korean Transnational Space among Korean-Latino American Remigrants." *Positions* 7(3): 667-695

2014, "The 'foxes' outfoxed: contestations between Koreans and Jews in South American textile industries," *Dialectical Anthropology* 38: 17-39

Rosaldo, Renato

1994, "Cultural Citizenship in San Jose, California," *Polar* 17: 57-63.

1997,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Flores, William V. and Benmayor, Rina (eds.), *Latino Cultural Citizenship: Claiming identity, space, and rights*, Boston: Beacon Press, pp.27-38

Ryang, Sonia

2008, *Writing Selves in Diaspora: Ethnography of Autobiographics of Korean Wome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exington Books

Sabarots, Horacio R.

2002, "La construcción de estereotipos en base a inmigrantes 'legales' a 'ilegales' en Argentina," *Intersecciones en Antropología* 3: 97-108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83-99

Shaw, Rosalind and Stewart, Charles

1994, "Introduction: problematizing syncretism," in Stewart, Charles and Shaw, Rosalind (eds.), *Syncretism/Antisyncretism: The Politics of Religious Syntheses*, London: Routledge, pp.1-26

Siu, Lok

2001, "Diasporic Cultural Citizenship: Chinese and Belonging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 *Social Text* 19(4): 7-28

Tölölyan, Khachig

1991, The Nation State and its Others: In Lieu of a Preface, *Diaspora* 1(1):3-7

Tsuda, Takeyuki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ubergen, Frank V. & Sindradótti, Jórunn Í.

2011, "The Religiosity of Immigrants in Europe: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0(2): 272-288

Vertovec Rogers

2005,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1-19,

Werbner, Pnina

2002, "The Place which is diaspora: citizenship, religion and gender in the

making of chaordic transnationalis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8(1): 119- 133

Wilson, Tamar Diana

2004, "Introduc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31(3): 3-17

William V. Flores & Rina Benmayor

1997, *Latino Cultural Citizenship: Claiming identity, space, and rights*, Boston: Beacon Press

Willen, Sarah

2007, "Toward a Critical Phenomenology of "Illegality": State Power, Criminalization, and Abjectivity amo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Tel Aviv,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45(3): 8-38

Yang, Fenggang

2000, "Chinese Gospel Church: the Sinicization of Christianity," in Ebaugh HR and Chafetz JS (eds.), *Religion and the New Immigrants: Continuities and Adaptations in Immigrant Congregations*, CA: AltaMira, pp. 89-107

Yuval-Davis, Nira

2006, "Belonging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Patterns of Prejudice* 40(3): 197-214

2. 자 료

미국 국무부, "2014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 아르헨티나(ARGENTINA 2014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http://www.state.gov/j/drl/rls/irf/religiousfreedom/index.htm#wrapper> (2016. 3. 19 접속)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종교시설 주소(Dirección General de Cultos),”
http://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catolicos_apostolicos_romanos_1.pdf (2015. 2. 27 접속)

아르헨티나 카톨릭정보원(Agencia Informativa Católica Argentina), “Iglesia en la Argentina(아르헨티나 소재 교회),”
<http://www.aica.org/guia> (2016. 3. 20 접속)

아르헨티나 상원, “아르헨티나 국가헌법(Constitución de La Nación Argentina),”
<http://www.senado.gov.ar/Constitucion/capitulo1> (2015. 3. 15 접속)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2015),”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enu=m_10_40 (2016. 3. 15 접속)

재아르헨티나한인회,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www.korar.org/index.php?mid=notice&page=3&document_srl=48080
(2015. 2. 13 접속)

카톨릭인터넷 굿뉴스, “카톨릭대사전”
<http://dictionary.catholic.or.kr> (2015. 1. 20 - 2016. 3. 20 접속)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 “주요일정-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http://popekorea.catholic.or.kr/schedule/sch-sub01.asp> (2015. 7. 19 접속)

Abstract

The Politics of Belonging and Religious Belief of Korean Catholics in Buenos Aires

- Production and Reconstruction of Diasporic Boundary
through Religious Practice

Han, Eun-hye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cultural citizenship practiced by the Korean diaspora who is constituted as “in-betweener”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migration. Case study of the Korean diaspora in Buenos Aires shows how diasporas operate their cultural citizenship in order to guarantee an alternative social membership tha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members of the host society. This article particularly emphasizes the Korean Catholics as a producer of an alternative membership that accept their state of “in-betweener” and their religious practices. The study examines how their strategi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are reflected in their religious life. These strategies are derived from the expectation of belonging. They construct their multi-layered boundaries between the Argentine natives(European white) of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 migran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representing 'illegality').

Firstly, the study explores how the place of the Korean diaspora in Buenos Aires is constituted and how Korean catholic community constructs its boundaries through the specific context of migration in Argentina. Korean migrants here show a high level of remigration because Buenos Aires has

been a transit place for the intra-regional migration within Latin America and for the extra-regional migration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North America. Moreover, frequent economic fluctuations and social unrests in Argentina cause Koreans to remigrate. Under these conditions they perceive Argentina as "a place to leave some day", which in the end decreases their will to integrate into the native society. Meanwhile, as Argentina historically has adhered to the national ideology of "civilized white", Koreans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from the native society due to their cultural and class difference, even though they have climbed into the middle class. Especially, their status as "middlemen minority" has caused tensions with the natives of low-income class and the migrant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experience as "second-class citizen" causes many Koreans to move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but in return, they experience another discrimination as "second-class gyopo(overseas Korean)" in Korea. In the end, they decide to stay in Korean society in Buenos Aires and accept their present status as "in-betweener". The common experience and the mutual feelings of "losing home" force people of different migration backgrounds to be absorbed into the groups of Korean diaspora in Buenos Aires.

Koreans in Buenos Aires have searched their way of living that can accept and narrate their state of existence in the place of diaspora which is characterized by "continuity of migration" and "second-class citizen". Many Koreans choose the ethno-religious membership which is the "differentiated in-betweener". Since Catholic membership partly plays the role of alternative citizenship in Argentina where Catholic is the state religion, those who are willing to belong to Argentine society flow into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the Catholic Church of the Saint Korean Martyrs(hereinafter referred to as ISC).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still have ambivalent expectations of integrating into the host society, hence form the dual-strategy of simultaneously belonging to and distancing from the native

society. Under this strategy ISC produces the membership which is practiced in the form of "closed church" that claims cultural difference of Koreans and operates only for Koreans. As a matter of fact, the category of "Korean" that differentiates ISC from other Catholic communities is like a cultural rhetoric that divides the boundary of a group sharing same concerns: cultural qualities such as language; ambivalent expectations of integration into the native society; particular class of affluence; power structure on the relations of family and business, etc.

Meanwhile, the dual-belonging strategy of "closed church" causes ISC to be insecure as a community of faith within the religious field of "Catholic" because the boundaries of Korean Catholic as a religious believer are formed differently than as a secular individuals. ISC as an ethno-religious community has endeavored to embrace the church as an ethnic society through the religious belief, but this way of co-existence complicates situations where the realm of society and the realm of religious belief are mixed indiscriminately. The status of each members as a religious subject has been compressed into the combined boundary of "Korean Catholic". Therefore, the members who want to deepen their faith often experience various conflicts with the church as an ethnic society in which secular expectations are strongly reflected. Such conflicts are observed through the followings: the political competitions of "reputation-game"; neglect of the realm of religious belief;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legitimate language which can be a source of both belief and power dynamics. These situations show that in fact, ISC is a social field where heterogeneous expectations are constantly competing with each other.

Under the circumstances stated above, Korean Catholics try to satisfy religious expectations which cannot be met in the "closed church" while maintaining ISC membership. Some of them go to the native churches as necessary while playing important roles as the member mainly in ISC. Also

ISC members take an indirect way to confirm their solidarity with the outside Catholic society through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missionaries who in this case work as an intermediary. In this way they expand their realm to outside of the "closed church". Furthermore, ISC hosts the special ritual "the day of ISC", inviting authorities and messengers of the outside Catholic society, in order to get an acknowledgement of their religious legitimacy from Argentine Catholic society. In the rituals, ISC members perform both as religious subjects who introspect themselves and as hosts of the feast. In this way, they overcome their "otherness" attached to the daily lives. Through these religious practices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us subject and secular other, Korean Catholics reconstruct their way of living into a more complete one.

In the later part,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membership of "Korean Catholic" has been reconstituted in a more complete way when its political strategy of belonging fails. In the study, "Korean Catholic" is translated as a membership that is socially constituted and culturally framed. As a result, the study asserts that the boundary of ethnicity and religion, a cultural rhetoric and qualities that differentiate a specific group from others, is actually a form of the dynamics that are constructed through the everyday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Korean Catholics show how diasporas reconstitute their boundaries flexibly following the context of migration around their own location and transcending the borders of nation-states. This implies the studies of Latin America and Korean diaspora of this region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how deterritorialized subjectivities, such as diasporas, are generated.

- **keywords** : Korean diaspora, Buenos Aires, continuity of migration, cultural citizenship, politics of belonging, religion, Korean Catholic
- **Student Number** : 2011-23135